현대불교

행복 만들기 캠페인
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

제 726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3년 4월 8일(음력 3월 13일) 수요일(주간)



부처님오신날과 연등축제를 앞두고 사찰마다 연등과 장엄등 제작에 여념이 없다. 사진은 한마음선원 청년회원이 장엄등에 채색을 하는 모습. 박재완 기자

새벽에 중장비 동원해 법당 부숴

김해 홍안사, 퇴거 소송 中 지주가 '만행'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조계종 선학원 김해포교원 홍안사(주지 보현)에서 심각한 훼불사건이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3월 30일 새벽 4시경 김해시 주촌면 소재 홍안사에 용역 직원이 난입, 대웅전을 무단 철거해 법당에 모셔져 있던 약 40여 년 된 관음보살상 등이 크게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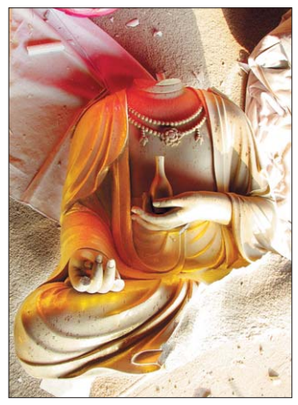
홍안사는 사찰 지주(地主)가 前 주지 세등 스님을 상대로 진행한 건물 퇴거명도 소송 1심 판결 결과 지주 승소판결이 나와 3월 24일 세등 스님이 절을 떠나고, 이 후 보현 스님이 주지 발령을 받아 기거하고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지주 측은 사찰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중장비 등을 동원, 철거해 문제가 됐다.

세등 스님은 "2007년 당시 사찰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주민신고가 접수된 후 김해경찰서측에 서류를 제출해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문을 받은 바 있다"며 "무허가 건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1심 판결 결과 또한 철거 명령이 아닌 퇴거 명령이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또 "향후 다른 곳에 법당을 만들어 불상과 탱화 등을 옮길 계획을 지주측에 밝히기도 했지만 이와 같은 참사가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홍안사측은 현재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지주측을 형사고발한 상태다.

한편, 김해불교사암연합회와 김해불교신도회 등 13개 지역 불교단체 등도 '홍안산 대책위원회(위원장 조유식)'를 구성하고 사건행위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불상 원상복구를 위한 피해보상 촉구 등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용역 직원의 무단 철거 과정에서 훼손된 관음보살상의 모습. 사진제공=영남매일

법구경

현명한 이는 마음을 잘 다스린다.
잘 다스린 마음은
행복의 근원이다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올곧은 마음으로 참된 공양물만을 만드는
능인향당
향 · 조각 · 공양물
본사 02)3663-6777
(조계사 맞은편 02-730-6888 직영매장)

<PR>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복장의식 및 소장용으로 휴대가 가능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식 주문제작이 가능합니다
실물크기(3.5×5cm) 금강경 23매
용도:복장의식, 상량식,불사 영가천도
문의 (02)722-1850

"우리는 하나다"

진오 스님, 다문화사회 불교계 대응방안 강조

경기도 김포와 안산시 단원구, 서울 구로 · 가리봉동 지역에서 보이는 이주민집단 거주지역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현재 한국은 170여 개국 120만 외국인들과 공존해 사는 다문화사회이기 때문이다. 2004년 이후 10쌍 중 1쌍이 국제결혼을 했고, 결혼이민자 자녀들이 취학연령이 되면서 교육기관에도 다문화가 빠르게 확산중이다. 단일민족임을 자처하던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야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최근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12년 까지 6000여 억원 예산을 들여 다문화사회를 위한 사회통합 강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불교계는 2000년경부터 이주노동자지원사업을 펼쳐왔다. 이주민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불교계 최초 설립된 구미보현의집(現 마하붓다센터)을 비롯해 조계종 사회부(이주민 쉼터, 프로그램 지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소속 20개 이주민 지원단체 등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의 119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운데 불교계가 운영하는 곳은 서울, 경북, 대구, 강원 4지역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국내체류 외국인 중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불교국가 출신은 77만명에 달한다. 때문에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들을 위해 불교계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지관)은 4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다문화정책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불교'를 주제로 불교사회복지포럼을 개최해 다문화사회를 맞아 불교계 역할을 모색했다.

이날 진오 스님(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주제발표 '다문화가정을 위한 불교계의 대응 및 역할모색'에서 다문화사회에 접근하는 구체적 실천법으로 △철저한 분석을 통한 지역별 주력분야 선정 △국내 거주 외국인승려 활용을 포함한 인적 · 물적 네트워크 구성 등을 제안했다. 스님은 이밖에도 △철학과 사상, 신념을 바탕으로 실행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 설립 △사찰에서 가능한 지원사업 소개 등을 제시했다.

포럼에는 설동훈 교수(전북대)가 '다문화사회, 정책동향과 미래의 대응방안'을, 강복정 팀장(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팀)이 '우리나라 다문화지원서비스의 현황 및 과제' 등을 발표, 다문화사회에 맞는 현실적인 불교 종책의 개발을 주문하기도 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 국제사회는 한국이 외국인 거주자와 혼혈인이 크게 늘어나 이제 다민족 사회가 되었기에 '단일민족'이라는 개념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국가적 관심에 더해 불교계가 동체대비의 사상으로 다문화사회를 원융시킬 행동에 나설 때다.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무상계' 증의회 연
▶7 월운 스님



선지식을 찾아서
▶14 종하 스님



우리마을 展 여는
▶19 이호신 화백

갓바위 케이블카 결사 반대!

조계종, 8만명 반대서명 대구시에 전달

조계종이 갓바위('관봉 석조약사여래좌상', 보물 431호) 케이블카 설치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조계종 총무부장 원학 스님과 선본사 주지 향적 스님,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 등 갓바위 관련 조계종 스님들과 대구불교청년회, 대구녹색연합 등 지역불교, 환경단체들은 4월 1일 김범일 대구시장을 만나 갓바위 케이블카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8만여 명의 반대서명을 전달했다.

이날 원학 스님은 "케이블카 사업은 자연환경 파괴뿐만 아니라 불교수행환경을 훼손한다"며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전 종도는 갓바위를 훼손하는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갓바위를 관리하는 선본사 주지 향적 스님은 "일시적 관광수입으로 지속 보존해야할 국민의 안식처를 훼손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미 선본사 등의 항의공문에 "문화재훼손과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여론이 있지만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등이 쉽게 이용하는 편의적 측면이 있다"며 입장을 밝혔던 김범일 대구시장은 서명을 전달 받은 뒤 "불교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본사는 이날 전달한 서명 외에도 '갓바위 케이블카 절대반대' 스티커 1만부를 대구운전불자연합회 등을 통해 배포하고, 현재 갓바위 인근에서 진행되는 반대서명을 대구 동성로 일대에서 진행키로 하는 등 반대 여론을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갓바위 케이블카는 현재 문화재청 현상변경심사 중으로 추진위는 심사 후 대구시 시행허가를 받아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이전에 완공할 계획이다.

(관련 인터뷰 8면)

노덕현 기자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법률사무소 서안
취급업무 : 민사 · 형사 · 가사 · 행정
강영화 변호사
031)436-3054
010-7504-4521



열대과일 두리안 전문
보이茶, 각종 茶器, 생활 도자기
찾다원
031)882-1357
전국 직접 배송



인간과 자연을 생각합니다.

순수 자연주의를 표방한 자연친화적인 바디케어 제품
"아름다운 인연 곱단이" 출시 –

심청골 무각사 주지스님이 제안하는 '아름다운 인연'
– 인간과 자연을 생각하며 보급합니다. –

곱고 단아한 모습을 지닌 한국의 여인 '곱단이'
전남 곡성군 무각사 주지 성효스님은 출가 후 부처님 인연으로 순수 자연성분의 목욕용품을 만났습니다.
최근 **인기 TV프로그램(스펀지)**과 **언론** 등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세정제품 (헤어, 바디샴푸 등)**에 **석유화학 첨가물인 계면활성제(SLS, SLES, ALS, ALSE)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와같은 계면활성제는 우리 피부에 뻣뻣함과 **노화를 촉진**시키고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순수 자연성분인 야자유와 콜라겐 펩타이드, 아미노산으로 제조된 **곱단이**의 **세정제품**은 죽어가는 세포를 생분해시켜 다시 재생하는 유일한 세정제품입니다. 부처님은 '인간과 자연이 둘이 아니다' 고 설 하셨습니다. 성효스님은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염원하고 불철주야 기도 정진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모든 불자님들이 건강하게 사시는 것이 스님의 마지막 회향 발원입니다.
이를 위해 성효스님은 순수 자연성분 세정제품을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하고자 **석유화학 첨가물 계면활성제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좋은제품**을 만들어 목욕용품 전문업체 **'아름다운 인연–곱단이'**를 설립, 불자님들께 권합니다.

[곡성 무각사 주지 성효 스님 합장]

SLS와 SLES는 샴푸나 목욕용품에 널리 쓰이는 음이온계 계면활성제로 아토피염을 유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포름알데히드와 SLES에서는 심한 피부병 증상이 일어났다. (중략) – 연합뉴스 08.4.24 –

http://www.gobdanee.com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제품 설명과 구매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곱 단 이 를 검색하세요

총 판 대 리 점 모집중

판매원 : 아름다운인연–곱단이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309)
소비자 상담실 : 080–363–8985
제조원 : (주)펩티모

아름다운 인연–곱단이는 친환경을 추구합니다.

곱단이



곱단이의 모든제품에는
석유화학 첨가물을 사용하지않습니다.
SLS, SLES, ALS, ALES (석유화학 첨가물)등의
일반적인 계면활성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정제 주원료 100%
야자유와 콜라겐 펩타이드&아미노산을
사용합니다.

아름다운 因緣 인연

- 곱단이 나노 콜라겐 야자유 트리트먼트 헤어 샴푸
- 곱단이 나노 콜라겐 야자유 젤 바디 샴푸 (건성 피부용/지성 피부용)
- 곱단이 나노 콜라겐 야자유 젤 클렌징 (황토 / 녹차)
- 곱단이 피부 컨트롤 나노 콜라겐 스킨 (모든 피부용)
- 곱단이 나노 콜라겐 파우터 로션
- 곱단이 나노 콜라겐 야자유 헤어 트리트먼트
- 곱단이 먹는 콜라겐 & 글루코사민

2008 INNOVATION ENTERPRISE & BRAND
스포츠서울 LIFE BEST
www.sportsseoul.com
2008 베스트 이노베이션 기업 & 브랜드

[현재 불교TV에 광고 중]



죽비와 목탁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때'를 알아야 참사람

뭇 생명은 숨을 쉰다. <장자> 대종사편에 '진인은 발뒤꿈치로 숨을 쉬고, 범부는 목구멍으로 숨을 쉰다(眞人之息以踵 衆人之息以喉)'고 했다. '발뒤꿈치로 숨을 쉰다' 함은 참사람(眞人, 부처)이 한 호흡마다 발뒤꿈치까지 온몸의 구석구석에 고루 퍼지는 것을 '자각(自覺)'하고 있음을 표현한 말이다.

참사람이나 범부나 한숨 들이켰을 때 허파꽈리가 부풀며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주고받는다. 들숨과 날숨 모양새는 똑같다.

범부는 관심이 남과 밖으로 쏠린 탓에 자신의 호흡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있어도 목구멍에 이따금 차고 더운 공기가 오고감만을 느낄 뿐이다. 숨이 들고 나는 '때'를 모른다.

호흡하는 순간순간마다 항시 깨어 숨이 들고 나는 '때'를 바로 아는 참사람은 일상의 모든 것에도 깨어있다. '일미진중함시방(一微塵中含十方)'이라 했다. 하나의 깨친 도리는 만법을 꿰뚫기에 자신이 물러날 때도 알기 마련이다.

2007년 10월, 신정아 사건 등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동국대 이사장 영배 스님은 "검찰 조사를 통해 혐의가 없어진 뒤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유죄확정 판결 때 까지도 거취를 미룬 스님은 3월 13일 '종도와 학교 구성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이사장직 사퇴 불가의 뜻을 발표했다.

사퇴불가 사유에 대해 영배 스님은 "학교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훼손돼서는 안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발목 잡는 세력들로 인해, 동국대가 종단의 이해다툼에 다시 휩싸일 지경이 됐다"는 으름장도 있었다.

영배 스님의 이 같은 태도에 혹자는 "부적절하게 나랏돈 받은 죄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날 사안이 못된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도 지난해 약속했던 3월말 사퇴를 번복했다. 스님은 3월 31일 태고종 중앙종회에서 "결자해지(結者解之)의 기회를 달라"며 사퇴의사를 철회했다. 스님도 "(3월말 사퇴) 약속을 지킨다는 명분만으로 종단에 누를 끼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두 스님 모두 수행자보다는 학교와 종단을 위해 희생한다는 '순교자'의 길을 택했다. 두 큰스님이 공인으로서 식언과 허언은 했을지언정 '때'를 모르는 철부지일리는 없다고 믿고 기다리고 싶다.

스스로 말한 '때'를 번복하며 자리를 지킨 두 스님의 진의는 그 '때'가 되면 알 수 있을테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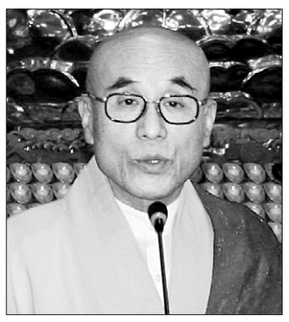
"종단 혼란 결자해지가 도리"

운산 스님 사퇴 철회… 종회 '지지'·보우승가회 '조사'

3월 말 사퇴 의사를 밝혔던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이 잔여임기(11월 9일)를 채우게 됐다.

태고종은 3월 31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대불보전에서 제97회 임시중앙종회를 개최했다. 재적의원 52명 중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종회에서 운산 스님은 "태고종이 매우 혼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과 개인적으로 수행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종도들께 참회 드린다"며 "지난해 종단 안정을 위해 사퇴 의사를 표명했지만 최근 더욱 혼란스러워진 종단의 현실을 보며 결자해지(結者解之)의 마음으로 이를 해결하고 수습하는 것이 총무원장의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사퇴 의사를 철회했다.

4월 1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운산 스님은 "종권에 연연해 철회를 밝힌 것은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떳떳치 못한 상황에 부끄럽고 착잡함을 느낀다"며 "사퇴 의사 표명 후에도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돼 책임지고 종단 화합과 현안타결을 이루기 위해 철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운산 스님이 3월 31일 진행된 임시중앙종회에서 사퇴의사 철회 발언을 하고 있다.

스님은 "현재 진행되는 총무원장 선거운동 상황 등을 봤을 때 현재 종단 내 산재한 문제들과 의혹들을 정리하는 데에 다른 분들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중앙종회 전 상의를 통해 종회의원 35명과 종무원장 20명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운산 스님은 7일 오후 종무원장 회의를 시작으로 인사개편 등 (종단 쇄신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운산 스님의 사퇴 철회와 관련해 종회의원들은 임시중앙종회에서 "잔여임기 동안 책임감 있는 자세로 종무행정에 만전을 다하기를 바란다"며 철회 의사를 지지했다.

하지만 보우승가회(회장 도산)는 이번 중앙종회의 결정과 관련,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태고종 내 건전 야당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만큼, 운산 스님 퇴진 운동과 의혹조사 등의 노선을 지속적으로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해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운산 스님은 2008년 10월 1일 "늦어도 2009년 3월 30일까지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불사의 마무리와 조계종과의 신촌 봉원사 문제를 해결하고 물러나겠으며, 그 전이라도 두 현안이 해결되면 즉시 퇴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진성 기자

"어린이 포교 네크워크 강화"

조계종 포교원 불교어린이지도자 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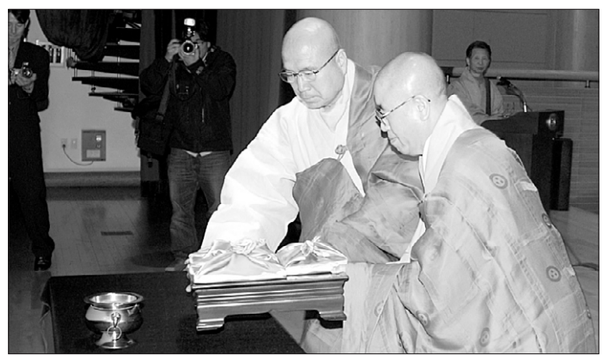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이 3월 28~29일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제2회 불교어린이지도자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 참가한 제3회 불교어린이지도사고시 합격자 24명을 포함한 80여 전국 지도자들은 지역별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토의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어린이 법회의 발전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지도자들은 지역민과 함께하는 연합운동회, 이웃 사찰과의 교환법회, 학부모 초청강좌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했다. 또 정기 모임 실시 공개수업 참관, 지도자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키즈붓다' 등 멀티미디어를 활용해야한다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특히 참가 어린이지도자들은 한국멘토링코칭센터 홍재우 강사의 '어린이들에게 지도하는 멘토링 방법'에 큰 관심을 보였다.

포교부장 계성 스님은 "포교는 상대에게 얼마나 관심을 주느냐에 달렸으니 네트워크를 구축해 힘을 모아 어린이 포교에 앞장서 달라"며 "어린이 포교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지도자로서 사람을 귀하게 여겨 한 명 한명 진성 불자로 키워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상언 기자



'그리운 석주 큰스님' 봉정법회 석주당정일대종사문도회(대표 월호)와 한국불교선리연구원(연구원장 법진)은 3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탄신 100주년 기념문집 <그리운 석주 큰스님> 봉정법회를 봉행했다. 법회는 조계종 원로의원 현해 스님과 포교원장 혜총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법하게 봉행됐다. 김진성 기자

"종책도 중요하지만 해외구호도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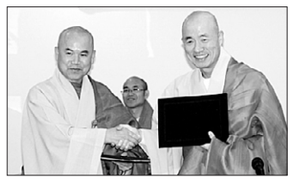
종책모임 화엄회, 로터스월드 · 지구촌공생회 등과 협약

조계종의 한 종책모임이 교계 해외구호단체들과 잇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해외복지사업에 나서 눈길을 끈다.

조계종 화엄회(회장 도공)는 3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로터스월드(대표 성관)와 BWC공동운영 및 병원운영시설 건립 추진 사업에 관한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3억원을 전달했다.

BWC(Beautiful World of Cambodia)는 로터스월드가 캄보디아 씨엠립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를 위한 보육 및 교육, 진료시설이다.

화엄회장 도공 스님은 "화엄회는 12년 전 화엄회 결성 당시는 물론이고 최근에도 전시회 등을 열어 해외복지를 위한 성금을 마련해 왔다"며 "조계종과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해외복지활동 단체와 협력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로터스월드 등과 공동사업을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3월 30일 화엄회장 도공 스님(왼쪽)과 로터스월드 대표 성관 스님이 업무협정을 체결했다.

로터스월드 성관 스님은 "화엄회 참여를 계기로 로터스월드가 조계종 중진스님들을 비롯한 명실공히 사부대중 모두가 함께하는 해외구호단체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화답했다.

화엄회는 이날 협약체결과 함께 전달한 3억원에 이어 10년 동안 매년 미화 3만 달러씩을 BWC 운영자금으로 지원한다. 또 화엄회 회원스님 3인이 로터스월드 이사로 참여하며, 화엄회 5인과 로터스월드 5인으로 구성된 BWC운영위원회도 구성될 예정이다.

이날 화엄회가 지원한 3억원은 BWC 아동센터의 시설과 안과수술 환자 입원시설 개비와 어린이 기숙사 리모델링 등에 쓰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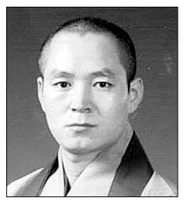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에는 지구촌공생회(대표이사 월주)와 '미얀마 화엄초등학교' 건립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지정기탁금 2억원을 기부했다.

화엄초등학교는 미얀마 양곤의 빈민지역인 쉐피타 타운에 15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건립된다. 쉐피타 타운 지역은 2008년 5월 싸이클론 피해로 미얀마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곳으로 국제사회의 도움의 손길이 이어져왔다.

조동섭 기자

구례 화엄사 주지 종삼 스님 선출

4월 2일 산중총회



조계종 제19교구본사 구례 화엄사 주지에 종삼 스님(現 주지 · 사진)이 선출됐다.

스님은 4월 2일 열린 화엄사 산중총회에서 147명 선거인단 중 106명이 투표한 선거에서 85표를 받았다. 경선에 나섰던 종두 스님은 16표를 얻었고, 5표는 무효처리됐다.

한 편, 종삼 스님의 임기는 2013년 5월까지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체육인불자연합회 장학금 수여

고지현 선수 등 5명



조계종 체육인불자연합회는 3월 31일 5명의 체육인불자에게 장학금 수여식을 봉행했다.

조계종 포교원은 3월 3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조계종 포교원 체육인불자연합회 장학금 수여식'을 봉행했다.

이날 장학금 수혜자는 국가대표 고지현(탁구 · 호수돈여고), 박지호(수영 · 사직고) 선수와 강지욱(배드민턴 · 제주사대부고), 김우진(양궁 · 충북체고) 선수 등 4명과 서울대표 홍상우(수영 다이빙, 서울체고) 선수로 각각 150만원씩 지원받았다.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장학금은 체육인불자연합회를 비롯해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모여진 것이다"며 "나라의 인재인 여러분은 국가와 민족에 이바지하겠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훌륭한 선수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과 포교부장 계성 스님, 체육인불자연합회 이기흥 회장과 정재윤 서울지부장 등이 배석했다.

이상언 기자

중앙종회의원 당선확정 공고

2008년 8월 25일자로 "서울고등법원 2007라 1580호 임시종정선임" 결정과 그 절차에 따라 임시종정 김윤철(향운)스님의 중앙종회의원 선출 공고에 의하여 종회법 제 11조 제 12조에 규정에 의거 중앙종회의원 당선확정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다 음

김수호(성은) 최병택(지호) 박병철(진산) 설회생(명관) 손동주(도봉) 김옥자(옥운)
김위곤(도명) 안영자(운영) 이청일(인담) 김종술(상경) 장영국(혜봉) 이성식(운학)
이동립(원봉) 이순서(원각) 이동수(성원) 장덕수(혜인) 신찬호(운오) 이경락(영산)
박정명(지상) 신현호(천수) 최광식(진혁) 박종수(지원) 정성채(정안) 신태호(선인)
이상 24명 (무순)

불기2553(2009)년 4월 3일

대한불교원효종
중앙종회선거관리위원장 이병근(도천)

임원공고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종정 자운 청봉대종사
종정 사서실장 혜오

원로원장 덕신 운암
원로위원 대연 구담
비구니원로위원 지성

총무원장 월산 혜봉
중앙연수원장 법전 교육원장 지오 교육부원장 원오
비구니원장 아산 비구니부원장 정혜
감찰부장 운오 재무부장 법련 문화부장 운산
경남종무원장 석봉 경북종무원장 묘원 울산종무원장 능현
부산종무원장 도경 경기종무원장 호산 전북종무원장 도암

종도일동

■ 총무원 : 연봉사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전화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 혜봉스님 직통 011-545-5060

덕수총림 수덕사

제4대 방장에 설정 스님

2일 황하루서 열린 산중총회서 만장일치로 추대



덕숭총림 수덕사 제4대 방장에 설정 스님이 사실상 추대됐다.

수덕사(주지 옹산)는 4월 2일 황하정루에서 산중총회를 열어 원담 스님 입적 이후 1년여간 공석 중인 총림 방장에 수좌 설정 스님(사진)을 추천했다.

134명중 78명이 참석한 이날 산중총회에서는 '제4대 방장추대의 건'이 단일 안건으로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추천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설정 스님은 조계종 중앙종회의 추대 절차를 거쳐 방장에 취임하게 된다.

이날 산중총회 의장 옹산 스님은 "이미 3월 9일 열린 임회에서 설정 스님을 방장으로 추대했으나 종헌종법에 따라 산중총회에서 추천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총회를 소집했다"고 설명했다.

산중총회의 만장일치 추대에 따라 법단에 오른 설정 스님은 추대수락사를 통해 "덕이 없는 제가 덕숭산의 방장으로 추대되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근대 한국불교의 위대한 역사를 창조한 경허-만공



4월 2일 수덕사 정혜사에서 봉행된 '만공 선사 탄신 138주년 다례'에서 스님들이 만공선사 부도탑을 참배하고 있다.

선사의 뜻을 이어 수덕사를 수행도량으로 가꾸고 선 중흥과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혜암-벽초-원담 스님으로 이어진 덕숭총림 방장스님들의 유지를 이어 덕숭산문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되살리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발원했다.

1942년 충남 예산에서 태어난 설정 스님은 1955년 13세에 수덕사에서 만공 스님의 법제자인 원담 스님을 은사로 동진출가했다. 해인사 강원을 마치고 봉암사 범어사 정혜사 선방 등에서 참선정진 했으며 30대에는 검정고시를 거쳐 서울대 원예학과를 졸업하기도 했다. 수덕사 주지, 조계종 개혁회의 법제위원장, 제11대 중앙종회 의장 등을 역임했으며 덕숭총림 수덕사 수좌(首座) 겸 화계사 회주로서 원담 스님 입적 후 총림을 원만하게 이끌어 왔다. 총무원장 재임 중 입적한 법장 스님의 사형이기도 한 스님은 수행과 종무행정, 포교에 두루 능통함으로써 이판과 사판, 종통과 설통을 겸전해 일찌감치 차기 방장으로 거론돼 왔다.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익산 미륵사지석탑 진신사리 출현

조계종, 사리친견법회 봉행 예정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3월 31일 국립문화재연구소 금속보존처리실에서 미륵사지석탑 사리장엄구 이운 및 공양의식을 봉행했다.

조계사 주지 세민 스님 집전으로 봉행한 의식에는 범하 스님(불교중앙박물관장), 수경 스님(총무원 문화부장), 보련 스님(총무원 문화국장), 향봉 스님(익산 사자암 주지)이 동참했다.

스님들은 미륵사지석탑 해체 과정에서 사리장엄구 발견 당시 이운의식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던 것을 감안해 이운의식을 먼저 봉행했다. 또한 X-ray 투시 결과 금동사리호 내 내호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돼 진행된 금동사리호 개봉 · 조사를 참관했다.

사리구를 개봉한 결과 사리 내호와 다량의 구슬, 성분 미상의 사리 12과(顆)가 수습됐다. 이에 스님들은 진신사리를 모시고 공양의식을 봉행했다.

이분희 행정관(조계종 문화부)은 "이번에 출현된 미륵사지석탑의 진신사리는 1300년 전 백제인의 신앙의 결정체"라며 "조계종은 문화재청과 협의해 불자들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진신사리를 친견할 수 있도록 사리친견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높이 5.9㎝ · 어깨 폭 2.6㎝의 사리내호는 전반적으로 외호(높이 13㎝ · 어깨 폭 7.7㎝)와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었으나 뚜껑과 동체 상부가 일체형(一體形)으로 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동섭 · 김진성 기자



부처님오신날 봉축 제3회 청도 유등제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제3회 청도 유등제가 3월 27일부터 닷세 일정으로 막이 올랐다. 청도천 파랑새 다리 부근에서 펼쳐진 유등제는 27일 저녁 법요식과 점등식을 시작으로 행사기간 동안 군민노래자랑과 재즈 공연, 어울림 한마당 등이 이어졌다. 올해 유등제는 청도 소싸움 축제기간에 열리게 돼 많은 관광객들이 물위에 띄워진 오색 유등을 감상하며 불교문화의 향취를 마음껏 느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중국서 통일신라시대 불상 최초 발견

한·중·일 금속공예의 중세 교류 관계 공동연구

한국과 중국의 불교 교류를 입증할 수 있는 통일신라시대(8세기 중 · 후반) 불상이 최초로 발견됐다.

동국대 최응천 교수(미술사학과 · 동국대박물관장)는 3월 21~28일 진행된 '일본 도요타 재단 연구 지원에 따른 한 · 중 · 일 금속공예의 중세 교류 관계 공동조사 연구' 과정에서 절강성(浙江省) 닝보(寧波)시 박물관 소장 유물 중 통일신라 불상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 불상은 높이 21㎝에 이르는 크기로 오른 손은 가슴 위로, 왼손은 아래로 내린 자세이지만 아미타불의 수인을 취하지 않았으며 머리는 나발과 육계가 두툼하게 솟아있다. 또한 통견의 법의는 목 앞에서 몇 번 접혀지고 가슴 앞에서 U자형 주름으로 흘러내리다 배 앞에서 양 Y자형으로 갈라져 흘러내린 전형적인 통일신라 우드야나식 불상으로 파악됐다.

김진성 기자

천년고찰 앞까지 불어닥친 'MB식 토목' 광풍

대성사 · 봉림사 · 용천사 수행환경 훼손 위기

MB정부 들어서 극심해진 '토목광풍'이 천년고찰까지 불어닥쳤다.

서울 대성사(주지 법안)는 3월 27일 서초구청에서 대성사 50m 앞에 2010년 완공될 '예술의전당 공연연습장' 건설 철회 시위를 벌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시위에 참가한 중앙승가대학인스님과 신도 등 100여명은 "6344m2에 달하는 공연연습장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라"며 "건립예정지에서 지속적으로 환경법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서초구청 등은 준비과정에서 전통사찰보존위 심사를 피하기 위해 2007년 9월 경 전통사찰 500m까지인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아예 해제하는 등 치밀한 사전작업을 진행해 왔다는 게 대성사측 주장.

이에 앞서 또 다른 전통사찰인 화성 봉림사(주지 선문)도 3월 11일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와 화성시의 산지전용허가로 사찰 앞 50m에 공장이 들어설 위기에 처했다.

이번 문화재청의 공장 허가는 전통사찰 500m 이내 문화재보호법은 물론 200미터로 제한한 경기도 관련 조례까지 위반한 허가여서 또 다른 논란 까지 낳고 있다.

더불어 함평 용천사(주지 혜용)는 인근 생수공장 건립으로 지역주민들과 연대해 반대시위 등을 벌이고 있다. 용천사 인근지역은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산간 지역으로 용천사와 500여 지역주민들은 지하수로 생활용수를 해결하고 있다.

용천사 인근에 생수공장이 추진된 것은 2006년 전남도 생수판매에 개발을 허가하면서 부터. 현재 공장 건립을 추진하는 용천샘물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공장건립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다.

혜용 스님은 "생수공장에서 500톤의 지하수가 취수예정이다. 500여 마을과 용천사 뿐만 아니라, 반경 20km까지 그 파장이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노덕현 기자

수경 스님과 함께한 오체투지

"묵묵히 생명평화를 외칠 뿐…"

계룡산 중악단~임진각 2차 순례

"찌르륵 찌르륵", "부우웅"

하늘을 노니는 새소리와 지축을 울리는 자동차 소음이 귓가에 끊임없이 울린다. 돌 냄새, 또는 아스팔트 냄새, 자연이 만든, 그리고 인간이 만든 냄새가 코끝을 끊임없이 자극한다.

각 다례상과 향로, 정안수를 받쳐 들고 중악단에 들었다. 세 성직자는 천지신에게 정성스럽게 삼배를 올리며 순례를 고했다. 박남준 시인이 낭독한 고천문을 세 성직자는 불태우며, 오체투지로 다시금 예를 표했다.



3월 28일 계룡산 중악단에서 생명평화를 위한 제2차 오체투지 순례를 시작한 문규현 신부, 수경 스님, 전종훈 신부(왼쪽부터).

오체투지는 서있을 때와 또 다른 세계를 선사한다. 다섯 걸음을 걷고 온몸을 낮춰 대지의 오감을 느끼는 순간은 그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이지 않는 자기성찰의 시간이다.

수경 스님과 문규현 신부는 이러한 길을 지리산 하악단부터 거쳐왔다. 지난해 9월 4일부터 54일동안 자연과 호흡한 길은 170km에 이른다.

신록이 움트는 3월 28일, 겨우내 세상과 소통한 오체투지 순례단이 계룡산 중악단 천고제를 시작으로 묘향산 상악단까지의 순례를 재개했다.

절정에 이른 양기와 차오르는 음기가 조화를 이루는 미시(未時), 중악단에는 오체투지 동참을 위해 선남자, 선여인 500여 명이 모여들었다.

'뿌~~~'

긴 나팔 소리와 대고 소리가 계룡산을 울리는 가운데, '사람 · 생명 · 평화'를 상징하는 삼색기를 든 무희가 비나리를 시작했다. 정화수와 소나무 가지를 든 무희가 부정을 씻는 정화의식을 펼친다.

쑥대를 앞세운 수경 스님과 문규현 신부, 전종훈 신부는 각

수덕사 수좌 설정 스님은 이날 행사에 참석, "물질가치가 우선시되고, 정신가치가 소외받는 현대사회에 세 성직자들이 다시금 오체투지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며 "참사람, 참생명, 참평화를 외치는 이들의 정신이 널리 퍼지길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500여 참가자가 오체투지하며 천고제를 마친 순례단은 당일 공주 계룡면 양화리까지 2km 가량을 순례했다. 엄마 손을 잡고나온 아이도, 노인도, 수녀님도, 심지어 취재기자도 오체투지로 자신을 돌아봤다.

"귀신이 하는 짓꺼리"라며 혀를 차는 행인부터, 자신이 농사지은 딸기를 보시하는 아낙네까지 순례단을 보는 시선은 다양하다. 하지만 잠시 쉬는 수경 스님도, 순례단 어느 누구도 말없는 묵언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묵묵히 생명평화를 외칠 뿐이다.

이날 2km를 시작으로 순례단은 74일간 230km의 대장정을 마치 자벌레처럼 나아갈 것이다. 스스로 몸을 낮추며 조금씩 전진해 6월 9일 임진각에서 화려한 날개를 펼 때 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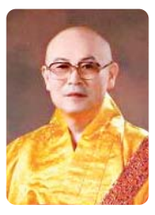
노덕현 기자

봉

대한불교 무량종

개산 종조 제1세 효종 혜안 대종사 종정 취임 대법회

축



귀의삼보하옵고 !
본 종을 애종하시는 모든 불자님과 사부대중 법체 청안하시옵고 하고자 하시는 일 무장성취 하시기를 부처님전에 기원하옵니다.
섬진강변 백리길 벗꽃잎은 하동포구 은빛 물결따라 한려수도로 흐르고 이른봄 야생화 향기가 가득찬 산사 지리산 **칠보정사** 에서 대한불교 무량종 창종 10주년을 맞이하여 **효종 혜안 대종사**님을 **개산종조 제1세 초대 종정**으로 모시는 추대식과 제4대 **총무원장 법천 보경**스님 취임을 다음과같이 봉행 하오니 참석 하시어 법석을 빛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행사내용 : 제 1부 – 10시 문수궁 석굴암 낙성식 (설아다회 육법공양)
제 2부 – 11시 종정 추대식 및 총무원장 취임식
제 3부 – 13시 경로 위안잔치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공연)

※ 일 시 : 2009년 4월8일 (음 3. 13일) 수요일 10시부터
※ 장 소 : 대한불교 무량종 총본산 지리산 칠보정사
※ 연락처 : 총본산 봉행위원회 (055)883-7771. 7790

부 위 원 장 : 오현 현장 종성 보인 다정 보산 보각
집 행 위 원 : 보광 보성 보아 원정 정암 정담 명운 보혜
정운 보정 정향 효각 정심 보선 정수 명진
자명 자운 혜륜 대륜 법륜 정안 보우 지담

대한불교 무량종 종정 추대법회 봉행 위원회

“연등 축제 어디 가서 즐길까?”

지역	주 최	프 로 그 램	장 소	일 시	문 의
서울	서울 도선사	자비의 탁발	청계천일대	4월 9~11일	02-933-3161
		어린이그림그리기대회	도선사	4월 19일	
	서울 봉은사	승과평 점등식	코엑스광장	4월 24일	02-545-1448
		쾌유의 등 나누기	서울의료원	4월 28일	
		봉축템플라이프	봉은사경내	4월 16~30일	
	서울 조계사	불교문화체험마당, 봉축음악회	조계사 경내	5월 2일	02-732-2183
		동자승 삭발식	조계사 경내	4월 19일	
	서울 심곡암	전통한복전시전	심곡암 문수전	4월 12~19일	02-914-8869
		‘대한민국 희망의 노래로’ 산사음악회	심곡암	4월 12일	
경기도	안양 한마음선원	화합제 및 장엄등 점등식	안양삼성초등학교	4월 19일	031-470-3100
	오산불교연합회	이웃돕기 쌀 전달식 및 연등축제	오산시청앞	5월 2일	031-334-5702
	화성 용주사	제1회 2교구 어린이찬불가 율동제	용주사 효행교육원	4월 19일	031-226-3488
		경기북부음악예술제	자재암주차장	4월 18일	
		다문화가정 초청행사	용주사 효행교육원	4월 26일	
	의정부사암연합회	연등축제	평화의 광장	4월 25일	031-837-6114
	강화사암연합회	제등행렬	강화읍문예회관	4월 25일	032-937-0125
	수원사암연합회	연등축제	만석공원	4월 25일	031-245-9670
	양평사암연합회	연등축제	양평고등학교	4월 25일	031-772-8776
	용인사암연합회	연등축제	용인중학교	4월 25일	011-213-2206
	오산불교연합회	이주민돕기후원바자회	오산역광장	4월 26일	031-334-5702
강원도	속초시사암연합회	경제난극복기원법회	춘천 정법사	4월 15일	033-254-7194
		동자승 삭발식 및 수계법회	속초 신흥사	4월 17일	033-636-7393
		제등행렬	속초 엑스포 광장	4월 25일	
	평창 월정사	행복의 염주 및 기쁨의 떡 나누기	월정사 경내	5월 2일	033-332-6664
		어린이 출가체험, 떡 나누기	월정사 경내	4월 25일	
	원주사암연합회	연등축제	원주따뚜경기장	4월 25일	033-765-4848
	강릉사암연합회	법요식 및 제등행렬	남대천고수부지	4월 26일	033-643-2985
	원주사암연합회	음악예술제	원주치악예술관	4월 24일	033-765-4848
충청도	보은 법주사	봉축기념 보은군 어르신 한마당	보은국민체육센터	4월 15일	043-543-3615
	천안시불교사암연합회	음악회	천안제일고등학교	4월 25일	041-545-6531
	대전불교봉축위원회	연등축제	서대전광장	4월 25일	042-526-1080
	옥천불교사암연합회	혜인 스님 초청법회	관성회관	4월 27일	043-732-5560
	공주불교사암연합회	제등행렬	공주고등학교	4월 28일	041-841-7979

지역	주 최	프 로 그 램	장 소	일 시	문 의
충청도	옥천불교사암연합회	제등행렬	옥천공설운동장	5월 2일	043-732-5560
	제천사암연합회	제등행렬	제천시체육관	5월 2일	043-647-2840
	공주 마곡사	신록축제	마곡사 인근	4월 25~26일	041-841-6221
	천안불교사암연합회	불교체험행사	아라리오 행사장	4월 11~25일	041-545-6531
	청주청원사암연합회	불교미술전시회	예술의 전당	4월 27일	011-9829-2522
		봉축유등제 및 불꽃놀이	보은 보청천	4월 27일	
부산	(사)동련	어린이글짓기와 사생대회 ‘연꽃문화재’	부산구덕운동장	4월 26일	051-864-4665
	부산불교연합회	연등축제 봉축문화의 거리	부산국제시장 광복로	4월24~25일	051-867-0501
울산	울산봉축위원회	연등축제	울산종합체육관	4월 28일	052-266-3318
대구	대구 부인사	찬불가 경연대회	어린이회관 꾀꼬리극장	4월 18일	053-982-5006
		경로잔치	자비의집	4월 21일	
	대구봉축위원회	연등축제 청소년댄스경연대회	중앙로 반월당	4월 25일	053-623-6388
	대구 동화사	동화사 불교성보 유물전개최	대구국립박물관	4월 27~8월	053-982-0101
경남	경주 불국사	24회 어린이 글짓기 그리기 대회	불국사 범영루 앞 광장	4월 19일	054-746-9912
	김해사암연합 봉축위	봉축법요식	김해생활체육관	4월 25일	055-322-0088
	진주봉축위원회	법요식 및 제등행렬	진주학생실내체육관	4월 27일	055-747-0108
	통영시봉축위원회	연등축제	통영강구안문화마당	4월 29일	055-646-3090
	양산 통도사	봉축법요식	양산 신평사거리~통도사	5월 1일	055-382-7182
전라도	구례 화엄사	화엄예술제 전국 초중고생 백일장	화엄사 경내	5월 2일	061-783-7600
	순천사암연합회	유등축제	순천 동천 강변	4월 26일	061-744-7773
	벌교봉축위원회원회	제등행렬	벌교읍내	5월 2일	061-857-2328
	여수사암연합회	불교예술제	시민회관	4월 23일	061-662-1607
		실질가정돕기 삼보일배	여수시내	4월 25일	
		전통음식축제	충민사 공원	5월 2일	
		어린이 사생대회	충민사 내	5월 2일	
	나주 심향사	길과 바람, 꿈 연등음악회	심향사 경내	4월 25일	061-334-2880
	광주불교사암연합회	빛고을 연등축제	광주공원, 금남로, 문화전당	4월 28일	062-376-3223
	김제 금산사	청소년모악축제	금산사 인근	5월 23일	063-548-4441
	익산사암연합회	제등행렬, 전통연등만들기 재연	중앙체육공원	4월 26일	063-836-8047
	고창 선운사	보은염 이운식 및 육법공양	고창군 읍내	5월 2일	063-561-1422
	익산사암연합회	1000명 비빔밥 행사	중앙체육공원	4월 26일	063-836-8047
제주도	제주불교연합	봉축연합대법회 및 제등행렬	제주종합경기장	4월 25일	064-724-6830
		제주불교연합합창제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	4월 27일	

전국 천진불 한자리서 음성공양 만발

제21회 전국 어린이 연꽃 노래잔치 개최



제21회 전국어린이 연꽃 노래잔치에서 대상을 수상한 보라매법당 신상철 어린이.

전국의 천진불들이 한자리에 모여 맑디맑은 음성공양을 펼쳐 눈길을 끈다.

조계종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지관)는 3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제21회 전국어린이 연꽃노래잔치를 개최했다. 독창과 중창 · 합창으로 나뉘어 진행된 행사는 독창에 16명의 어린이가, 중창 · 합창에는 은석초등학교 등 8개 단체가 참가했다.

참가 어린이들 모두 뛰어난 기량을 발휘한 가운데 신상철 어린이(보라매법당 · 13)가 ‘산사의 노래’로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최우수상은 봉은사 어린이합창단, 보덕사 유치부 윤지현, 명화사 조홍선, 이유진 어린이(은석초교)에게 돌아갔다.

이상언 기자

경제난 극복 ‘법보신앙’으로

법보종찰 해인사, 정대불사 봉행

합천 해인사가 법보신앙으로 경제난 극복에 나선다.

해인사(주지 선각)는 4월 11일 오전 10시부터 경내에서 서울 능인선원장 능인 스님을 법사로 초청해 ‘호국팔만대장경 정대불사’와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대법회’를 봉행한다.

정대불사(頂戴佛事)는 팔만대장경을 머리에 이고 탑 등을 돌며 소원을 비는 행사다. 해인사 정대불사는 조선 태조 7년(1398년) 장경판(국보 제32호)을 강화도 선원사에서 해인사로 이운할 때 신도들이 경판을 머리에 이고 옮긴데서 유래했다. 매년 음력 3월 9일과 10일을 전후해 봉행됐으며, 올해 49회째를 맞는다. (055)934-3111

노덕현 기자

청주 화장사 27일 제7회 가침박달꽃 축제

청주 화장사(주지 무진)가 제7회 가침박달꽃 축제를 개최한다.

화장사 대웅전 뒷산 1만여 평의 가침박달나무 군락지(충북도지사 고시 천연유전자원보호림 제32호)는 청주의 명물. 축제는 4월 27일 10시 초의 차문화 충북지부 다도시음회를 시작으로 오전 11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초청 법회를 봉행한다. 5월3일에는 가침박달나무 묘종 나눔행사도 이어진다.

세계적 희귀목 가침박달나무의 보존 · 홍보를 위해 마련돼 2003년부터 청주를 상징하는 생태 · 문화 축제로 열리기 시작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대구국제전법도량 몽골·한국 석가모니불 봉안

불교권 이주노동자들이 고향의 부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게 돼 화제다. 함께하는 세상(이사장 지성) 부설 대구 국제전법도량 이웃절(주지 원일)은 3월 22일 스리랑카, 몽골, 한국 석가모니불 봉안기념 합동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지성 스님과 스리랑카의 마남피타 아가담마 스님, 몽골의 바트보양 스님 등 불교계 인사와 100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참석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현대불교신문사 홈페이지 ‘현불닷컴’을 열었습니다
www.hyunbul.com

빙의 퇴마 최면을 전수합니다
빙의(귀신병) 퇴마, 최면 교육 - 치유



빙의치유
●영을 직접불러 누구인지? 무슨원한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천도
전생체험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상업자에게 사업성취를 원인모를 악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수 있습니다.
치유가능한 증상들
●빙의(귀신병)퇴마, 우울증, 공항장애, 대인공포, 불안, 불면증, 만성투통, 게임중독, 약물중독, 급한성격, 집중력, 성적향상등등 원인모를 불치병, 하는 일마다 안풀리는 분은 사주를 바꾸세요. 산소수맥
전수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최면, 빙의, 퇴마 등을 한곳에서 전수가능하며, 전수후 각 시도. 지사개설도 가능함. 최단기간 실전교육, 최면시술 누구나 가능함
“2009년 3월 3일 MBC TV 특종 놀라운 세상「귀신씌인 나무의 실체」편 출연”
서울지부 : 보광사
H·P 016-9511-0840
●서울교육 : 연중무휴
※ 전국 지사 모집. 지속적인 광고지원 ※
부산본부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 051)342-0666 / 364-5586
H·P 010-5656-3915 / 010-3056-3315
●부산교육 : 연중무휴 (숙식가능)
한국 빙의 퇴마 최면 연합회 본부
http://www.jijangsa.24.org
지 장 사 현오 합장

해운대 정해(正海)학당 개원
정해학당(正海學堂)은 대중 설법과 대중 강의와는 차별화된 소규모 경전 공부 모임과 참선 모임을 통해 선정과 지혜를 배우고 익히는 수행처입니다. 정해학당의 공부 모임은 원전 강의와 토론, 문답 등으로 진행하여 불교에 대한 깊고 바른 이해를 지향합니다.
또한 불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종교, 인문, 문화예술인의 교류와 담론의 장을 열어 시대적 대안을 찾고 제시해 나갈 정해학당은 누구에게나 개방된 열린 공간입니다.
원각경 강의
• 일시 :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 10시
• 개강 : 4월 15일 (총 14강)
참선공부 모임
• 일시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10시 (참선)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 8시 30분 (참선)
8시 30분 ~ 10시 (육조단경 강의)
다 회
• 일시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4시
원장 오경 스님은
경북대학교 대학원 철학 전공. 송광사 강원. 실상사 화엄학림 졸업.
제방 선원에서 10여 안거 성만. 서울 법련사 주지. 실상사 화엄학림 강사 역임.
부산 해운대 달맞이언덕 정해학당 TEL 051)744-5322

한국 선종사 뿌리 무상 선사로부터 찾아야

특별기고
정중종의 조사 신라승
무상 선사를 찾아서 下






① 무상선사 법상이 모셔진 대자사 조사당에서 기도하는 스님들.
② 무상선사를 모신 대자사 조사당.
③ 영국사 주지 청덕 노스님.
④ 대자사 조사정에 세워진 무상선사기념비.

'안사의 난' 때 현종이 내전에 모시고 공양…대자사 주지 맡겨
무상의 제자 마조도일, 한국 구산 선문 형성에 중대한 영향

 # 때묻은 목간에 남은 무상의 숨결

문득 보리도량 우측에 요사체를 보니 한 노스님이 부처님 앞에서 조용히 경전을 읽고 계시는 모습이 보였다. 이분이 바로 청덕(淸德) 주지스님이다. 일찍이 20세에 출가하셔서 20세기 중국의 험난한 세상 고초를 꿋꿋이 견뎌내시면서 수행에 힘써오셨다. 낙양 성수사, 팽현 용흥사, 용경현 운봉사 주지를 역임하셨고, 이제 이곳 영국사에 오셔서 재건 불사에 힘쓰고 계신다. 두 번의 뇌수술을 겪으시고 지금 가는 귀가 먹으셨지만 86세의 노령임에도 아직 정정하시다. "젊은 스님들은 다 어디 가고 왜 홀로이 절을 지키시는가?" 여쭈었더니, "아직 승방이 완성되지 않아 모두 외지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하신다. 보리도량 뒤쪽 한창 공사중인 건물이 바로 승방이었다.

스님은 한국 불교계가 무상 선사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다고 질책 아닌 질책을 하신다. 그토록 높은 법력을 지니시고 선불교 역사에 일대 방점을 찍으신 분을 아직까지 한국에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이다. 이 말에 사뭇 부끄러워 얼굴이 확 달아오름을 느꼈다. 일찍이 왕자의 신분으로 바다 건너 중국으로 와서 그것도 당시엔 오지라 할수 있는 이 머나먼 촉도로 들어와서 두타행을 하며 한없이 자신을 낮추고 고초를 감수하며 깨달음을 얻으신 분, 그 깨달음으로 널리 중생을 교화하며 선불교의 태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신 분을 우리는 이토록 잊고 있었던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보리도량은 기본 골간이 파괴되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내부 목재 골조는 천 수백여 년의 세월을 견뎌내고 온전히 보전되어 왔다. 검게 때묻은 목재 속에서 무상 스님이 기도 삼매경에 든 모습이 아련히 떠오른다.

 # 달마선의 비조 정중선

무상 선사가 당시 양주 절도사 장구겸 경과의 인연으로 성도로 와서 정중사에 자리를 잡고 본격적으로 중생들의 교화에 나서게 되었다. 선사는 입적하기까지 20여년 간 성도에서 정중사를 본원으로 정중종을 일으킨다. 정중종 선법의 핵심은 '무억(無憶), 무념(無念), 막망(莫忘)'의 삼구와 염불선으로 대표할 수 있다. <역대법보기>의 기록을 보면 그 사상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김화상(무상)은 매년 12월 정월, 사부대중 백천만인을 위해서 수계설법을 했다. 도량을 엄설하고 높은 단상에 올라 설법할 적엔 먼저 인성염불하여 일성(一聲)의 숨을 전부 다 내쉬게 한 뒤에 목소리가 끊어지고 한 생각이 끊어졌을 때 다음과 같이 설하셨다, '무억(無憶), 무념(無念), 막망(莫忘). 무억은 계(戒)이며 무념은 정(定)이며 막망은 혜(慧)인 것이다. 이를 일러 계 · 정 · 혜 삼구의 말로 총지문(總指門)이다.' "

이 때의 인성염불은 흔히 말하는 소리내어 경을 읽는 염불이 아닌 일종의 화두선이다. 삼구의 의미에 대해서 종밀도 주목하여 <원각경대소초>에서 마음에 지난 일들은 추억하지 말고(무억), 또 미래의 노고 등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도록 하며(무념), 항상 지금 지혜와 상응하여 흐리지 않고 틀림없도록 한다(막망)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무상 선사 스스로 설하기를 "내가 가르친 삼구는 달마로부터 내려오는 원법(原法)으로 내 스승 처적을 비롯해 그 누구도 이를 가르친 바 없다"고 하였다. 그가 달마 조사 최초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고, 두타행을 통해서 독자적인 방편을 체득하고 깨달음을 얻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독자적인 선법으로 정중종은 사천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발전하였으며 당시의 선불교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무상 스님 선법의 원력은 이에 그치지 않고 티베트의 선불교 도입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밝혀졌다. 티베트의 고대 역사서인 <바세전>에 의하면 마하연 이전에 티베트에서 구법 사절단인 쌍시 일행이 중국에 파견되었을 때, 무상 선사가 이들을 알현하여 선불교를 가르치고 장래의 법난에 대해서 예언해주었다고 한다. 또 다른 기록에서는 세르난이라는 사신이 중국에 구법 사절로 가서 무상 선사에게 가르침을 받았다고도 한다. 이러한 기록을 따를 때 북종선의 마하연 선사가 라사에 들어가 이른바 '라사의 종론'을 행함으로서 최로로 중국 선불교가 전해졌다는 통념이 뒤집혀지고, 무상 선사가 최초로 티베트에 중국 선불교를 전파한 것이 증명된다. 또한 무상 선사에 대한 여러 가지 신이한 일화가 전해지고, 돈황에서 티베트어로 된 무상 선사 어록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무상 스님의 법력이 티베트에까지 크게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 유서깊은 대자사

안타깝게도 정중사는 이미 소실되고 그 자리에는 학교가 들어서 있다. 현재 성도에 무상 선사가 선법을 폅친 사찰로는 유일하게 대자사가 남아있다. 대자사는 위진 시기에 세워진 유서 깊은 사찰이다. 일찍이 보장 스님이 인도에서 건너와 이곳에서 금식수행을 하면서 400여년을 살다가 입적하였다는 고사가 전해진다. <대당서역기>의 현장 법사가 젊은 시절 이곳으로 와서 수행하고 비구계를 받은 후 장안으로 올라가 서역길에 올랐다. 송대에는 도륭 선사가 일본으로 건너가 불교와 차도를 전파한 내력이 있어 일본 불교계와도 인연이 깊다.

안사의 난 때 현종이 성도로 피난을 와서 무상 선사를 내전으로 불러들여 공양하였다. 이를 인연으로 대자사를 크게 확장하여 96개의 정원에 1000여 폭의 벽화가 있는 대사원으로 만들고 무상 선사를 주지로 있게 하니, 대자사는 이후 사천 제일의 사원이 되었다. 지금은 미륵전, 관음전, 대웅보전, 장경루를 중심으로 아담한 규모로 조성되어 있으나 최근에 지속적으로 확장 불사를 하고 있다.

관음전에 들어서니 많은 신도들이 법회에 참여하고 있었다. 대자사 뿐만 아니라 성도에 있는 문수원과 소각사에도 참배를 하였는데, 생각 외로 많은 불자들이 찾아와 절을 하고 법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공산당 정권하에 그동안 억압되었던 불교가 이제 다시 중생들의 마음속으로 젖어드는 것을 보고 더없는 반가움을 느꼈다. 특히나 이곳 사천지역은 예로부터 참선의 기풍이 깊게 배어온 곳이 아니던가. 사천은 불교적인 면에서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지역이다. 그중 하나를 들자면 사천의 동부는 한족지역으로 선종풍이 만연하고, 북서부는 장족지역으로 티베트의 밀종이 만연했다. 소각사에 가보면 선밀일체(禪密一體)를 내세워서 전당쪽에는 선종을 모시고 후당쪽에는 밀종을 모시고 있다. 무상 선사의 행적을 생각해 볼 때 대자사에서 티베트 불교와 중국 선종이 교류의 장을 마련한 것도 이해가 간다.

대웅보전 측면에 배치된 조사당에는 무상 선사의 법상이 모셔져 있다. 마침 스님 두분이 선사의 법상 앞에서 두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1200년 전 선사의 정신이 오늘날 불자의 불심에 고스란히 전해져 내려오는 듯해서 감개가 무량하다. 젊은 스님들이 용맹정진하여 무상 선사의 선심을 되찾고 고스란히 간직하여 불자들을 평상심의 경지로 이끌어 주기를 기원한다.

조사당 맞은편에는 조사정이 보이는데 이곳에 무상선사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기념비 앞쪽은 한자로 새겨 넣었고 뒤쪽은 한글로 새겨 넣었다. 내용을 읽어보니 무상선사의 행적과 한국 선종에 미친 영향, 그리고 한중간의 불교협력에 대해서 적혀져 있다. 여기에 특별히 <불교춘추사>의 발행인 최석환 선생이 무상 선사 재조명에 각고의 노력을 한 흔적이 보였다. 선생의 노고와 의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무상선사가 남긴 화두

앞서 언급했듯이 무상 선사의 정중종이 이후 선종계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최근 연구가 심화됨에 따라 한국 선종의 형성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당시 중국에서는 남종선과 북종선을 중심으로 여러 갈래로 분파가 되었는데 여기서 무상 선사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역대법보기>에 의하면 보당종의 개창자인 무주는 지선-처적-무상-무주로 이어지는 법계를 이어받았음을 밝히고 있고, <송고승전>에는 정중신회(淨衆神會)가 직계제자로 기록되어 있다. 혜의사의 신청(神淸)은 자신이 편찬한 <북산록>에서 무상의 제자였음을 밝히고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마조도일과 규봉종밀이 무상 선사의 제자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당나라 시인 이상은의 사증당비(四證堂碑)나 종밀의 <원각경대소초>에 마조도일이 무상 선사의 제자였음을 명시하고 있다. 규봉종밀 역시 중국의 학자 호적(胡適)의 연구에 의해 무상 선사의 제자였음이 지적된 바 있다.

이렇게 볼 때 한국 선종사도 재검토해야 한다. 규봉종밀과 마조도일은 한국 선종 형성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특히 마조도일은 신라 구산선문의 7개 종파의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왔다. 만약 마조도일이 무상의 제자라면 한국 선종의 형성의 계보는 무상 선사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실제로 당시 신라 본국에서도 무상 선사의 위상을 잘 알고 있었고 많은 승려들이 무상선사의 영정을 찾아 참배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의 존재가 어느덧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다.

오백나한 속에 묻혀 조용히 정좌하고 있다가 1200년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무상 선사는 우리 불교계에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다. 불교계와 학계에서 보다 관심을 갖고 선사의 행적과 사상의 복원에 힘쓰고,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선종사를 하나하나 풀어내어 선종사에 있어서 무상 선사의 자리를 되찾아 주길 바란다.

글 · 사진=오중철 중국통신원
(中 사천성 사천대 고고학과 석사과정)

한국불교 역사의 천년 고찰 봉원사
봉원사 연지원 봉안당이 장묘문화의 새 장을 열겠습니다
(삼천불전 1,024기 설치신고필증) ※ 연지원은 설치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종교단체 봉안당입니다.

화장 후에는 꼭 납골을 해야 합니다
택지면적보다 2배나 큰 묘지면적, 매년 늘어나는 묘지면적은 여의도 13배, 방치되고 있는 무연고 분묘가 40%를 넘는 것이 국내 매장문화의 현실입니다. 또한 분묘 1기를 조성하기 위해 들이는 엄청난 경제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실 속에서 우리 국민의 장묘의식은 매장에 서화장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으나 국민의식의 변화에 맞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납골시설은 그리 많지 않으며 미흡한 관리체계로 인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 봉원사 연지원에서는 부처님의 자비와 더불어 한결같은 마음으로 불교사상과 어우러진 초현대식 시설과 체계적인 관리체계로 영혼의 편안한 안식처가 되고자 합니다.



제 2007-1 호
종교단체납골당 설치신고필증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23번지 (양한중앙 1층 내)
면 적 516㎡ 설치기수 1,024기
설치변경내용
대표자 성 명 한국불교태고종 봉원사 (종교단체명) 등록번호 제 01-0999 호
주 소 서대문구 봉원동 (종교단체) 연락처 392-3008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납골당설치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납골당설치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2007. 1. 19.
서 대 문 구 청장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봉원사 연지원은 정성을 다해 모십니다
유구한 역사를 지닌 봉원사내 연지원에서 가신님의 영혼을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또한 영가의 극락 왕생과 자손의 발복을 기원하며 영혼의 영원한 안식처를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서울 중심부에 자리잡은 영혼의 안식처"
쾌적한 실내환경과 끊이지 않는 스님들의 염불소리로 고인의 편안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고품격 디자인과 최첨단 안치시설"
"편리한 교통과 다양한 편의시설"






- 편리한 교통과 접근성
서울의 중심부 광화문에서 5분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등 어느 곳에서나 빠르고 편하게 오실 수 있습니다.
- 숲 속의 영원한 안식처
고품격 색채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설계되었으며, 항상 상쾌한 숲 속의 넓은 실내공간은 고인의 편안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 영산재(靈山齋) 보존 도량
봉원사에서는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주최로 세계평화 및 남북통일을 기원하기 위하여 매년 6월6일 봉행(奉行)하고 있으며, 연중 예불소리가 끊이지 않는 도량입니다.
- 천년 고찰 태고종 봉원사
신라 제51대 진성여왕 3년(서기 889) 창건된 봉원사는 사찰내의 경치가 아름답고 웅장하며 풍수지리상으로 천혜의 명당자리로 영구 보존되므로 가신분들에게 이승의 번뇌를 잊게할 것입니다.
- 첨단시설과 온라인 추모 시스템
봉안당내는 항상 쾌적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자동항온항습시스템 등을 완비하고 있으며, 완벽한 편의시설과 영구적으로 보존, 관리 할 수 있도록 첨단보안시설을 갖추었습니다.
- 비디오 영상시스템
우리나라 최초로 고인의 살아생전 모습이나 발자취를 영상에 담아 화면으로 대할 수 있는 영상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 산림욕과 휴식공간
가족과 같이 숲 속 길을 따라 산책을 즐길 수 있으며, 산림욕으로 심신의 피로도 풀 수 있습니다. 또한 경내에 전통찻집과 담소를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마련되어있습니다.

봉원사 연지원은 이렇게 다릅니다
· 비디오 영상시스템 설치 · 국내최초 엘리베이터 설치
· 완벽한 냉 · 난방시설 완비 · 사찰입구 마을버스 정류장
· 연꽃의 한마당 · 주차장 완비 · 휴게실, 식당, 전통찻집

장묘문화의 새 장 봉원사 연지원 www.yungi.co.kr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동 23번지 전화 02)365-7678~9 / 팩스 02)365-7680

해 외 WORLD

‘세계불교포럼’ 중국 · 대만 화합 상징

이연걸 “지구촌 수호 불교만이 실행 가능”





한국불교 대표들이 3월 28일 중국 장쑤성 우시 영산대불에서 열린 ‘세계불교포럼’ 개막식에 입장하고 있다.(위) 사진제공=조계종 홍보팀. 중국불교협회장 일성 스님과 중화종교문화교류협회 예사오원 회장 등이 각국에서 가져온 물을 합수하고 있다. 사진제공=금강신문

불교를 통한 지구촌의 평화와 화합을 위해 마련된 ‘제2차 세계불교포럼’이 대만 타이베이체육관에서 ‘제2차불교포럼 선언’을 채택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세계화합과 모든 인연의 화합’을 주제로 3월 28일~4월 1일 중국과 대만에서 진행된 이번 포럼은 정치적 대립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대만에서 개 · 폐회식이 각각 진행돼 개최 전부터 세계 불자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중국불교협회, 중화종교문화교류협회, 대만 국제불광회, 홍콩불교연합회가 공동 주최해 포럼의 주제인 ‘화합’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에 일각에선 양안(兩岸) 관계 회복에 ‘화합의 종교’인 불교가 앞장선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중국 장쑤성(江蘇省) 우시(無錫) 영산대불 내 영산범궁(靈山梵宮)에서 진행된 개막식에는 중국과 대만측 불교 지도자를 포함해 50여 개국 607명의 대표 등 17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지관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부회장 정산 스님(천태종 총무원장) · 회정 정사(진각종 통리원장), 태고종 대외교류협력실장 법현 스님 등 사부대중 41명이 참가했다.

개막식에서 중국불교협회장 일성(一誠)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제2회 세계불교포럼은 중국과 대만 양안불교의 성대한 행사이며 세계불교의 큰 잔치”라고 말했다.

지관 스님도 기조연설을 통해 “오늘 이 법석이 고통받는 인류와 신음하는 지구촌의 공생공존을 서원하고 실행하는 뜻깊은 시작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대회가 대만에서 마무리되는 것은 세계불교도의 기원이 성취되는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막식에서는 영화배우 이연걸(李聯杰)씨가 기조연설을 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불교는 내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며, 깊이 간직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구촌을 아름답게 수호해나가는 것이 인류의 과제라면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불교”라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법보의 빛-대장경의 정리, 보호와 연구 △불교교육의 기회와 도전 △불교수행학습 체계의 건립과 반성 등 16개 소주제의 분과토론이 진행됐으며, 한국대표로 불교방송 이사장 영담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장 법진 스님, 총지종 중앙교육원장 화령 정사 등이 각 분과에서 주제발표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조선불교 도연맹 심상진 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불교 관계자들도 참석해 한국불교 대표들과 인사를 나눠 또 하나의 ‘화합의 장’을 연출했다. 또한 4월 1일 대만 타이베이 덴웰호텔에서 열린 폐막 환송만찬에서 정산 스님은 “남쪽에서 개회하고 북쪽에서 회향하는 남북불교도 행사를 개최하기를 기대한다”고 제안해 심 위원장을 비롯한 1000여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김진성 기자

네팔에 ‘세종 한국문화·언어교육원’ 설립

영봉 스님 지난해 12월 개원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 한국어 학교가 설립돼 현지인들이 한국어 배우기에 뜨거운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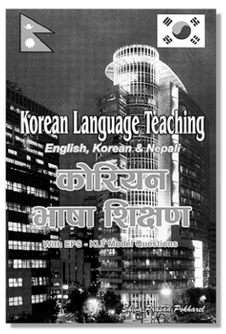
카트만두 발루와따르 지역에 설립된 ‘세종 한국문화와 언어교육원’(원장 영봉, 이하 교육원)이 작년 12월 15일부터 3개월 과정의 제1기 한국어 강좌를 진행했다. 개원과 함께 시작한 첫 학기 수업에는 현지인 100명이 두 반으로 나뉘어 참여해 한국어 초급과정을 이수했다. 교육원은 네팔 현지인들에게 한국어와 역사 등을 교육함으로써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성지순례나 트레킹 등반 등을 위해 네팔을 찾은 한국인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트레킹과 여행 가이드, 셸파 등에 종사하는 현지인들과 빈곤층 무학자 등을 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강좌를 위해 교육원은 한국어 영어 네팔어로 구성된 교재를 제작해 사용하고 있다.

강사진은 현지인 가운데 한국어를 공부한 2명의 정교사와 10명의 보조교사, 한국인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됐으며 중급과정과 고급과정에서는 한국어와 함께 컴퓨터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교육원의 동계 학기는 매년 12월 15일에서 익년 3월 15일까지, 하계 학기는 5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운영된다. 올 하계 학기에는 지난 동계 학기에서 초급과정을 수료한 100명이 중급으로 진급하고 다시 초급과정 100명이 입학할 예정이어서 교육원의 참여자는 학기마다 늘어날 전망이다.

20여 년 간 히말라야 등지에서 정진하며 미얀마 난민 돕기 운동을 펼쳐 온 영봉 스님은 “네팔지역에 한국의 문화와 언어, 불교를 널리 알리기 위해 한국어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원력이 있었는데 공주 신원사 주지 지성 스님과 이근후 박사님 등 여러 분들의 도움으로 지난 겨울에 개원을 하게 됐었다”며 “막상 개원을 하고 보니, 관광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현지인들이 한국어 배우기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무직자들도 취업의 희망을 안고 한국어 배우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현지의 규정 때문에 약간의 수업료를 받지만 전액 장학금으로 환원하는 교육원은 교재의 보완과 사전 제작 등 교육 자료를 확충하는 등 여름 학기 준비에 들어갔다.





영봉 스님은 네팔 카트만두에 ‘세종 한국문화와 언어교육원’을 2008년 12월 개원했다. 사진은 한국어 강좌 수업 모습(위)과 한국어 교재.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자비쌀 지원 시작

생명나눔 올 신규사업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는 2009년 신규 사업으로 환자들에게 20㎏의 쌀을 지원할 계획이다.

생명나눔에는 1년에 약 130명 정도의 환자가 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데 올해 지원 받을 수 있는 환자는 약 50명 정도로 80여 환자들이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에 생명나눔은 80여 환자들에게 자비의 쌀 나누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일면 스님은 “쌀 한 포대가 단순한 쌀이 아닌 부처님의 자비로 다가가 병마로 싸우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작은 희망을 전할 것”이라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생명나눔은 4월 16일 오전 11시~오후 1시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한다솜 희망 음악회’를 개최한다. (02)734-8050

이나은 기자

“대작불사 공덕 성불 인연 되기를…”

보문사, 경산에 삼성사 · 불교복지관 착공



대구 보문사는 3월 29일 경산 삼성사와 불교복지관 착공식을 봉행했다.

대구 보문사(주지 도성)는 3월 29일 경산 삼성사 및 불교복지관 불사 착공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 스님과 원로의원 정무 스님을 비롯해 지역 단체장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밀운 스님은 “대작불사로 큰 공덕을 지어 마련한 이 좋은 자리에 부처님 제자로 만난 소중한 인연에 감사하다. 이 불사가 우리들에게 성불의 인연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삼성사 대웅전 법당은 165㎡, 요사채는 925㎡ 규모로 2010년 3월 완공 예정이다. 불교복지관은 5층 1652㎡ 규모로 노인요양시설, 노인 병원을 갖춰 실버타운 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노인생명보듬이’

일산복지관 10월까지

일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능인)은 2009년 노인일자리 신규사업인 ‘노인생명보듬이’ 사업을 3~10월 실시한다. 이 사업은 노인자살예방 상담 및 노인종합상담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총 30시간의 이론 및 실습교육을 마친 5명의 노인생명돌보미가 우울노인 및 노인자살위험 등으로 상담이 필요한 어르신을 발굴, 의뢰받아 상담 및 심리검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관은 4월 2일 전통찻집인 ‘다향당(茶香堂)’을 오픈했다. 찻집은 60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된다. 능인 스님은 “전통찻집을 오픈해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강화하고 전통차 판매를 통한 차 문화의 보급과 전통차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031) 919-8677

이나은 기자

화제의 신간
新 토정비결
2009 년(己丑年) 천년 약속 평생운세
내 운명, 내 운세는 내가 본다!!
21세기 新개념의 평생운세! 토정식 백광비결
현대인들이 쉽게 볼 수 있고,
실생활에 맞는 운세풀이로
결혼이나 재혼을 앞둔 남녀의
배우자를 고르는 법과
후천적인 운명의 행운을 잡는 길잡이가
될 수 있게 저술하였다.
역술학의 성전...
지금바로 펼쳐보십시오!!
白珖(백광) 지음 / 신국판 / 352쪽 / 정가 15,000원
전국서점 판매중!
육임이 보인다 功念 지음/4×6배판/양장본/70,000원
이게 풍수다 신국판/성재권 지음/15,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신국판/양장본/5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 전호일 공저/25,000원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35,000원
적천수 형의(上·下)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40,000원
21세기 新 개념의...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새 시대에 세계의 의학계를 선도할 ‘사주명리 한방처방학’이 드디어 출간, 세상에 나왔다!
전통 한의학과
음양오행학을 연결!!!
新 한의학 이론을 체계화!!
누구나 신개념의
한방처방이 한눈에 쏙쏙!
徐昇煥 지음 / 4×6배판 / 양장본 | 권 880쪽, || 권 680쪽 / 각 권 50,000원
송월스님의 개정증보판 드디어 출간!
新 사주학 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를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로써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길흉을 밝힐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송월 스님 지음 / 신국판/ 양장본 / 817쪽 / 정가 50,000원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 대 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298-15번지
주 · 야 상담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 서비스] 검색 →
114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역경보살 월운 스님 '증의' 재현

3월 28일 전강제자들과 '무상계강화' 독회 열어

역경(譯經)은 언어(공간)와 세대(시간)를 동시에 넘나드는 고된 작업[逆境]이다. 단순히 글을 옮기는 작업이 아닌 글 속의 뜻까지도 오롯이 전하는 어려운 작업인데다 인력과 시간 등에 애로사항이 많아 '제대로' 역경하기란 희유한 일이다.

역경이 전문인력도 구하기 어렵고 고비용 사업인 까닭에 기관조차도 전통 방법을 살리기 힘든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역경보살로 칭송받으며 평생 역경의 길을 걸어온 월운 스님(봉선사 조실)이 전통 역경 방식의 하나인 증의(證義)를 재현해 눈길을 끈다.

증의는 원전과 번역문을 비교해 번역한 뜻이 올바른가를 판별하는 작업이다. <한글대장경>을 비롯한 근래의 역경작업에 증의가 있었지만 교정 수준을 뛰어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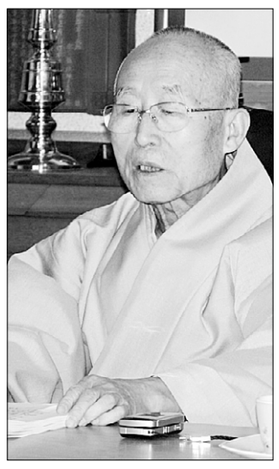
월운 스님은 3월 28일 전강제자들과 남양주 봉선사 운하당에서 <무상계강화(無常戒講話> 독회를 열었다. 2008년 12월 동국역경원 원장직에서 물러난 지 100여 일만의 일이다.

역경원 원장직은 놓았지만, 역경보살의 본분사만은 놓지 않았던 스님은 그동안 <무상계강화> 저술에 매진해 왔다.

<무상계>는 338자로 구성된 간이경전으로, 원효 스님이 만주 벌판에서 머리 없는 무두귀(無頭鬼)들을 제도하기 위해 지었다고 전해진다. 짧고 간결한 내용으로 시다림 등 의례와 신행에 널리 유통돼왔다.

이날 운하당에는 정원 준수 진원 시원 법등 스님 등 11명의 전강제자와 능엄학림 학인스님들이 참석했다. 참석하지 못한 다수의 전강제자들은 사전에 원고를 검토하고 이메일 등으로 월운 스님에게 의견을 제기해 뒀다.

월운 스님의 "<무상계>가 짧지만 알찬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정경(正經)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공덕경류(功德經類)에 섞여 재장(齋場)이나 굿판으로 내몰린 현실이 안타까웠다"며 "그동안 역경사업을 진행하면서 1차 번역한 경전을 꼼꼼이 점검하는 절차가 생략돼 온 것에 늘 마음에 걸렸다. 죽기 전 전통 역경 방식을 흉내라도 내보고 싶어 마련한 자리"라고 말했다.





3월 28일 봉선사 운하당에서 열린 <무상계강화> 독회를 진행하는 월운 스님(왼쪽)과 전강제자들의 모습.

월운 스님은 <무상계>를 해제와 독송용무상계, 과도와 과명 풀이 등을 실었다. 본문은 △무상계의 공덕을 미리 찬양하심 △무상계 닦는 법을 직접 보이심 △닦아 얻어진 공덕을 찬탄하심의 3대과로 나누고 이를 다시 13장으로 구분한 뒤 각각에 강화를 더했다.

서분과 정종분 유통분으로 삼분(三分)이 갖춰진 정경과 비교해 정종분만 있는 <무상계>는 <반야심경> 등과 함께 가죽과 살은 없어지고 뼈만 남은 동물과 같아 골경(骨經)이라 불린다.

월운 스님은 골경인 <무상계>를 스님만의 안목으로 분석해 과도를 그렸다. 평생 경전과 씨름해 온 월운 스님의 학식은 불법의 정수가 골경에 녹아 있듯, 해제부터 13장 강화까지 구절구절마다 담겼다.

영가(靈駕)의 어원에 대한 기원을 비롯 <금강경> <법화경> <삼국유사> 등 내전(內典)과 외전(外典)을 넘나드는 박학한 이야기도 있고, 12인연의 상의상관성을 홈통의 대롱에 물이 들고 남으로 설명한 대중설법 같은 비유도 있다. 노장이 후학에게 전하는 가르침은 각주 끝까지 빠짐없이 기록됐다.

"누가 했는지 고려하지 말고, 같은 배 탔다는 심정으로 잘 되도 못 되도 하나라는 마음으로 지적을 아끼지 말라."

월운 스님의 당부가 끝나자 학인스님이 한 구절, 한 구절 <무상계강화> 본문을 읽기 시작했다. 120장 분량의 원고 중 각주를 제외한 본문이 읽혀지는 동안 문제가 있는 부분에는 거침없이 토론이 이어졌다.

"용어가 현대인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자가 틀렸습니다." "앞과 뒤의 한자가 혼용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세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등 마라톤 토론이 벌어진 5시간 동안 스승과 제자의 상(相)은 간 곳 없다. 모두가 역경사일 뿐이었다.

이날 증의에 참여한 스님들은 스승 월운 스님에게 점검도 받았다. "경전을 보는 사람이 고전이 약하다"는 지적부터 "00 스님 예불 거르지 말고 나와"라는 말까지.

일독(一讀)이 끝났다. 월운 스님은 "무상계를 제방에 보급하고 싶었지만 혼자는 자신의 벽을 찾을 수 없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 생각할 것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고전을 홀로 번역하는 풍토를 그치고자 자리를 마련했었다"라며 "선부르게 경전을 번역하겠다고 접근하는 이들이 많은 요즘, 역경을 제대로 하려면 고전을 두루 살필 안목과 소양은 물론 자기 수행 등이 겸비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무상계강화>는 수차례 증의와 윤문 등을 더 거친 후 출간될 예정이다.

동국역경원 박종린 위원은 "증의는 번역이 부처님 말씀에 합당한가를 증명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강주급 이상의 스님은 돼야 제대로 증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전문가를 구하기 힘든 현실에서 봉선사에서 재현된 증의는 역경의 바른 본보기를 보인 행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현된 전통역경 방식은 동국역경원이 설립초기 번역과 증의, 윤문에 대해 각 위원회를 두고 운영한 적은 있으나 인력 및 시간 부족, 경비절감 차원에서 지속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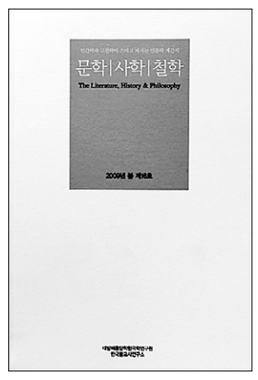
최근에는 조계종 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위원장 지관)가 전통 역경 방식을 도입해 5월 회향될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에 번역자간 소통 중심의 다자간 번역을 시도하기도 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원효 스님 통합사상 통일 원동력"

고영섭 교수 '문·사·철' 16호서 주장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신라 원효 스님의 통합사상을 통해 남북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불교사연구소와 발해동양학 한국학연구원이 공동발행하는 계간 <문학 · 사학 · 철학>.

고영섭 교수(동국대)는 <문학 · 사학 · 철학> 제16호에 기고한 '원효의 통합사상'에서 후삼국통일의 배경이 됐던 원효의 개합(開合)과 화회(和會), 삼일(三一)의 논리를 강조했다.

고영섭 교수는 "원효는 한민족의 통합을 위해 평생 고뇌한 인물이었다"면서 "원효가 대승보살의 삶의 전형으로 제시한 전개통합 · 화쟁회통 · 삼승일승의 논법은 오늘날 국가지도자들이 원용할 가르침"이라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원효의 통합논리가 통일신라의 이념적 기반으로 작용한 예를 설명했다. 이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제시된 화해협력 단계는 전개통합의 논리에, 남북연합 단계는 화쟁회통의 논리에, 통일국가 단계는 삼승일승의 논리에 배대시켰다.

고영섭 교수는 "원효의 통합논리는 통일신라의 이념적 기반이었다"며 "원효의 통합논리는 남북고착이라는 절대이념을 타파하고 통일조국이라는 공동목표와 공동이익을 수립할 지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학 · 사학 · 철학> 제16호에는 박정진 칼럼니스트의 '단군신화에 대한 신해석' 두 번째와 김진영 연구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의 '언어와 문헌의 박물관', 정영식 연구교수(불교문화연구원)가 번역한 '<벽암록> 해석을 둘러싼 문제' 등이 실려있다. (02)2260-3583 조동섭 기자

불교문화연구 9집

불교사회문화연구원

불교사회문화연구원(원장 윤영해)은 최근 <불교문화연구> 제9집을 발간했다. 2008년 8월 퇴임한 법혜 스님을 기념해 제작된 이번 호에는 성본 스님(동국대)의 '선문화의 이해'와 진월 스님(동국대)의 '한국불교 전통의 특성과 현실적 과제 일고', 최진구(동국대 박사과정)씨의 '불교문화콘텐츠의 개발과 활용방안' 등이 게재됐다.



'불교문화연구' 9집.

한편, 법혜 스님은 1945년 경남 통영에서 출생했다. 1957년과 1961년 해인사에서 각각 도원 스님과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해인사 승가대학과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한 스님은 일본 다이쇼 대학에서 석 ·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 등을 역임했다. 현재 조계종 법계시행위원 등을 맡고 있다. (054)770-2506 조동섭 기자

한문자료 강독 프로그램 마련

한국미술사교육학회 4월 3일~6월 5일

석가탑 중수문서 등 성보문화재 조성원문을 해석 · 분석하는 한문자료 강독 프로그램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한국미술사교육학회(회장 최성은)는 4월 3일~6월 5일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덕성여대 종로캠퍼스에서 전문가를 초빙해 '한국불교미술 조성원문의 분석'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한다.

이승재 교수(서울대)는 4월 3일 '신라 백지묵서화엄경 조성원문의 해독'과 10일 '석가탑에서 나온 중수문서의 해독'에 대해 강연한다.

정병삼 교수(숙명여대)는 17일 석남암사 삼층석탑과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 사리호기 등을 통해 '통일신라시대 석탑에서 나온 사리호기'를, 24일에는 황룡사 구층목탑 찰주본기와 해인사 묘길상탑지 등을 소재로 '통일신라시대 탑지와 조상기'를 주제로 강의한다.

최연식 교수(목포대)는 5월 1일 '백제 사리함 및 통일초 불상 조성기의 분석'을 시작으로, 8일과 15일에는 각각 '통일신라 사찰 조성기의 분석'과 '고려시대 사찰 형지안의 분석'에 대해 강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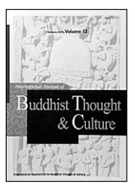
김흥삼 박사(한국학중앙연구원)는 5월 22일 '고려시대 금속공예의 발원문'을, 29일에는 '고려후기 왕실의 사경 발원문'을, 6월 5일에는 '조선 세조대 왕실의 발원문'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한국미술사교육학회는 매주 강의 내용을 홈페이지(www.kaahe.or.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수강료는 무료. (02)901-8456 조동섭 기자

영문학술지 발간

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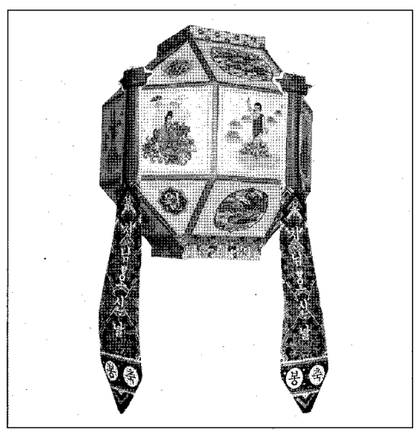
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회장 송석구)는 최근 영문학술지 제12집을 발간했다.



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 발행 영문학술지.

이번 호에는 혜원 스님(동국대)의 '초기 선종에서 믿음의 의미'와 계환 스님(동국대)의 '대중적 경전으로서의 의경(疑經)에 관한 연구', 김용표 교수(동국대)의 '경전언어와 침묵' 등 8편의 논문과 1편의 문헌비평이 수록됐다.

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 영문학술지는 인도 미국 태국 일본 덴마크 등 11개국 불교 학자들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해 매년 2회 발간된다. (02)2260-3835 조동섭 기자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 동결 단행!!

어려운 사찰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낱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 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단 한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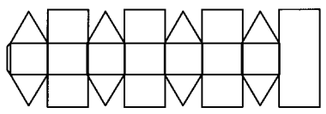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로 인한 높은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 [골조 및 인쇄걸지 합지 방식]



현우기획

전화:(043)877-6464 팩스:(043)877-8239 핸드폰:016-552-9360
(043)877-8236 011-9790-4788

■우체국 013706-01-003311 예금주:(주)국민피앤텍
■농 협 415051-51-000057 예금주:(주)국민피앤텍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 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일주문



용성 조사 입멸 69주기 봉찬대제

장수 죽림정사 조실 도문 스님은 3월 20일 용성교육관에서 용성 조사 입멸 제69주기 봉찬대제를 봉행했다.



무비 스님 '임제록' 강의

무비 스님은 4월 1일부터 8월 19일까지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임제록>을 강의한다.



풍경소리 '붓다콘서트' 개최

좋은벗풍경소리 총재 지현 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4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붓다콘서트'를 개최한다. (02)723-9836



스포츠서울 웰빙차 선정

금강선원 주지 초중 스님이 만든 뽕잎차는 최근 스포츠서울이 선정한 건강 웰빙차로 선정됐다. (055)931-9590



정토회 제5회 100일기도 입재식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은 4월 12일 문경 정토마을에서 '제5회 100일기도 입재식'을 열고 법문한다. (02)587-8991



지효 스님 여성서법전 출품

옥천 보륜사 지효 스님은 4월 18일 한국, 일본, 대만 여성서법전(韓·臺·日 女性書法展)에 서예작품을 출품한다.



여진불교미술관 '천진불을 찾아라'

대전 여진불교미술관 이진형 관장은 5월 15일까지 '천진불 장학생'을 모집하고, 23일 불교미술대회를 개최한다. (042)934-8466



이명숙 화가 '불이전'

이명숙 서양화가는 4월 8~16일 안양 갤러리썬 초대로 '불이전(不二展)'을 갖는다. (02)586-5336

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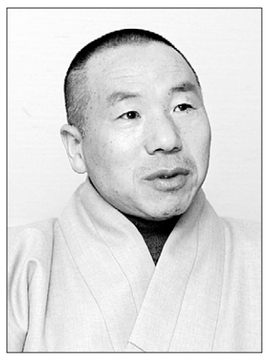
중앙선관위원장 심경 스님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3월 30일 열린 제205차 회의에서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심경 스님(총무원 사서실장)을 선출했다. 임기는 선관위원 임기가 만료되는 2013년 9월까지다. 심경 스님은 정무 스님을 은사로 입산해 1969년 전강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3년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조동섭 기자

"케이블카 설치 신행분위기 망칠 것"

갓바위 케이블카 반대 선본사 주지 향적 스님



"갓바위 아래서 스테이크 먹고 술 마시게 될지 모르는데 이게 말이 되나?"

조계종이 4월 1일 대구시의 갓바위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8만명 반대서명을 대구시에 전달한 데 이어 4월 2일 선본사 주지 향적 스님은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반대의지를 표명했다.

향적 스님은 "갓바위는 신앙의 대상이지, 관광자원이 아니다"고 강조하며, "현재 갓바위 인근에서 벌이는 서명운동을 대구 시내까지 확대하고, 운불련 등 신행단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갓바위 케이블카 문제점을 알리는 등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구시 동구주민 등으로 이뤄진 120억 규모 민자 단체인 '갓바위 케이블카 추진위'는 문화재청과 대구시, 환경부 등 관련 인·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불교계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문화재청 심사에서 사업이 승인될 경우 기타 인허가도 급물살을 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갓바위 케이블카 추진위'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상류 정거장에는 스카이라운지와 레스토랑 등도 들어선다.

이에 대해 향적 스님은 "케이블카가 들어서면 술과 음식 등으로 신행분위기가 흐트러질 것"이라며 "노천에 모신 불상은 산천지세가 후불탱화를 이룬다. 갓바위보다 훨씬 큰 케이블카 선착장을 지척에 짓는 것은 이러한 조화를 깨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님은 이어 "대구시가 2011년 세계육상대회 개최에 맞춰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지만, 상식적으로도 석굴암과 불국사 등에 비해 기도목적으로 오는 갓바위 관광의 경제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미 팔공산에는 동화사 인근에도 케이블카가 설치돼있지만, 이용객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갓바위는 경산시에 속해 또 다른 지역 갈등까지 내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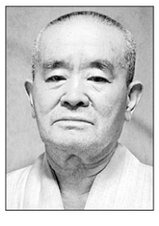
스님은 "현재 주요 등산경로인 경산 쪽 상권에서는 케이블카에 대한 반발이 있다. 경산시도 대구시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노선버스와 모노레일 등을 설치할 움직임이 있다"며 "정상부분에서 가파른 대구 쪽 경로를 S자로 완만하게 합치는 중재안을 제안했지만, 케이블카 설치를 강행하고 있다. 이는 케이블카 업체만 배불려주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스님은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어떤 이들은 거동이 불편한 노보살들이 더 많이 찾을 수 있다고 반문하지만, 현재도 인근까지 차가 올라가는 갓바위는 케이블카가 생겨도 관계법상 200m 이상은 걸어야 한다. 갓바위 앞까지 에스컬레이터 등을 설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고 성토했다.

노덕현 기자

"젊은 인재가 제 꿈 실현"

울산 과기대 10억 쾌척 염청 스님



"'스님이면 목탁이나 치고 염불이나 하시지, 무엇하러 그런 연구를 하냐'는 말을 참 많이 들었는데, 알고 보면 과학의 원리 안에도 불교의 진리가 들어 있지요."

울산 고암사 근처에 도로공사가 한창이던 무렵, 염청 스님(사진)은 흙먼지와 매연을 물을 이용해 정화하는 장치를 개발해 특허를 획득했다. 정화한 공기와 물은 비와 구름으로, 또 산소로 우리 몸에 들어오니, 이것이 바로 윤회인 셈이다.

염청 스님은 지금으로부터 36년 전 산속 절터에 달랑 라면 1박스 짊어지고 들어와, 현재의 고암사를 설립하기 위해 설계부터 시공까지 직접 했다. 길도 없던 절을 마을 어귀부터 차가 닿을 수 있는 도로를 닦고, 밭을 일구기 위해 스님은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손수 몰았다.

겨울이면 폭설로 꼼짝없이 산속에 발이 묶이는 신도들을 위해 고암사 자가용으로 경비행기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1997년 미국으로 건너가 경비행기 조종자격증을 취득, 미국의 경비행기를 연구목적으로 사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돼요. 내 평생의 포부를 발현했지만, 실패하면 윤회해서 다음 생에 또 한 번 도전하면 되잖아요!"

염청 스님의 하늘을 날아오르겠다던 꿈은 이제 젊은 과학도들이 물려받게 됐다.

3월 31일 스님은 울산과학기술대학교(총장 조무제)에 현금 2억원과 부동산 5억원, 사찰 3억원 등 총 10억원 상당의 전 재산을 기부했다. 스님의 '공해방지용 매연 정화 장치' 등 특허 2건도 대학 측에 전해졌다.

"나는 어렸을 적에 연을 무척 잘 만들었어요. 펄펄 나는 연을 바라보면서 '너만 나느냐, 나도 비행기 타고 구름 끝까지 가보련다'며 늘 꿈을 꿨는데, 이제는 젊은 인재들이 제 꿈을 실현시켜 주겠지요." (052)263-6556

박지원 기자

법주사 '보은 어르신 한마당' 개최



법주사 청동대불과 봉축연등.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지역어르신을 위한 따듯한 나눔의 장이 열린다. 보은 법주사(주지 노현)는 4월 15일 보은국민체육센터에서 지역어르신 2500여 명을 대상으로 '보은어르신 한마당'을 개최한다. 경로잔치는 법주사 주지 노현 스님을 비롯해 법주사 스님들과 조계사, 보문선원 등 신도회, 충북포교사단 등 400여명이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경로잔치에는 그동안 지역사회에 모범이 된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수상과 효행상이 시상되며, 돋보기 등 어르신 용품도 배포될 예정이다. (043) 543-3620

혜철 충청지사장

아름다운동행 2호 홍보대사 탤런트 고두심



아름다운 동행(이사장 지관)은 4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2호홍보대사로 탤런트 고두심씨를 위촉했다. 제5회 불자대상을 수상한 고두심 씨는 그동안 불교알리기에 앞장서 왔다. 노덕현 기자

대구서 한국불교박람회 열려



한국불교박람회가 '불교산업과 불교문화의 만남'을 슬로건으로 4월 3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됐다. 박람회에는 100여 업체가 참여해 150부스 규모의 불교산업관련 홍보관과 각종 문화전시로 관심을 끌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영천 충효사 자비원·김흥국장학재단 결연



영천 충효사 자비원(원장 해공)과 김흥국장학재단은 3월 27일 자매결연을 맺었다. 김영석 영천시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결연법회에서 김흥국씨는 충효자비원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노덕현 기자

東大 경주캠 정각원 제17회 수계법회 봉행



동국대 경주 정각원은 3월 26일 문무관에서 교직원, 학생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회 동국인 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 정각원장 도업 스님은 지악뿐만 아니라 작선 의미로 오계를 지킬 것을 당부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자비신행회 지선 스님 초청법회 봉행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는 3월 28일 백양사 유나 지선 스님을 초청 '사람이 곧 부처님입니다'라는 주제로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100여 명의 불자들에게 지선 스님은 수행론에 대해 강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토종약초 향토이야기



달마스님

KBS, MBC, SBS 방송출연 토종약초 30년간 연구 식약청 약초약품 허가. 팔도명산 바위틈에서 자생하는 각종 야생약초 만병초, 칠선초, 당귀, 용담, 천상무, 오가피 그 외 100가지 보유

*비만, 다이어트, 뱃살제거(한달에 2.3 KG 빠짐) - 칠선초 ₩88,000
*아토피-지리산 비단풀, 만병초, 상황버섯, 100% 확실 ₩87,000
*골다공증, 뼈부러진데 - 토종약초 ₩85,000
*허리 아픈데 - 토종약초 ₩86,000
*당뇨(합병증), 간경화, 위장병, 고혈압 - 토종약초 (특수비방) ₩88,000
*만성변비- 토종약초 별 방법해도 안되시는 분 ₩80,000
*코골이, 비염 - 토종약초 특수비방 ₩85,000
*어린아이, 학생, 성장발육 - 만병초, 녹용, 차가버섯 38가지 ₩150,000
*각 종 암 - 지리산 비단풀, 만병초, 상황버섯 100가지 토종약초
*여자가 얼굴이 예뻐질 때 기미, 주근깨, 화장독 제거 - 영능향 삼매자(희귀약초) ₩88,000
*초등, 중등, 고등학생들 보약 - 키가 쑥쑥 자람. 공부 잘할 체력유지 ₩88,000

그 외 필요한 건강무료상담. 성불하십시오

TEL : 051)866-1138, 010-6413-1388
농협 813083-52-062061 정광채
네이버 검색 부산 천황사 방송보기 클릭

한방(韓方)치료로

간질(환)
백반증(백납)
건선

한솔한의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클리닉 3F

"대한한의사 협의 의료광고 심의필"
"제 090226-중-482"

빙의 (귀신들린 병)
퇴마. 사주. 작명.
(개인지도. 직접상담)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최면요법. 전생요법. 우울증. 심리불안. 공황장애. 결벽증. 불면증. 다이어트. 금연.

공포증 (대인공포, 폐쇠공포, 고소공포, 남자공포, 여자공포, 물공포, 불공포)
학생상담 (집중력, 시험불안, 발표불안, 인터넷중독, 습관변화, 자신감고취)

빙의상담! 헛소리를 하십니까? 무슨소리가 들립니까? 잡것이 보입니까?

서울 지하철 1호선 의정부 역

기름값의 1/8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m

연등축제 준비에 '구슬땀' 한마음선원 청년회

"온 세상 환하게 밝힐 燈 기대하세요"

문수 보현 향등에 밝은 세상 염원
회원 100여명 주말 밤샘작업



보현등.

꽃샘추위도 멀찍이 물러선 화창한 일요일. 남녘에서 올라오는 꽃소식에 뒤질 새라 길가의 개나리 가지에서 노란 웃음이 톡톡 터집니다. 이 봄, 꽃은 산과 길에서만 피는 것이 아닙니다. 안양시 석수동에 자리 잡은 한마음선원에서도 수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남들은 나들이 가느라 분주한 일요일이지만 한마음선원 청년회(회장 이동준) 법우(法友)들은 4월 26일 종로 일대에서 펼쳐지는 연등축제에서 선보일 장엄등을 만드느라 송글송글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도 아름다운 꽃입니다.

3월 29일 일요일 오후에 찾아간 한마음선원은 벌써 잔치집입니다. 4층 법당에서는 어린이들의 제등행렬 율동 연습이 한창입니다. 3층에서는 신도회 보살님들이 연등을 만드느라 분주하고 2층 강당에서는 청년회 연희단 법우들이 신나는 음악에 맞춰 율동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 2층 주차장에서는 학생회 법우들이 풍물놀이 공연 연습을 하느라 신나게 사물을 두드리며 호흡을 맞춥니다. 한 층 더 내려가니 아, 무슨 공장 같습니다. 생각보다 조용하고 모든 물건들이 깔끔하게 정리정돈 되어 있는 공간에서 화려한 전통등들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전지를 오려 배접지를 준비하는 팀, 철사로 기본 구조를 만드는 팀, 철사 구조에 배접지를 바르는 팀, 전기관련 작업을 지원하는 팀, 조립팀, 채색팀 등으로 훨저하게 분업화 된 작업공간은 일사불란합니다.

"올 해는 문수등과 보현등 그리고 향등을 기본으로 장엄등을 구성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이다 보니까 문수보살의 지혜와 보현보살의 정진하는 원력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도록 하라는 큰스님(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따른 겁니다."

청년회를 담당하는 혜암 스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 문수 보현 향등의 개념도가 눈에 들어 옵니다. 문수등은 세상의 원리를 모두 담은 지혜의 완성을 드러내는 것을 상징합니다. 커다란 법사자(문수보살의 화현)의 등을 탄 동자들이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입니다. 보현등은 코끼리를 탄 동자들이 끊임없는 구도행을 발원하며 만중생에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향등은 부처님 품안에서 행복한 세상을 묘사합니다. 가슴이 널찍한 부처님의 품 가운데에는 오색구름에 휩싸인 자성불이 모셔져 있고 오른쪽에는 탑돌이 하는 스님들이 왼쪽에는 불자가정의 단란한 모습이 입체조형으로 드러납니다. 부처님의 뒤에는 커다란 산이 아름답게 자리하고 앞에는 연꽃과 학과 기화요초들로 이루어진 극락연지가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순수창작품으로 대형 장엄등을 만드는 한마음선원 청년회 회원들은 요즘 평일에도 학교와 직장을 마치고 달려오고, 주말이면 밤샘 작업도 한답니다. 이미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장엄등 제작과 연희단과 풍물패의 공연 연습이 'D-데이'가 다가올수록 막바지 작업과 연습에 탄력을 받으며 일분일초도 아끼는 겁니다. 매주 100여명의 법우들이 선원으로 달려와 작업과 연습에 매달린다니, 그러한 정성과 노력이 수년간 전통등 경연대회와 제등행렬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석권하게 한 원동력이었음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지하 주차장과 지상에 특별히 만들어진 작업실에서 조금씩 형체를 드러내는 한마음선원의 장엄등. 올 연등축제 제등행렬에서 또 한 번 불자와 시민들을 감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엄등의 크기와 화려함 때문이 아니라 거의 반년 동안을 온 마음 다해 축제를 준비하는 청년 법우들의 정성과 원력이 세상 무엇보다 아름다운 등으로 불 밝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글=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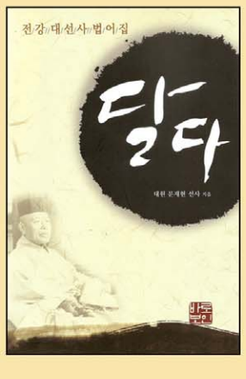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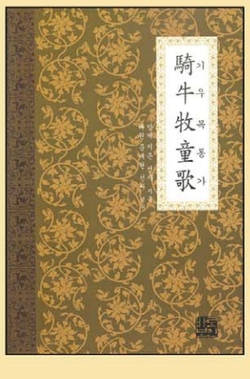
한마음선원 청년회 연희단의 연습 장면(위). 아래 왼쪽은 문수등 채색 모습이며 오른쪽은 골조 제작 모습.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전강 대선사 법어집
딛다
이제는 전설이 된 한국 근대선의 거목 지혜제일 전강 대선사님의 최상승법과 예리한 지혜, 선기로 넘쳤던 삶. 전강 선사님의 법문과 일화를 대원 선사님이 다시 보였다. 전강 대선사님과 대원 선사님의 특별한 인연과 고수명창같이 어우러진 두 분의 법거량도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값 15,000원



말계 지은 선사
기우목동가
그 뜻이 심오하여 번역하기 어려웠던 말계 지은 선사의 기우목동가!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바른 뜻이 드러나도록 번역하고, 간결한 결문과 주옥같은 선송으로 다시 보였다.
값 10,000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전체목록
전등록 전5권 / 무문관 / 벽암록 / 천부경 / 금강경 / 신심명
증도가 / 반야심경 / 선문염송 전30권 중 12권 / 환단고기 전5권
법융선사 심명 / 선가귀감 / 법성게 / 주머니 속의 심경
영원한현실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 기우목동가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 세월을북채로세상을북삼아 / 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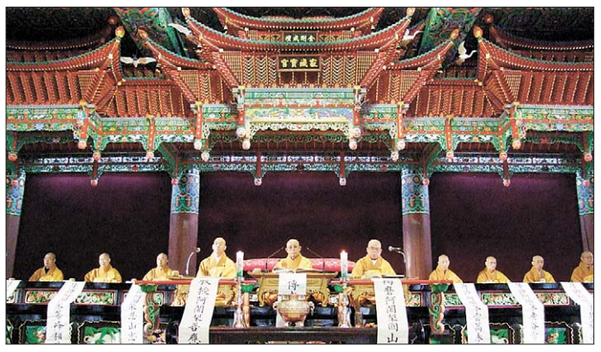
법회 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2460 www.zenparadise.com

“참회하고 서원 세워 보살행 실천하라”

통도사 · 쌍계사 · 범어사 수계산림 봉행

“늘 계를 실천하지는 못하지만 매년 보살계를 받을 때만큼은 지난 1년을 참회하려고 해요.”(김은심 · 65) “나이는 70이 넘었지만, 늘 보살계 받는 날만큼은 순수한 초발심으로 돌아가요.”(진말숙 · 73) “작년 수계산림 때에는 너무 추웠는데 올해는 봄이 빨리 와 벚꽃이 만발하니 보살계 받는 오늘이 더 행복해요.”(정진여 · 60)


영축총림 통도사는 3월 31일~4월 2일 금강계단에서 ‘통도사 보살계 수계산림법회’를 봉행했다.

불자들은 매년 보살계를 통해 또 한번 그간의 신행을 점검한다. 예년보다 봄이 빨리 찾아온 음력 3월, 부산경남지역 금강계단을 보유한 통도사, 쌍계사, 범어사가 2009년 보살수계 산림법회를 일제 봉행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정우)는 3월 31일~4월 2일 금강계단에서 ‘통도사 보살계 수계산림법회’를 봉행했다. 2일 열린 보살계 수계법회는 영축총림 율주 혜남 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참회발원, 정근, 연비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수계법회에는 예년에 비해 300여 명이 늘어난 3000여 명의 불자들이 보살계를 받았다. 이어 학인 스님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보살계 수계법회에 10회(360명), 15회(17명), 20회(6명), 25회(1명) 이상 참가한 불자들에게 메달 및 금란가사를 수여했다.

전계대화상 혜남 스님은 “보살계는 마음이 곧 부처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기에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참회하고 바른 서원을 세워 보살행을 실천하기 바란다”고 설했다.

계사(주지 상훈) 금강계단에서도 보살계 대법회를 봉행했다. 쌍계사는 1200년 전 진감국사가 창건한 이래 금담 율사의 계법을 전하는 전법도량으로 매년 4000여 명의 불자들이 보살계를 받고 있다. 한편 회향일인 2일에는 수계법회와 함께 대장경 정대불사 및 육조봉찬회도 함께 봉행됐다.

선찰대본산 범어사(주지 정여)도 8~10일 금강계단 보제루에서 ‘범어사 보살계 수계산림’을 봉행한다. 1904년 성월 스님이 범어사 금강계단을 쌓고 보살계산림을 일으킨 지 109회를 맞았다. 3일간 마련되는 보살계는 매일 보살계 법문이 설해지며 오전과 오후로 나눠 기도 및 법문 시간을 갖고 계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이번에 참석한 수계보살들은 대승보살이 지니는 10중대계, 48경계를 받아 지니게 된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단경·실참 입재

함양 벽송사


제3회 벽송선회 참가자들이 입재식을 봉행하고 한자리에 모였다.

선교겸수의 전통을 되살린 한국 간화선 근본도량 함양 벽송사 벽송선원(선원장 월암)은 3월 29일 제3회 벽송선회 ‘<육조단경>과 간화선 실참’의 입재식을 봉행했다.

3월 29일~4월 12일 진행되는 이번 선회에는 신참에서 구참까지 50명의 납자들이 방부를 들였다.

월암 스님은 “선 수행은 이론에 치우쳐도, 참선에 국한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에, 실참을 겸비해 지혜와 자비를 함께 닦는 것이 선종의 종지”라며 “‘견성성불과 요익중생’의 종지를 잊지 말고, 깨달음에 머물지 말고 중생에게 회향하는 선풍토로 발전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회는 새벽 · 저녁 4시간씩 실참이 진행되며 오전 · 오후에는 <육조단경(덕이본)>, 조사선 사상과 간화선 수행의 정견 등에 관한 좌선과 법문, 강의와 특강이 마련된다.

박지원 기자

불국토를 찾아서

진여봉사단

참나 찾아 사회 밝히는 진여봉사단

“불법을 펼치고 자비를 실천하는 봉사가 어찌 한사람의 원력으로 이뤄지겠습니까. 빈부와 귀천을 초월해 자비희사 마음으로 나라를 위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불자님들의 축쳐진 어깨를 올려 주는 신명나는 봉사활동을 한번 해봅시다.”

3월 26일 오후 7시 덕천로터리 글로리뷔페에서 열린 ‘진여봉사단 창립 및 회장 취임 기념법회’에서 정인자 신임회장(사진)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할 때”라고 말했다.



‘참나를 찾아 사회의 어두움을 밝히는 봉사단’이 되겠다는 발원으로 창립한 진여봉사단은 14년째 부산 북구의 어려운 이웃을 지켜온 토박이 봉사단체다.

“1989년부터 부산소년분류심사원수용실에 TV를 기증하고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한 책상과 에어컨, 엠프시설, 운동복 등을 지원했어요. 철없는 청소년들을 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란 생각에 뜻을 모아 불자들끼리 작게나마 돕기 시작했는데, 이때 ‘진여회’가 처음 생겼어요.”

진여봉사단은 그저 또래의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으로 돕기 시작한 부산소년분류심사원을 매월 위문방문해 두 번째 엄마, 아빠가 돼주었다. 2000년 5월에는 마당에 노천 해수관세음보살상을 건립하는 등 불법홍포에 매진했다. 또 부산구치소에도 매월 셋째 월요일 방문해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재소자들을 위한 생일잔치를 열어주는 등 꾸준히 재소자 교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후 1996년 대한불교진여원(원장 남보타월)이 개원하고, 이듬해 제1회 ‘호국영령 합동천도재’를 봉행, 호국영령 428위를 진여원에 모시면서 진여봉사단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또 하나 생겼죠. 진여원에 모셔진 호국열사들의 유가족들을 위해 위안잔치를 열고, 어렵게 사는 유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이 인연으로 매년 보훈유자녀 학자금 지원 및 지역 내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 등 각종 장학사업을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진여봉사단이 세운 호국영령추모비는 최근 국가보훈 현충시설로 지정되기도 했다.

진여봉사단이 자리를 잡아갈 무렵은 IMF 경제위기로 노숙자들이 거리로 몰려나올 때다.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독거 어르신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무료급식 및 의료비 지원, 이미용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당시만 해도 봉사단체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어요. 부랴부랴 1997년에 노인무료급식소를 개원하고 밥을 짓기 시작했어요. 서둘러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도 무료급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진여봉사단은 결성한 지 14년만에 정식 창립법회를 갖고, 제2의 도약을 준비한다. 14년 전보다 회원수는 훨씬 많아졌고, 봉사활동 분야도 폭넓어졌다. 초창기 회원 대부분이 저마다의 분야에서 자리 잡아 진여봉사단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고 있다.

더러운 진흙 속에 뿌리 내리고 있어도 줄기와 잎이 청정함을 잃지 않는 연꽃처럼, 본래 청정한 진여를 간직한 이들이 있어 우리 사는 세상이 늘 맑고 향기롭다. (051)337-1080

박지원 기자

법륜 스님

‘즉문즉설’ 강의


‘즉문즉설’ 강의를 진행하는 법륜 스님.

해운대정토회와 울산정토회는 4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매주 수요일 각각 오전 11시와 오후 7시 30분에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강의를 마련한다. ‘즉문즉설’ 강의는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뇌에 관한 질문을 즉시 묻고, 즉석에서 답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질문은 강의에 참석한 누구나 할 수 있다.

법륜 스님의 저서로는 <즉문즉설 ‘답답하면 물어라’>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금강경이야기> <반야심경이야기> 등이 있다. (051)747-9997

박지원 기자

“문화강좌로 고급 불교콘텐츠 공유”

동명불원 불교문화아카데미 개원… 7개 강좌 개설

동명불원(주지 정산)은 ‘불교문화아카데미’를 개원, 불교 기본교육 및 경전교육을 비롯한 행선, 사찰음식, 선화 그리기, 생활차 만들기 등 7개 강좌로 4월 중순 첫 강의에 들어간다.


불교문화아카데미를 개원하는 동명불원 주지 정산 스님.

교육 · 수행강좌로는 ‘불교 기본교육’ ‘<예불문> <반야심경> <천수경> 경전교육’ ‘주지스님과 함께하는 염불공덕회 제1기 염불교육특강’ 등 3개 과정이 개설된다. ‘불교기본교육’과 ‘<예불문> <반야심경> <천수경> 경전교육’은 오후 2시 · 8시에 각각 2시간씩 진행되며, 4월 20일과 23일 차례로 개강한다. ‘주지스님과 함께하는 염불공덕회 제1기 염불교육특강’은 24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마련된다. 특히 염불교육특강에서는 불교식 제사, 가정법회, 공양 제대로 올리는 방법 등 평소 모르고 지냈던 불교 예법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준다.

문화강좌로는 ‘주지스님의 행선(몸수행)강좌’ ‘홍승 스님의 사찰음식’ ‘희상 스님의 선화 그리기’ ‘생활차 만들기’ 등 4개 과정이 개설된다. ‘주지스님의 행선(몸수행)강좌’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8시에 진행되며 22일 개강한다. ‘홍승 스님의 사찰음식’과 ‘희상 스님의 선화 그리기’는 21일 개강해,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오후 8시에 진행된다. 김대원 차 문화연구가가 강사로 나서는 ‘생활차 만들기’는 24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해운대 장산의 차밭 일원에서 수확하고 차로 만들어 마시기까지의 전 과정을 배울 수 있다.

주지 정산 스님은 “불교문화를 예술의 매체와 더불어 생활문화를 배우고 영유하는 문화실천 및 교육 도량이 될 것”이라며 “많은 분이 불교문화아카데미에서 더욱 전문화되고 고급화된 불교문화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051)626-4337

박지원 기자

놀토체험활동

(사)불국토청소년도량 양정청소년수련관(이사장 범산)은 3월 28일 토요체험활동으로 ‘범어사 사찰보물찾기’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는 수련관 방과 후 아카데미에 참가 중인 청소년 40명이 참석해, 범어사의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역사체험활동에 참여했다. 재미있는 설화를 통해 범어사의 유래를 알아보고, 숨겨진 사찰보물찾기, 연등 만들기 등 체험위주의 견학으로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사찰보물찾기는 5월까지 계속되며, 4월에는 금정산 미륵사로 찾아갈 예정이다. (051)868-0750

박지원 기자

봉축현수막 및 봉축용품 안내

저희 감로기획에서는 최고급 원단을 사용합니다.

※ 각 지역 사암연합회 단위 단체주문 환영 (서울지역 시공가능, 설치비 별도)



90cm×6m, 7m, 8m, 10m, 12m / 폭 105cm, 150cm 제작 가능
세로 현수막도 제작 가능

청사초롱등 (5가지 1세트)

200개 이상 주문시 사찰명 인쇄 가능.



봉축 장엄 번 (제등행렬용)



봉축 장엄 현수막



거치형 현수막



봉축 어깨띠 (사찰명 인쇄 가능)
색상 : 분홍, 군청, 주황, 밤색, 하늘, 연두, 노랑



감로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옆) | 대표전화. (02)723-4306 | 팩스. (02)738-8682 | 홈페이지 : www.gamro.net | E-메일 : gamro4306@hanmail.net

선무 압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多 모여

제1회 전국 템플스테이 축제 금산사서 열려

템플스테이는 한해 10만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 프로그램이다. 한국 불교를 국내외에 홍보하는 템플스테이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등 템플스테이 운영 관계자간의 정보교류와 친목도모를 위한 행사가 처음 열렸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은 3월 27~29일 김제 금산사에서 '안아주는 템플스테이, 신나는 템플스테이'를 주제로 '제1회 전국 템플스테이 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전국의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스님과 실무자, 자원봉사자 300여 명이 동참한 행사는 첫날 '템플스테이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학술제로 시작됐다.

학술제에는 진경 스님(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의 '템플스테이 운영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 심원섭 연구위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심 연구위원은 '템플스테이 활성화 방안'을 통해 "최근 체험관광의 수요 다변화와 차별화된 체험관광상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지자체의 지원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심원섭 연구위원의 발표에 따르면 경북과 충남이 조례개정을 통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서울 경남 전북 광주 전남 충북 등 9개 지역은 별도의 지원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원할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실무자 교육을 비롯해 운영 실무자들의 중복된 사중 업무와 잦은 이직 등 운영사찰의 인력시스템 보완도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 연구위원은 "지자체의 조례개정을 통한 지원 등 지자체와 운영사찰간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학술제에 이어 골굴사의 '움직이는 선의 숨결', 법흥사의 압화 '꽃 누르미', 장육사의 '풀 뽑으며 번뇌 뽑기', 대원사의 '약초주머니 만들기' 완주 송광사의 한지 만들기 체험, 대안 스님의 발우공양 체험 등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였고 전주 차회의 다도시범, 강옥실 선생의 사찰음식 전시, 운영사찰의 홍보물과 사진 전시, 예쁜 명함 콘테스트도 함께 열렸다.

운영사찰 스님들이 직접 참가한 아름다운 소리나누기 법고경연대회에는 수덕사 경학 스님이 원력을 일으키는 소리상을 수상했다. 금산사가 임진왜란 당시 승병들에게 밥을 나눠주던 구시통 비빔밥은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문화공연에서는 피아니스트 임동창과 천재학교 소년들의 공연, 중앙국악관현악단, 전남대 판소리 합창단 '보렴'등의 공연이 펼쳐져 템플스테이 운영에 노고가 큰 스님과 운영실무자들을 위로했다.

시상식에서는 △사찰부문 황금범종상(총무원장상)에 금산사, 미황사, 묘각사, 영평사가 △운영스님부문 황금법고상(문체부장관상)에 송광사 각안 스님, 화엄사 대요스님, 골굴사 적운 스님, 부석사 주경 스님이 △실무자부문 황금목어상(사업단장상)에 법주사 연복흠, 지장정사 이택현, 봉은사 문사수 법우가 △공로부문 황금운판상(준비위원장상)에는 월정사와 대원사 현장 스님, 홍법사 심산 스님, 사업단 이동익 팀장이 수상했다.


3월 27~29일 김제 금산사에서 열린 제1회 전국 템플스테이 문화축제에서 문화공연이 진행돼 참가자들의 흥을 더했다.

문화축제 준비위원장 원행 스님(금산사 주지)은 "2002년 템플스테이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래 이만큼 성정해왔던 이면에는 운영사찰 스님들과 실무자들의 노고가 컸다"며 "이러한 행사를 통해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템플스테이의 미래를 밝혀나가는 소통의 장으로 승화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포교당 불교센터 건립 계획

백양사 불교대학 개설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시몽)는 4월 1일 장성읍내 산림조합 2층에 불교대학을 개설하고, 향후 현대적 시설을 갖춘 포교당과 불교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밝혔다.

불교대학 개설 행사에는 시몽 스님, 백양사 승가대학 강주 응각 스님을 비롯해 이청 장성군수, 김재열 신도회장, 신현국 불교대학장, 불교대학 신입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시몽 스님은 격려사에서 "신라시대 불교처럼 산중이 아닌 중생의 삶의 현장에서 대중과 호흡하는 불교로 거듭나고자 불교대학 개설을 시작으로 불교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첫 개강한 고불총림 백양사 불교대학은 신도입문과정을 중심으로 재가자가 운영의 중심을 이루는 불교대학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백양사 관계자는 "앞으로 백양사 관할지역 나주, 담양 등에 불교대학을 만들어 일반인들이 쉽게 불교를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백양사 불교대학은 동참(백양사 운문선원 선원장), 미산(상도선원 주지), 법장(백양사 율원장), 우궁(백양사 강원 강사), 금강(미황사 주지), 법인(실상사 화엄학림 학장) 스님 등이 강사로 나선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영암 도갑사 '보현거사회' 창립

영암 도갑사(주지 월우)는 3월 28일 대웅전에서 보현거사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김일태 영암군수를 비롯한 지역기관장과 재가거사 50여 명이 동참했다.

월우 스님은 법문에서 "보현 거사회는 기초교리는 물론이고 경전강의, 설법, 참선, 회원연구발표회 등 다양한 주제의 법회 운영이 필요하다"며 "육바라밀행을 실천해 창조적인 지혜와 실천으로 불교발전에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놀토 "청소년들아 모여라"

광주 무각사 벼룩시장 · 고창복지관 공연

매월 둘째 넷째 주 놀토를 맞은 청소년들을 위한 교계의 행사가 다채로와 눈길을 끈다.

광주 무각사(주지 청학)는 3월 28일 무각사 주차장에서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4대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재활용장터인 '보물섬' 벼룩시장을 열었다.

행사에는 청학 스님, 천주교 광주대교구 김희중 총대리주교, 원불교 광주전남 김현 교구장 , 무진교회 장관철 담임목사 등 4대 종교지도자를 비롯해 시민과 구청 관계자, 어린이 등이 참석했다.

벼룩시장에서 청학 스님을 비롯한 각 종교대표들은 돗자리를 깔고 각기 소장품을 내어 판매행사에 동참했다. 각 개인이 소장하는 물품을 파는 것 외에 광주시를 비롯해 5개 구청과 단체에서는 녹색나눔장터, 기후변화 재활용장터, 청소년 나눔축제, 자전거 재활용장터 등 단체에 맞는 테마장터도 열렸다.

청학 스님은 "보물섬이 재활용의 소중함과 나눔의 기쁨을 함께 느끼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기부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매월 두 차례 열리는 이 장터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눔이 생활의 습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보물섬'은 매월 2 · 4주 놀토에 진행되며, 판매를 희망하는 참가는 신분증과 판매 물품을 갖고 접수하면 된다. 당일 판매수익의 10%이상은 'KBS 사랑의 리퀘스트'에 전달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된다.

같은 날,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관장 무공)도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놀토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놀토 프로그램 첫 행사는 문화체험프로그램으로 60여 지역청소년과 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그대를 사랑합니다'라는 연극관람으로 놀토! 열린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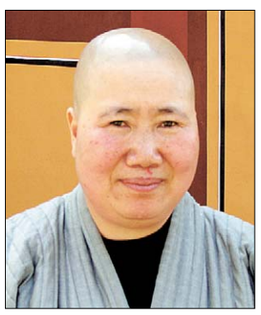
다음 놀토 프로그램은 4월 11일 진행된다. 이날 전통문화 체험행사로는 전문 강사를 초빙한 다도(茶道) 예절 프로그램이 진행돼 청소년들의 올바른 행동습관 형성에 도움이 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정읍 칠보암 주지 진월 스님

"관음기도 정근으로 지혜원 건립 등 불사 회향"

깊은 골짜기에도 봄기운이 완연하다. 어느새 찾아온 봄에 향기로운 햇살이 더해 나른한 오후, 정읍에서 전남 담양으로 넘어가는 쌍치고개 정상에 위치한 칠보암 진월 스님(사진)을 찾았다.



쌍치고개 인근은 동학의 주역 전봉준이 공주전투와 금구전투에서 잇따라 패하자 숨어든 곳이었을 만큼 험준한 산세가 일품이다.

칠보암은 진월 스님이 1999년 인적도 없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산속에 작은 움막 임법당을 짓고 일부 대지를 임대해 농사를 지으면서 창건됐다. 칠보암에 자리잡았던 스님의 원력은 부단한 정진으로 이어졌고 10여 년 만에 대지 3200평에 연건평 350평의 지혜원과 법당, 요사를 갖춘 여법한 사찰이 될 수 있었다.

"처음 칠보암에 자리 잡을 당시에는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었습니다. 땔감도 부족했고, 비가 조금만 와도 아궁이에 물이 차는 악조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낮에는 불사하고 밤에는 촛불로 불 밝히며 오로지 관세음보살 정근을 했습니다."

스님의 정진에 불보살님들은 칠보암 불사의 원만한 회향으로 가피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신도들은 하나 둘 늘어났다. 늘어난 신도에 신바람이 났던 스님의 정진은 배가됐고, 10여 년에 걸친 대불사를 무사히 회향할 수 있었다.

"은사인 원융종 총무원장 성관 스님의 배려와 총무부장 진호 스님의 성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신도들과 기도한 정진력 덕분에 지혜원을 건립했고 부처님 진신사리 17과도 봉안했습니다."

원융종은 장엄하게 회향된 칠보암을 종단 인재불사 요람의 전용관으로 활용 중이다. 2008년 전종도가 참여한 수련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다양한 교육 · 수행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스님은 기도와 불사를 진행하는 짬짬이 농사를 직접 짓기도 했다. 특히 지역특산품인 복분자를 심어 사중살림에 보탬은 물론 인근 지역의 농가 수익을 늘리기도 했다. 된장, 고추장 등 직접 담근 장류를 판매해 불사에 보태기도 했다.

진월 스님은 "많은 사람들이 그저 편안히 쉬어갈수 있는 도량으로 가꾸고 싶다"며 "사찰 재정은 물론 지역 농가에도 고정 수입원이 되는 복분자 판매사업과 된장 고추장 등의 장류 판매 사업을 확장해 지역노인들과 함께 하는 노인복지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칠보암 불사를 회향한 스님의 새 복지불사 원력의 여법한 회향을 기원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일천팔십명 이름 회전으로 사찰경제 중흥발원

"업장소멸 법륜대 탄생"

지금 탁자 앞으로 길게 줄을 잇는 법당이 늘어 주목이 되고 있다. 촛대 좌우 법륜대에 천불이 봉안되어 가족과 자신의 이름을 달고 소망을 발원 하느라 눈을 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민족이 어려운 이때 돌릴때마다 한권의 경을 읽는 공덕은 물론 업장이 소멸되는 법륜대가 법당탁자에 봉안 되고 있다. 한바퀴, 또 한바퀴에 느껴지는 감동이 이어져 사찰경제지킴으로 거듭 태어나고 있다고 한다.

■ 특별혜택 :
1. 99.9% 순금개금불사비 95만원만 지불하시고 잔액 155만원은 정월, 4월, 7월, 동지로 나누어 지불하시는 혜택.
2. 사암연합회 및 개인 예약방문스님에게 특별한 선물 증정.
3. 법륜대 안에 보일듯 말듯한 부처님의 미소가 뚜렷히 보이면 소원 성취 된다고 알려지는 권선문을 드립니다.

■ 주문수량의 한계로 35분 한정으로 1차분을 마감합니다.

덕유산 우리 숲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불사의 어려움을 한탄하지 마시고
화주승의 마음으로 중생구제와
중생불사의 서원을 이루소서





□ 제품명: 천불봉안법륜대
□ 재 질: 대한민국 상감청자
□ 높이 110cm
□ 원통폭 45cm
□ 밑받침폭 30cm
□ 무게 25kg



불사에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중생의 업장을 소멸하도록 업장소멸 법륜대를 소개해 드립니다.
최소비용으로 중생불사 동참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탁발 하듯 한분 한분 5,000원이 일년 6,000만원으로 사찰경제 기반이 되는 법륜대 입니다.

사중살림 성장의 기폭제를 위한 발원으로 태어난 작품이 오는

4월 3일 ~ 4월 5일까지 2009년
한국 불교 박람회(대구 엑스코)에 전시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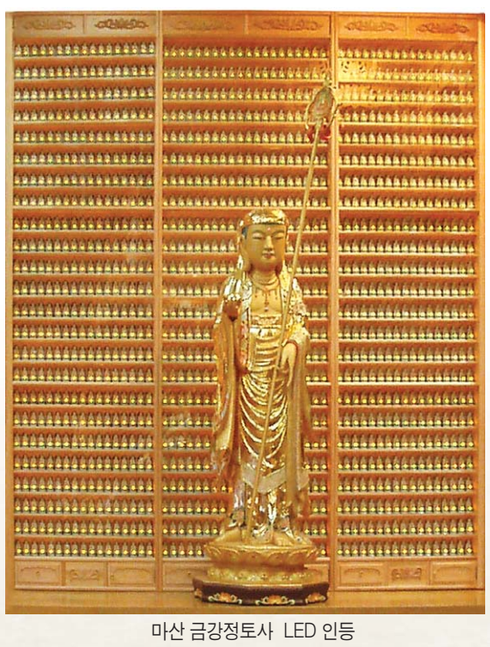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 인등



천안 동심사 영구위패



전선(케이블)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원하시는 사찰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해 드립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장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대구 파계사 원통전 천장 전기공사 및 연등 시공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전선시공


연등 설치 후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Hyunbul Shop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를 외호하며 불교여론을 주도해 온 현대불교신문사는 언론을 통해 정보사회 구현과 포교에 매진함으로써 2,000만 불자들의 긍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현대화,생활화,세계화를 목표로 생활 속의 불교 구현을 위해 함께하는 온라인 쇼핑몰 **현불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불교정보를 기본으로 불교용품, 일반용품, 불교도서, 음반, 불교정보, 각종 이벤트 등 알찬상품들을 언제,어디에서나 가장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습니다.

현불샵 (HYUNBUL SHOP)이 앞장서겠습니다.

생각을 깨우는 쇼핑몰
Hyunbul Shop

HYUNBUL SHOP(#)은 현대불교신문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불교상품에서 일반용품, 불교도서, 음반에 이르기까지)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10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

[원문]
아미타불재하방(阿彌陀佛在何方)
착득심두절막망(着得心頭切莫忘)
염도염궁무념처(念到念窮無念處)
육문상방자금광(六門常放紫金光)
–백양사 극락보전

[번역]
아미타불 계신 곳이 그 어디일까
잊지 않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라
생각은 생각을 이어가다 생각조차 끊어진 곳에 이르면
내 몸의 육근에서 찬란한 금빛이 흘러나오네.

[선해(禪解)]

사람은 반드시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 각박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으며 자신이 가진 꿈을 이룰 수가 있다. 철학이란 일종의 신념이다. 수행자의 길은 매우 험난하기 때문에 자신만의 굳은 신념과 철학이 없다면 힘든 수행생활을 견디기 힘들다. 그러므로 승가에 들어 온 스님들은 반드시 자기만의 철학과 신념을 가져야 한다.

그럼 수행자가 아닌 일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녀야 할 철학은 무엇일까?

바로 사생관(死生觀)과 재물관(財物觀)인데 우리 같은 수행자들에게는 사생관이 있어야 한다. 사생관은 죽음과 생을 바라보는 시선이다. 이를 두고 부처님은 일찍이 네 가지의 보물을 잘 지켜야만 한다고 하셨다.

첫째가 건강이다. 사람은 건강할 때 모르지만 건강을 한번 잃기 시작하면 좀처럼 회복하기 힘들다. 둘째,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만족하는 마음을 내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셋째, 신뢰하는 생각을 가지면 빛이 나온다. 사람은 항상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남에게 신뢰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모든 일을 능히 잘 할 수가 있다. 넷째 열반적정의 가르침이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죽음을 맞아 아쉬움과 한을 남기고 세상을 떠날 것인가.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생의 옷을 벗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부처님이 이 네 가지의 사생관을 강조했듯이 우리 수행자들도 이 네 가지의 보물을 간직해야만 한다.

또 하나는 재물관이다. 우리나라에서 재물관을 제대로 정립한 대표적 사람은 최부자집이다. 그는 한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재물에 대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고 흉년에는 논을 사지 않는다' 등이었다. 그가 이런 재물관을 가지게 된 것은 한 스님의 말씀 때문이었다.

"재물은 퇴비와 같아 한군데 쌓아 놓으면 썩어서 냄새가 나고 여러 군데로 뿌리면 곡식을 살리는 거름이 된다"는 말에 크게 깨쳤다고 한다. 이 사생관과 재물관은 우리 수행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불자들도 가슴 깊이 새겨 들여야 할 보물이다.

오늘은 전라도 백양사 주련 여행이다. 주련을 설명함에 앞서 사생관과 재물관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 부처님의 준엄한 말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뜻이 모두 사찰 주련 속에는 깃들어 있다.

백양사는 우리나라에 있는 오대총림(五大叢林) 중에 하나이다. 승려들의 참선수행 전문도량인 선원(禪院)과 경전교육기관인 강원(講院), 계율전문교육기관인 율원(律院) 등을 모두 갖춘 사찰이다.

일반적으로 통하는 백양사의 유래는 백제 무왕 때 세워졌다고 하는데 본래 이름은 백암사였다. 1034년 중연 선사가 크게 보수한 뒤 정토사로 불리어지기도 하였다.

조선 선조 때는 환양 선사가 영천암에서 금강경을 설법하는데 구름처럼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으며 법회 3일째는 하얀 양이 내려와 설법을 듣고 7일간의 법회가 끝난 날 밤 스님의 꿈에 흰 양이 나타나 '나는 죄를 짓고 양으로 변했는데 이제 스님의 설법을 듣고 다시 환생하여 극락으로 가게 되었다' 고 절을 하고 사라졌다. 이튿날 영천암 아래에 흰 양이 죽어 있었으며 그 이후 절 이름을 백양사라고 고쳐 불렀다고 한다.

원래 백양사는 백제시대의 고찰로 유구한 역사와 주변의 빼어난 경관을 가진 명찰로도 소문이 나 있다. 산내 십여 개 암자 중, 유서 깊은 운문암은 고려시대 때부터 납자들의 정진도량으로 유명한 데 석벽은 깎아지른 듯 험하고 산봉우리는 중첩하여 맑고 기이하며 웅장한 모습 때문에 한 때는 백암사(白巖寺)로 불리기도 하였다.

그럼, 극락보전의 주련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자.

'아미타불재하방 / 착득심두절막망: 아미타불 계신 곳이 그 어디일까 잊지 않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라.'

이 말 속에는 '마음이 곧 부처' 라는 부처님의 '즉심시불(卽心是佛)' 사상이 들어 있다. 사람들은 부처님을 찾기 위해 절을 찾기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한다. 그러나 그 부처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음을 명심하고 이를 간직하라는 뜻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염도염궁무념처/육문상방자금광: 생각은 생각을 이어가다 생각조차 끊어진 곳에 이르면/ 내 몸의 육근에서 찬란한 금빛이 흘러나오게 된다'

인간의 생명체는 마음과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자신의 주인공은 마음이다. 그 마음이 사념하여 끊임없이 망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육근이란 육식(六識)을 일으켜 외계(外界)의 제대상(諸對象), 즉 대경(對境)을 인식하게 하는 근원적 요소를 이야기 하는데 우리의 육근 즉 안근(眼根), 이근(耳根), 비근(鼻根), 설근(舌根), 신근(身根), 의근(意根) 등을 가리키는데, 이 육근으로 인하여 저질러진 죄장(罪障)을 뉘우치는 것을 '육근참회' 라고 하며, 그렇게 참회하고 육근을 끊어 깨끗해지는 것을 육근청정이라고 하는 데 육근의 집착을 모조리 끊고 무애의 묘용(妙用)을 발하여 깨끗해지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육근이 가진 망심과 집착을 끊어내고 나면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육신을 이루고 있는 육근에서 찬란한 금빛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백양사 주련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마음이 곧 부처이기 때문에 몸을 이루고 있는 육근을 청정하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 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다.

■ 조계종 원로의원

자신의 진짜 주인은 마음, 마음은 곧 불성
육근 통해 이뤄지는 집착 끊어야 성불 가능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봐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10

수행의 목표는 견성

[원문]
善星旣如此 今時人 講得三五本經論以 爲佛法者愚人也 若不識得自心 誦得閒文書 都無用處 若要覓佛 直須見性 性卽是佛 佛卽是自在人 無事無作人 若不見性 終日茫茫 向外馳求 覓佛元來不得.

선성(善星)도 그러한데 요즘 사람들은 겨우 서너 권의 경전을 읽고 불법을 알았다고 하니 참으로 어리석다. 만일 자기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부질없이 문구나 외운다면 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 만일 부처를 찾으려 한다면 모름지기 견성해야 한다. 성품이 곧 부처이다.


노엽달마도 (묵로 이용우作).

[해설]

'선시불심(禪是佛心)이요, 교시불어(敎是佛語)라' 는 말이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은 곧 부처님 말씀이고 선은 곧 부처님 마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부처님을 다른 말로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내 마음을 깨달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정진했을 때 우리가 하루 빨리 성품을 보는 계기가 오는 것이지, 경을 외우고 절을 하는 수행법은 큰 이익이 없습니다.

우리 불자들 가운데는 천수경이나 금강경, 혹은 법화경 공부를 몇 번씩 했다면서 스스로 공부가 많이 됐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품을 보지 못하고 참 뜻을 새기지 못하면 책을 읽는 것이 큰 이익이 되지 못합니다. 반면, 성품을 보는 마음의 눈을 뜨고 나면 모두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설령 금생에 눈을 뜨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눈을 뜰 수 있는 참선 수행법을 택해야 합니다. 염불을 하더라도 우주 실상의 근본 자리에 마음을 두고 묵묵히 하다보면 언젠가는 성품을 볼 수 있는 자리에 다가가게 됩니다. 성품을 볼 수 있는 공식은 없습니다. 다만 길만 알려 줄 뿐입니다. 스스로 정진하되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누워서 하든, 앉아서 하든, 끊임없이 정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를 찾는다' 는 얘기는 나의 본래 성품 자리, 즉 나의 불성 자리를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모든 불자들의 발원이고 수행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성불 하십시오' 라고 인사를 하는 것 또한 성불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불자님들이 설령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님 도량에 찾아 왔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깨닫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어떤 수행을 하든, 무엇을 해결하고자 하든 마음을 어디에 두고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음을 어디에 두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화두가 될 수도 있고 외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상 반야의 차원에서 보면 일체가 마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문자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우리는 '체(體)' 라고 이야기 합니다.

열심히 정진을 해서 나름대로 견성했다고 생각을 하는 한 비구스님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그 스님이 좌선을 하고 있는데 한 비구니스님이 와서 주장자를 짚고 스님을 세 바퀴 돌더니 주장자를 세 번 내리치면서 "스님께서 한 소식 했다고 하는데 어디 일러 보십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체(體)' 와 '용(用)' 이 있다고 했을 때 '체' 를 묻는 겁니다. 그러나 스님은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비구니스님은 "스님이 한 소식을 했다고 해서 배우려고 했는데 그냥 갑니다." 하면서 홀연히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나름대로 한 소식 했다고 자부한 이 비구 스님은 비구니 스님의 질문에 답을 못하고 당했다는 생각 때문에 분한 마음이 들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은사이신 천룡 스님을 찾아뵙고 비구니 스님이 다녀간 이야기를 들려 드렸더니 "그럼 네가 비구니가 한대로 나에게 해보거라." 하시는 것이었어요. 제자가 스승을 세 바퀴 돌고 주장자를 내리치면서 "한 소식 했다는데 일러 보십시오."하니 은사이신 천룡 스님은 엄지손가락을 턱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 제자가 깨달았습니다. 은사 스님이 손가락을 턱 내민 순간에 제자가 도를 깨달은 겁니다.

그 때부터 누가 와서 법을 물으면 엄지 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당신이 견성했다고 하는데 일러 보시오' 라는 그 말은 우주의 근본 실상을 묻고 있는 겁니다. 우주의 실상은 문자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을 하면 답이 아닙니다. 그러니 문자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자리를 손가락을 탁 내밀어 답을 했단 말이죠. 그 때 제자가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용(用)'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를 들어 "달마 스님이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 하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꽉 막힌단 말이죠. 이것은 '용' 차원에서 묻고 있는 겁니다. '체' 에서는 오고 감이 없기 때문에 묻는 사람이 '용' 차원에서 묻고 있는 겁니다. '용' 이라는 말은 우주의 근본 실상에선 문자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데 우리들 눈 앞에 보이는 모든 존재는 모양이 없는 자리에서 나온 겁니다. 이 '안경 주머니' 의 본질은 바로 마음에서 작용(인연)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왔으니 이 안경 주머니와 마음은 하나입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백발백중「구단구궁법」
저자 법화스님 직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직업,성격, 명운 척척 들어 맞춘다.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과거 10년, 미래 10년을 꿰뚫는다.
◆ 2주 완성
당신도 2주후 『최강자』가 될 수 있다.
부산자비원 051)554-6040
010-9399-7442

테이프로 공부하는 四柱 특강
타고난 운명을 비롯해서 인간만사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감정의 원리와 요령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터득하도록 설명함으로서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날 것이다. 비록 테이프로 공부하지만 선생의 강의를 직접 생생하게 듣는 것과 같다. 初步에서 最高과정까지 철저히 이해시키는 독특한 강의는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날 것이다. 더욱이 有名人士들의 四柱를 실제로 풀이하였으므로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테이프 13개와 교재대 포함 20만원)
녹음 테이프로 하루 한시간씩 2개월이면 완성할 수 있다.
易理作名法
당신도 作名大家가 될 수 있다
이름은 한번 잘 못 지으면 평생 후회하게 되고 다시 개명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시중(市中)에 나와 있는 작명서들이 한결같이 수리와 오행에 맞추어 이름을 짓고 있는데 만약 두 사람의 이름이 똑같은 수리와 오행이라면 똑같은 이름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좋은 이름은 수리와 오행뿐만 아니라 주역(周易)에 맞추어 지어야 한다. 주역을 몰라도 누구나 알기 쉽게 찾아 볼수 있도록 하였다. (정가 : 30,000원)
◆ 아래 계좌로 입금하시면 속달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
◆ 著者 : 孫中山 (75세) 韓國陰陽學會 會長
◆ 계좌번호 : 농협 100080-56-022361 (손선영)
學術團體 韓國陰陽學會 中央會
053)324-2468 / 010-9391-5699

역학 효타비결 전수생 모집
아직도 5년 10년씩 역학을 공부하십니까?
1달만 공부하면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효타비결을 전수합니다. 진정한 프로가 되고 싶으면 지금 시작하세요.
● 기간 : 1개월 완성
● 문의 : 효타암 051)524-9406
"이름 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중에서 선별.
● 작명,개명,상호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성씨별로 2천-3천개의 이름들을 수록하였음.
- 정가 5만원 -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장소 : 부산시 금정구 금사동 34-4

統合佛教儀式大典 出刊

총 1,2권 2,100 페이지
크기 4×6배판(19×26cm)
가격 : 전권 200,000원
본 의식 대전은 도량석부터 예불 등 총 183 가지의 불교의식에 관하여 상세하게 기록 정리 하였으며, 주요의식으로는
사십구제편
1.입재 불공의식 ○화엄시식
2.삼우제 불공의식 ○삼우제시식
3.초재 불공의식 ○지장시식
4.이재 불공의식 ○보현시식
5.삼재 불공의식 ○문수시식
6.사재 불공의식 ○미륵시식
7.오재 불공의식 ○보문시식
8.육재 불공의식 ○묘음시식
9.칠재 불공의식 ○관음시식
고사편
1.가정안택의식
2.사무실고사의식
3.자동차고사의식
4.선박고사의식
기타편
삼재살 해소의식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추천인
中央僧伽大學校 總長 宗梵
韓國佛教 太古宗 宗正
太古叢林 仙巖寺 方丈 釋慧草
統合佛教儀式大典
문의전화 : 055)747-8350,017-552-7350
계좌번호 : 농 협 803-02-752331 예금주 : 김묘경
우체국 612713-02-021600 예금주 : 김묘경

행동 따르지 않는 깨달음은 허깨비 놀음

종하 스님
(관음사 주지)

관악산 관음사 가는 길은 사당동에서 과천으로 이어지는 남태령 초입에서 우측으로 밀집된 주택가 골목을 따라 구불구불한 길이다. 방금 터진 목련꽃의 우윳빛 미소가 담장을 넘어 와 길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골목이 끝나는 곳에서 산길이 시작됐다. 길가에 설치된 운동기구에서는 사람들이 건강을 다지고 나무들은 새 움을 틔우느라 뜨거운 숨을 내뿜고 있었다. 무더기무더기 붉은 진달래가 한껏 피어 있는 숲은 방금 주택가를 지나 왔다는 기억을 아득하게 했다. 선지식을 찾아 가는 길은 위치와 상관없이 아름답기만 했다.

그렇게 봄날 아침을 감상하며 관음사를 오르는 동안 '사람 사는 마을에서 가까운 곳에 관음사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막상 키가 훤칠한 일주문을 지나 도량에 들어서면서 생각을 고쳤다. '도량 가까운 곳에 사람 사는 마을이 있구나'로.

황폐해진 관음사를 40여 년 동안 온갖 공력을 들여 이토록 청정한 도량으로 가꾼 주역은 종하(鍾夏) 스님이다. 절 마당에 이르자 몇 개의 현수막이 눈을 끌어 당겼다. 4월 17일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와 산사음악회'가 열리나 보다. 최근 서울의 봉은사와 조계사 법회에 초청되어 법문을 한 종하 스님은 "보시와 나눔의 삶이야말로 가장 불자다운 생활 방식"이라고 역설했다. 경로잔치와 산사음악회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지역민들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선물하려는 뜻일 게다.

또 하나의 현수막은 <금강경> 강좌 안내. 지나가는 종무원에게 물으니 매주 월요일 오전에 열리는 <금강경> 강좌에는 100여명의 불자들이 모인다고 했다. 적지 않은 수다.

"주지 스님께서 직적 강의 하시는데 그 정도 모이는 것은 당연하죠."

종무원의 한 마디에 긴 세월 도량을 가꾸면서 스님과 신도들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형성 했는지 짐작됐다. 명부전에 붙은 단정한 요사채에 깔끔한 객방이 있고 그곳에서 종하 스님을 뵈었다.

-요즘 서울의 큰 절에서 연거푸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리 자주 있는 일은 아닌 듯합니다. 법회 가 보신 소감이 있으신지요.

"글쎄요. 봉은사나 조계사나 다 청을 하기에 응했을 뿐입니다. 뭐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니 대중들 앞에서 요긴한 얘기를 하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느낀 것은 있어요. 법회에 참석한 불자들의 연령이 너무 높다는 것 말입니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젊은 사람이 없는 법회는 불교의 어두운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어린이나 청소년 법회가 이 절 저 절에서 왕성하게 열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불교가 젊어지지 않으면 어쩌란 겁니까? 포교를 열심히 하고 하는데, 승단은 스스로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의심하게 합니다. 세상을 이끌어 가야 할 집단이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는 겁니다. 출가의 목적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처럼…"

선거제도에서 기인하는 폐해들이 승단을 추락시키는데 큰 몫을 차지한다는 것이 종하 스님의 지적이다. 대중공사의 전통을 살려 교구본사 주지나 총무원장 등은 추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대제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지금의 폐해를 일소시킬 것이니 그게 훨씬 불교다운 제도라는 것이다. 물론 승단 구성원들이 세속적 욕망을 줄이고 출세간의 공심(空心)으로 돌아가려는 의지가 필요한 일이다. 종하 스님은 총무원장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있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비판하는 스님은 사뭇 진지했다.

-생활 패턴이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의 인식 패턴도 매우 다양해지는데 비해 불교는 이판(理判)과 사판(事判)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판과 사판은 둘이 아닙니다. 한 판입니다. 구분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애써 구분하니까 사상(四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얽히게 되고 권력이나 금전의 힘에 의지하게 됩니다. 심하면 출가 목적도 잃어버려요.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을 외면해버리는 경우도 다 그런 분별심에서 생기는 겁니다. 참된 이판 속에 사판이 자재하고, 제대로 된 사판이면 이판을 총섭 합니다. 사사무애(事事無碍)요 이사원융(理事圓融)이 되어야 합니다. 이판이다 사판이다 구별하는 것 자체가 비불교적입니다. 더구나 현대사회에서는 그런 분별적 사고가 승단의 유연성을 마비시킵니다. '사'를 못하는 사람은 '이'에도 뒤떨어집니다. '이'를 이룬 사람이라고 '사'를 무시하고 살 수도 없고요. 이 둘을 둘이 아니게 원융 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종단의 일도 그렇고 개인의 수행도 그렇습니다. 10.27 법난 이후 우리가 경험 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당시 선방에서 정진하던 스님들이 중앙으로 올라와 종무행정을 맡았는데 대부분 실패 했거든요. 또 행정 사무만 보던 스님이 선방에 방부를 들이고 들어가면 한동안은 무지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한쪽이 안 된다는 것은 다른 한쪽도 안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판과 사판을 두 판으로 볼 것이 아니라 궁극에서는 한 판이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에 확철하면 '사'가 따르고 '사'에 확철하면 '이'가 따르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알면서 속아 주는 경우와 몰라서 속는 경우가 있다. 종하 스님은 알면서 속아 주는 것은 '자비'가 될 수 있지만, 모르고 속는 것은 '무명'에 갇힌 것이라고 했다. 속는 것은 같지만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천지현격이다. 이판과 사판도 같은 이치라는 것이다. 이사(理事)의 어느 것이든 확철하지 않으면 속아도 속는 줄을 모르는 것이고 어느 것이든 확철하면 자비를 베풀어 속아주는 것이란 것. 그러니 이판과 사판을 둘로 나눌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확철하도록 정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자세야말로 현대사회에서 불교가 존립하는 목적이고 길이 되어야 한다고 종하 스님은 거듭 강조했다.

보시와 나눔의 실천이 불자다운 삶
상벌 엄격해야 청정유지 승풍진작
포교 인적자원 확보 특단조치 필요



종하 스님은 1958년 해인사 고봉스님 문하로 출가한 종하 스님은 범어사 강원을 나와 통도사 봉암사 등 선원에서 은사로부터 받은 '이뭐꼬' 화두를 참구했다.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하고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과 부원장, 개혁회의 부의장, 승가학원 이사 등을 역임했다. 중앙종회 제4대부터 12대까지 종회의원을 역임하며 제9대와 10대에서는 의장을 맡았다. 불교방송 이사장을 거쳐 현재 이사이며 관악산 관음사 주지다.

사찰 종합 보험 전문
사찰내외의 다양한 위험(화재 풍수해 도난 등)에 대한 대비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상해 질병의료비 보험 상담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상담
은퇴 후 노후 설계 상담
종합자산관리사 (IFP) 이진우 합장 011-766-1001



이판과 사판은 결국 '한 판'



조계사에서 법문하는 종하 스님(3월 27일).

–오늘날 승단의 위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산중불교가 도시불교로 변하는 과정에 겪는 시행착오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계율문제는 말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디 말 안 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서로 자신 없으니까 서로 눈치 보면서 말을 안 하는 것이겠지요. 이판과 사판이 원융하고 자재하지 않으니까 계율문제도 날로 심각성을 더해 가는 겁니다. 나는 엄격한 상벌의 잣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잣대가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 잣대를 쓰지 않는 것이지요. 종단이 제대로 유지되고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세간보다 훨씬 엄격한 상벌의 잣대를 종단 구성원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세속에서도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 하듯이…"

승풍이 제대로 진작 되기 위해서는 상벌의 규정이 확실하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종하 스님의 지론. 입만 열면 '즉심시불(卽心是佛)'을 말하는 승단이 스스로 마음에서 부처의 종자를 길러내지 못한다면 제불보살과 역대조사의 가르침은 허황한 구두선일 뿐이라는 것이다. 종하 스님은 또 종단이 정립(正立)되기 위해서는 자주성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며 기관의 예산 지원에만 눈독을 들이는 풍토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든 지자체든 기관의 예산 지원을 받으면 어느 단체보다 투명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스님이 돈 때문에 공권력의 조사를 받고 구속되는 일이 허다한 현실을 개탄하는 것이다. 자수성가(自手成家)란 말이 있듯 불교의 본래정신도 지극히 자주적인데 현대사회에서는 스스로 기관에 예속되는 길을 찾아다닌다는 것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를 요구합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지만 살아가는 양태는 한 순간도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시대에 따라 불교를 보는 시각도 변하고 불교도 역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고정시킬 수 없습니다. 갈수록 변화의 템포는 더 빨라지는 듯합니다.

"변화의 수레바퀴는 과거에도 끝없이 굴러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굴러 갈 것입니다. 부처님은 일체의 무상을 깨달으시고 그것을 가르치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부처님이 56억만 년 뒤에 미륵불이 출현 할 것을 말씀하신 까닭을 알아야 합니다. 시대가 달라지면 수행도 교화도 달라져야 합니다. 말로 하는 불교는 불교가 아닙니다. 허깨비 놀음에 불과합니다. 깨달음이란 것은 실천을 동반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기 성품을 바로 보는 것이 깨달음이면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남을 도우면서 살아야 한다는 깨달음만 있고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산다면 그는 불자가 아닙니다. <육조단경>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부처는 자기 성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몸 밖에서 찾지 마라. 자기 성품이 미혹하면 부처가 곧 중생이요, 자기 성품이 깨달으면 중생이 곧 부처다. 자비는 관음이요 보시는 대세지라고 부른다' 자신의 깨달음을 세상으로 표현하는 것, 육바라밀의 첫 번째가 보시인 것도 나누고 베푸는 것이야말로 참다운 깨달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안으로 도덕성과 청정성을 회복하고 밖으로는 끝없이 베풀고 나누고 도와야 합니다. 모든 불자가 그대로 관세음보살의 천수천안이 되어서…"

–행자시절 은사이신 고봉 스님에게 뺨을 많이 맞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많이 맞았어요. 허허. 그러나 그게 어디 미워서 때린 겁니까? 세상에서 짊어지고 온 상(相)들을 다 내려놓고 중노릇 잘 하라는 간절한 가르침이었지요. 당시는 동자(童子)들을 많이 길러 스님을 만들었어요. 스무 살이나 먹도록 세상맛을 보다가 들어 온 경우는 드물었고 부담스럽게 여기기도 했어요. 상이 차 있으니까요. 중이 되고 싶어서 은사스님께 두 번 찾아가서 퇴짜를 맞았고 세 번째 찾아가니 받아 주시더군요. 그리고 하심공부를 그렇게 시키신 겁니다. 계를 받던 날 은사스님께서 해 주신 말씀을 지금까지 거울로 삼고 있어요. '개 오줌 싸고 가듯 하라. 중보고 중질 못한다. 법을 보아라'는 짧은 말씀이었는데, 이것은 곧 집착을 갖지 말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는 뜻으로 구도일념으로 정진하라는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새길수록 큰 가르침이지요. 해학적이기도 하고…"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봄은 찾아오고 그걸 용케 알아차린 나무들은 잔치를 열듯 꽃을 피우고 잎을 틔워낸다. 관음사를 둘러싼 사방의 숲에도 그 정연한 질서로 한바탕의 잔치가 펼쳐지고 있었다. 그것도 이사의 원융일 것이다.

글=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38. 범패어장 벽응 장태남 대화상

범패는 불교의식음악으로 일명 범음(梵音), 어산(魚山), 인도(引導)라고도 부른다. 절에서 주로 재나 불공을 올릴 때 부르는 소리로 가곡, 판소리와 함께 한국 3대 음악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 범패는 장단이 없는 단성 음율로서 재를 올릴 때 쓰는 음악이기 때문에 서양의 그레고리안 성가와 비슷하다.

1962년 문화재 법이 만들어지고, 64년 이 법이 실천되면서 불교의 범패가 무형문화재 제50호로 지정 되었다. 이때 봉원사 박송암 스님과 김포 문수사 벽응 스님이 범패로서 지정을 받고, 전주 이재호 스님이 작법무로서, 응암동 정순정 스님이 도량장엄으로서 인간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다.

그런데 작법무와 도량장엄은 각각 한 분씩 지정이 되었는데, 범패는 두 사람이 지정된 것은 각기 그 소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송암 스님의 소리는 경기체와 비슷하고, 벽응 스님의 소리는 어산성을 많이 닮았다. 그래서 송암 스님의 소리는 하늘로 날아가는 듯한 비천성이 중심이고, 벽응 스님의 소리는 청산에 흐르는 물과 같아 조용조용 어머니 자장가와 같았다.

벽응 스님을 모시고 중곡동 불교정신문화원에서 교육을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로 기억난다. 송암 스님은 여러 대학 강의를 맡아 전혀 시간을 내기 어려웠으므로 김포에 계시는 벽응 스님이 오셨는데, 한 번도 시간에 빠지는 일이 없었다.

도량석, 종성, 아침저녁 예불문으로부터 재와 불공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교육하셨는데 조용히 하지 아니하면 그 소리를 채보하기 힘들 정도로 자상한 음성을 가지고 있었다.

"스님, 어떻게 범패를 하셨습니까?"

"가난해서 먹고 살기 위해 배운 점도 있지만 워낙 소리가 좋았어. 가만히 듣고 있으면 어머니 자장가와 같거든. 그러니까 신라 때 월명 스님이 도솔가를 불러 하늘에 나타난 두 해를 없애고, 장보고가 중국 적산원에서 신라 범패를 가지고 물에 빠져 죽은 영혼들을 구제 하였던 것이지."

"그러니까 범패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암 그렇고말고. 인도에서 나온 인도풍 범패는 그대로 인도(印度) 혹은 인도(引導)라 하고, 중국에서 나온 것을 어산(魚山)이라 하며, 한국의 범패를 향풍(鄕風)이라 불러왔지." "우리나라 범패는 신라 때 진검 국사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지. 그 분이 중국에 들어가 배워 왔으므로 그분의 음성은 처음에는 당풍(唐風)이었을 거야. 그런데, 그것이 각 지역에 퍼지면서 전라도 소리, 경상도 소리, 서울 소리 등 각기 달라졌거든. 마치 아리랑이 정선아리랑이 있고, 전라?경상도 아리랑이 있듯이 말이야."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아랫역 사람은 맵고 짜게 먹으니까 맵고 짠 소리가 나고, 윗역 사람은 싱겁고 달게 먹으니까 싱겁고 달게 나오지. 그래서 서울대학교 한만영 교수는 범패는 단성이기 때문에 채보하기가 어렵다 하였는데, 그 분은 악보를 만들어 안채비, 바깥채비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거든."

스님의 음성은 참으로 유현청화(幽玄淸和)하고 장인굴곡(張引屈曲)하여 의젓하고 그윽했으며, 유장하고 심오하였다.

나는 이 소리를 듣기 위해 김포 문수암까지 여러 차례 간 일이 있다. 스님은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소생이 없어 아무라도 인연 있는 자식들을 데려다 길렀는데, 내가 갔을 때 여섯 명이나 되었다. 두 사람은 내가 주례를 서 주었는데, 미국에까지 가서 성공하여 후배들을 잘 이끌어 주고 있다.

"나는 가난 속에 내 목구멍도 살기 어려웠으나, 이렇게 여러 자식들을 길러 각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 울타리도 되고 양념, 간장도 되고, 참으로 인생이 재미있어."

1964년 박송암 스님과 불교범패 무형문화재 50호로 지정

스님 음성 청산에 흐르는 물과 같고 어머니 자장가와 같아

하고 껄껄 웃으시던 인상이 좀처럼 가셔지지 않는다. 깨끗한 모습에 인간의 연륜들이 주름살 가운데 나타나 얼굴에 주름살이 많은데도 보기 싫지가 않다. 말씀도 조용조용, 행동도 조심조심, 땅을 밟으면 꺼질까, 물건도 만지면 부서질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인생을 살아 오셨다.

단지 송암 스님처럼 범음회를 만들어 후배 양성을 못한 것을 한스럽게 생각하셨다.

"제자복도 복이고 스승복도 복이야. 나는 박복하여 스승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 제자조차 많지 않거든. 그래, 많으나 적으나 모두가 팔자소관으로 생각해서 마음 편안히 살지, 하하하하."

착어, 청혼, 유치, 청사, 종성, 탄백, 축원 소리가 40년이 지난 오늘에도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80>
(修習止觀坐禪法要)

제10장 證果 ⑥

하나가 공하면 십법계가 모두 공하다

故經云 前二種爲方便道 因是二空觀 得入中道第一義觀 雙照二諦 心心寂滅 自然流入薩婆若海 若菩薩欲於一念中具足一切佛法 應修息二邊分別止 行於中道正觀

앞에서는 단지 공관만 닦으면 선정에 치우쳐 중도를 증득하지 못하고, 가관만 닦으면 지혜에 치우쳐 중도를 증득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밝혔다.

따라서 반드시 지관을 동시에 수행해야만 선정과 지혜가 평등하여 중도를 증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전에서는 "앞에서 두 종류는 방편도인데 이공관(二空觀)으로 인해서 중도제일의제관(中道第一義諦觀)으로 들어간다"라고 하였다.

이공은 아공과 법공이다. 범부 중생이 오온법에서 주재자를 억지로 세우는 것을 아집이라고 한다. 가령 색수상행식 등 다섯 법을 추구해본다면 오온법에는 자성이라고는 없어 아의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을 아공이라고 명칭한다.

오온법을 실재있다고 헤아리는 것을 법집이라고 한다. 가령 이 오온법은 허깨비와 같다는 것을 추구한다면 그 모두는 인연을 따라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도 역시 자성이 없는 법공이라고 한다.

공관을 닦으면 인공을 증득하고 가관을 닦으면 법공을 증득하게 된다. 만일 중도제일의관을 닦는다면 아집과 법집을 동시에 버리게 되어 공이라는 개념까지도 제거된다. 공과 집착을 둘 다 잊게 된다면 공공(空空)을 증득하게 된다.

진속이제를 쌍으로 관조하여 진제 공과 속제 유를 떠나지 않는 것을 중도관이라고 한다. 그러나 공과 유를 떠난 밖에 따로의 중도가 있다면 이는 단지 중도일 뿐이다. 이를 비유하면 마치 구름 밖에서 달을 보는 것과 같아서 원만한 중도라고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중도는 반드시 진속이제를 쌍으로 관조하여 양쪽을 떠나지 않으면서도 양쪽에 상즉 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분명한 일념가운데 삼천성상(三千性相)과 백계천여(百界千如)를 갖추어 일념마다 공가중 아님이 없다. 가령 일념이 있다고 말한다면 일념자체를 끝내 얻지 못하며 또 일념을 공이라고 한다면 삼천성상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일념이 일어날 때에 일념이 일어나는 곳을 관조해보면 그 실체를 끝내 얻지 못하므로 공의 의미가 되며, 동시에 일념이 일어나는 곳에 현상세계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곳을 가의 의미라고 한다.

일념가운데 세계가 분명히 나타나지만 그 일어난 실체를 끝내 얻지 못하므로 공도 아니고 가도 아니다. 따라서 공과 가의 이변을 쌍으로 떠난 자리에서 바로 공이고 바로 가여서 이변을 쌍으로 관조하면 바로 중도의 의미가 된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이공관으로 인해서

백천삼매가 마음의 근원에 함께 있으며 항하사 공덕이 동일하게 마음으로 귀결

중도제일의제관으로 들어가면 마음마다 적멸하여 염염이 상주하고 공과 유가 두 모습이 아니어서 진제로서의 부정과 속제로서의 긍정이 동시여서 자연히 생각 생각이 살바야해(薩婆若海)로 흘러 들어간다.

살바야는 지혜라는 뜻인데, 생각 생각이 모든 부처님의 대지혜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보살이 일념가운데 일체불법을 갖추고자 한다면 우리의 분명한 일념가운데 모든 법을 갖추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된다.

이를 두고 백천삼매가 마음의 근원에 함께 있으며 항하사 공덕이 마음으로 동일하게 귀결된다고 한다. 그 이유는 한 법도 자기의 마음을 떠나지 않고 법마다 자기마음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다.

단지 중생은 미혹하여 자기 마음 여래의 오묘한 능력이 번뇌에 덮여 나타나지 않을 뿐이다. 보살이 일념가운데서 일체 불법을 성취하려면 반드시 식이변분별지(息二邊分別止)를 닦고 중도정관(中道正觀)을 실천해야만 한다.

식이변분별지를 설명해본다면 이변은 상대적으로 의존하는 법을 말한다. 예를 들면 공과 유, 아와 무아, 상과 무상, 대와 소, 높고 낮음, 길고 짧음, 친근하고 소원한 것 등인데,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우리가 알아야할 것은 이변으로서 상대적으로 의존하는 법은 단정적인 실체가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서로가 의존하는 법은 모두가 상대적인 비교를 따라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크고 작음이 상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에 대해 말해본다면 큰 것은 진실로 큰 것이 아니고 작은 것으로 인해서 크다는 것을 보며, 작은 것은 진실하게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것으로 인해서 작은 것을 보는 것이다.

지금은 일체 경계를 마주하면서 상대적인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다. 따라서 공과 유에 대한 집착을 쉬어 어느 한 쪽 법에 치우치지 않으므로 생사를 싫어하지도 않고 열반을 기뻐하지도 않아 어느 한쪽을 그친다는 생각이 없이 이변에 나아간 상태에서 바로 중도이다.

도는 이변이 없는데 무엇을 그치겠는가. 대체로 그치기를 기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그치게 된다. 그러므로 이를 두고 불지지(不止止)라고도 말한다. 이것이 최고의 공부이며 식이변분별지이다.

올바르다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도 빗나가지도 않는다. 이것은 공과 유에 집착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과 유를 떠나지 않고 이를 부정한다면 둘 다 부정하고 긍정한다면 둘 다 긍정하여 긍정과 부정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수행하기 때문에 "중도정관을 실천한다"라고 말하였다.

云何修正觀 若體知心性非眞非假 息緣眞假之心 名之爲正 諦觀心性非空非假 而不壞空假之法 若能如是照了 則於心性通達中道 圓照二諦 若能於自心見中道二諦 則見一切諸法中道二諦 亦不取中道二諦 以決定性不可得故 是名中道正觀

무엇을 정관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하는가. 정관을 수행한다는 것은 현전일념이 유도 아니지만 공도 아닌 것을 관조하는 것을 말한다.

진실이 아니면 진실한 공이 아니고 거짓이 아니라면 오묘하게 있는 것이 아니다. 진실이라고 인식하고 거짓이라고 인식하는 마음을 쉬어야만 이것이 오묘한 삼매로서 진제법문이다.

이것을 두고 하나가 공하면 일체가 공하여 십법계가 동시에 공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한다. 우리의 심성을 진실하게 관찰한다면 공도 아니고 가도 아니므로 공과 가를 파괴하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차별상이 완연하게 드러나 공이면서도 진실한 공이 아니다.

이처럼 공이면서 공이 아닌 상태를 속제법문이라고 한다. 속제는 유에 속하고 진제는 공에 속한다. 공을 취하지도 않고 역시 유에 집착도 하지 않아서 밖으로는 경계에 머물지 않고 안으로는 지혜에 머물지도 않아 지혜밖에 경계가 없고 경계밖에 지혜가 없음을 명료하게 통달하여 경계와 지혜를 쌍으로 잊는다면 진제와 속제를 둘 다 초월하게 된다.

이와 같이 관조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심성에서 중도를 통달하게 된다. 이처럼 진속이제를 원만하게 관조하여 마음속에서 치열하게 분별한다 할지라도 항상 자체는 공적하고, 항상 자체는 공적하다 할지라도 분별인연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를 두고 중도정관을 원만하게 수행하는 것이라고 한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수습지관좌선법요 · 신유식론테이프 제작 보급

동현학림은 지상강의란에 연재중인 〈수습지관좌선법요(천태소지관)〉와 호법유식의 비판서이자 새로운 유식학의 길잡이인 웅십력의 〈신유식론〉 테이프를 제작 보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나 메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010-9141-5482 soo532@hanmail.net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수행위차(修行位次)

(3) 통달위(通達位)

십지(十地) 가운데 초지입심(初地入心)을 견도위라고 하는데, 보살이 이 경지에 마음을 머물면 이를 통달위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 수행위를 지(地)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수행이 의지(依持)가 되어 올바른 지혜가 생장(生長)함이 마치 대지를 의지해서 만물이 자라나는 이치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생(生)은 최초로 일어난 지혜이며, 장(長)은 이미 일어난 지혜가 더욱 자라남을 말합니다. 그 때문에 지(地)라고 합니다.

이 수행지는 심천의 구별이 있기 때문에 심천의 단계를 따라서 십지(十地)를 시설하게 된 것입니다.

자량위와 가행위는 모두 지전(地前)이라고 하며, 한번 초지로 진입하면 이로부터 등지(登地)라고 하기 때문에 지전의 삼현초기보살과 등지 이후의 십성(十聖), 또는 십지보살을 잘 구분해야만 합니다.

또 이 수행지는 매지마다 입심(入心), 주심(住心), 출심(出心)의 세 단계 차별이 있습니다. 이 견도위는 초지의 '입심'에 해당됩니다.

견도위에서는 비로소 분별없이 여실하게 아는 근본지(根本智)를 증득하게 됩니다. 이는 무분별지(無分別智), 즉 상대적인 분별이 없이 일어나는 정지(正智)라고 합니다.

이 근본지가 일어날 때 즉시 진여를 증득하여 근본지와 진여의 이치, 즉 주관적인 지혜와 깨달을 대상인 진여의 이치가 평등평등(平等平等)하며 주관인식과 인식대상의 차별상을 모두 함께 떠납니다. 능취지(能取智)와 소취진여상(所取眞如相)에서 차별이 없기 때문에 '평등'이라고 합니다.

능취지와 소취상(所取相)은 허망한 분별심의 모습이며, 이는 상대적인 소득심이 있으므로 분별 희론이 나타납니다. 상대적인 소득심이 있으면 평등한 진여의 이치와 하나로 일치하지 못하고 그것은 단지 상대관점에서 일어나는 희론일 뿐입니다.

무분별지는 진여의 세계를 상대적으로 얻었다는 소득심(所得心)이라고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주관적인 집착심도 없이 그윽하게 진여평등의 이치를 증오하게 됩니다. 이를 반야심경에선 '무지역무득이무소득고(無智亦無得以無所得故)'라고 합니다.

근본지가 일어나면 즉시 그 근본지를 의지해서 후득지(後得智)가 일어나 분별없이 아는 지혜를 일으키면서 현상사법을 미혹의 오류가 없이 분명하게 관조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거울에 낀 때가 벗겨지면 그 즉시 모든 물상이 환하게 나타나는 이치와도 같습니다. ■정리=張如舟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빙의,퇴마,최면치료 [최면 시술사 과정 모집]

▶ 개강일 : 4월 15일(수요일) ▶ 교육 기간 : 6주(24시간) ▶ 모집 인원 :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 100만원

특기사항
1.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2. 6주 24시간의 최단기 집중 현장 교육
3.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훈련비
4.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5.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6.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스님이 직접 강의하고 스님들만 교육받는 유일한 곳

6주 24시간, 짧은 수련기간, 최면 시술사 완성이라는 문구에 "정말될까?"라고 반신반의하면서 공부하셨던 100여분의 스님들이 전국 각처에서 활발하게 최면 시술을 하시며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보람과 자부심도 느끼신다 하셨습니다. "스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 무초 정락 합장 -

특별상담
⊙불자님들의 요청에 교육없는날 1일 1분씩만 상담을 받습니다.
⊙빙의와 神病으로 고생하시는 분
⊙자녀의 가출, 습관, 성적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우울증, 알코올중독, 게임중독, 마약중독 등...

(사)유마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번출구 세일빌딩 401호 ☎ 02)763-0661~2

개인 특별지도 시간없으신 스님들을 위하여 2박3일 실습위주로 교육 (hard training), 신분비밀보장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개발해
특허청의 특허 제0176713호를 획득한
국내에 단 하나뿐인 마이크로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DX-707 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목걸이형 특수마이크



TM-108
목걸이 마이크, 각종 행사, 강의용
주문제작(한정수량 60개)
▷가격 : 120,000원 (택배비 포함)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高音質 무선마이크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소리공양 종목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법당의 마이크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간단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화두수행,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보아도 보이지 않아



해방 직후 경부선 완행열차는 낮이건 밤이건 언제나 만원이었다. 자리를 잡아가려면 시발역인 부산역에서 타야 가능했다. 대구역에서는 이미 열차 칸마다 승객들이 만원이었으므로 입석으로 서서 가는 것조차 힘들었다. 그래서 빈 화물칸에 올라타는 승객들이 많았다. 화장실이나 의자는 없지만 바닥에 편하게 앉아 낯모르는 승객끼리 잡담을 나눌 수 있는 칸이 화물칸이었다.

해인사를 떠난 혜암은 대구역에서 입석표를 구입한 후 화물칸으로 올라탔다. 화물칸에는 이미 30여 명의 승객들이 바닥에 앉아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행색으로 보아 단체로 여행을 가는 기독교 신자들 같았다. 십자가 배지를 가슴에 단 장년의 인솔자가 있었고, 신자들은 그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고 있었다. 혜암은 다른 화물칸으로 옮겨갈까 하고 망설이다가 그만두었다.

혜암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초리가 곱지 않았다. 그러나 혜암은 누구나 탈 수 있는 화물칸이므로 그들의 텃세에 신경 쓰지 않았다. 텃세를 부린다고 해도 고집이 센 혜암이 선선히 물러날 것도 아니었다. 혜암은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화물칸 한쪽으로 가 처음에는 양반자세로 태연하게 앉았다.

열차가 대구역 역사를 빠져나오자 인솔자가 책을 한 권 꺼내들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책을 꺼내들었다. 혜암이 곁눈으로 보니 찬송가책이었다. 혜암은 상관하지 않고 그때부터 반가부좌를 틀었다.

'잘 됐다. 화두를 들어보자. 지난 동안거 때 공부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시험해 볼 좋은 기회가 아닌가.'

혜암은 두 손을 단전 위에 모으고 좌선에 들어갔다. 그러자 기독교 신자들이 희한한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듯이 혜암을 흘끗흘끗 쳐다보았다. 열차가 달리면서 크게 덜컹거리자 한 기독교 신자가 혜암의 등에 손을 짚었다. 그래도 혜암은 개의치 않고 반가부좌 자세를 풀지 않았다.

인솔자는 열차가 대구 시내를 완전히 벗어났을 때 손을 저으며 지휘했다. 그러자 기독교 신자 30여 명 모두가 그의 지시에 따라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혜암은 화두를 들고 자신을 시험했다. 그들이 부르는 찬송가 소리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 머릿속에는 오직 화두 하나로만 가득 차게 했다. 화두라는 방패로 찬송가 소리를 막았다. 혜암은 이것도 수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부르는 찬송가를 마음으로 듣지 않으니 들어도 들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을 마음으로 보지 않으니 보아도 본 것이 아니었다. 만행 길에 오른 혜암으로서는 희한한 경험이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화두의 힘을 느꼈다.

인솔자가 손짓을 하자 모두 찬송가를 멈추었다. 그제야 혜암도 지그시 감았던 눈을 떴다. 어느 새 열차는 김천역을 지나 힘겹게 추풍령을 넘고 있었다. 열차는 벌써 지친 듯 오르막 선로를 힘겹게 서행하고 있었다. 차창 밖에는 연기가 자욱했다. 화전민들이 새로 일군 밭에 불을 놓고 있었다.

그때 인솔자가 혜암에게 다가와 말했다.

"나는 개신교 장로인데 스님은 어디 계시오."

"어디에 있겠습니까. 보다시피 지금 앉아 있는 중입니다."

"서울 가는 길이군요."

기독교인들
찬송가 들으며
오직 화두 하나로
가득차는 경험해

"오대산으로 갑니다."

장로는 나이가 50대쯤으로 보였다. 귀밑머리가 희끗했다.

"젊은 양반이 하필이면 왜 스님이 됐소."

"처사님은 왜 기독교 장로가 됐습니까."

"스님이 불쌍하군요."

"불쌍하다고 생각해주니 고맙소."

혜암은 장로를 쳐다보지 않고 그를 치하하는 말투로 말했다. 그러자 장로가 충고하는 말투로 반격하듯 말했다.

"금을 캐고자 하면서 금맥을 모르고 다니니 하는 말이오."

"그렇다면 처사님께서 금맥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주시오. 제대로 가르쳐준다면 당장 이 승복을 벗어버리겠소."

장삼을 벗겠다는 혜암의 단호한 태도에 장로가 흠칫 놀랐다. 혜암은 우회하는 법이 없었다. 언제나 정면 돌파하는 것이 혜암의 성격이었다. 혜암을 쳐다보던 기독교 신자들도 조금 기가 질린 표정을 지었다. 혜암의 기세에 주춤했던 장로가 자신을 지지하는 30여 명의 신자들을 보고는 용기를 내 말했다.

"금맥은 하나님에게 있소. 하느님을 믿어야만 금을 캘 수 있다는 말이오. 내 말을 알아듣겠소."

장로의 말을 듣던 기독교 신자들 모두가 '아멘' 하고 박수를 쳤다. 그러나 혜암은 박수소리가 멎기를 기다렸다가 또박또박 말했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금맥이라면 지금 내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오. 그러면 처사님 말씀을 믿겠소."

"성경을 믿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소.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번에도 신자들이 모두 '아멘' 하고 박수를 쳤다. 그래도 혜암은 신자들의 기세에 물러서지 않았다.

"그런 조건을 달지 말고 지금 당장 보여주시오. 내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면 이 승복을 벗어버리겠다는 말이오."

장로가 더 이상 대꾸를 못하자 혜암이 말했다.

"내 생각을 말하겠소. 금맥은 내 안에 있소. 금맥은 나를 떠나 있는 것이 아니오. 내 마음이 보물창고라는 말이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불법이오."

혜암의 말에 화물칸 분위기가 반전됐다. 신자들 모두가 입이 얼어버린 듯 대꾸를 못했다. 그러자 혜암이 기독교 신자들을 둘러보고는 한 마디 더 물었다.



그림 · 최문정

"나를 만나는 것이 불교입니다
교주·스승을 만나고자 수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서 나오셨습니까."

장로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이보시오, 젊은 스님.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이신데 나오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소.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물으시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무도 나서지 못하자 혜암이 다시 물었다.

"대답을 하시는 분이 없군요. 그렇다면 똑같은 질문을 내게 해보시오. 나는 '예수는 내 아들놈'이라고 대답하겠소."

장로가 참지 못하고 분개했다.

"예수님을 모독하다니 당장 그 말을 취소하시오!"

"장로님, 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화를 내도 좋습니다."

혜암은 미소를 지었다. 그러면서 기독교 신자들을 둘러보았다. 신자들도 장로와 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 혜암의 논리와 기세에 놀려 놀랍게도 호기심을 나타내고 있는 신자들도 있었다. 혜암은 그런 신자들을 향해서 물었다.

"왜 그런지 속 시원한 해명을 듣고 싶습니까."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혜암은 기독교 신자들 중에서 누군가가 기어드는 소리로 대답하자 지체하지 않고 바로 말했다.

"아마도 예수님이 내 아들놈이라고 하니 기분이 상하셨을 겁니다."

"장로님이 화를 내시는 게 당연합니다."

"이제야 젊은 스님이 바른 말씀을 하시네."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도 내 아들놈이오. 이제 속이 시원합니까."

기독교 신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새어 나왔다. 장로도 웃었다. 그때 혜암은 목소리를 높여 진지하게 말했다.

"이 범부가 어찌 성인들께 욕을 하겠소. 다만 여러분께서 우상, 우상 하면서도 진짜 우상을 모르기에 말씀드린 겁니다. 별을 보고 진리를 깨달은 정반왕의 아들, 싯다르타 태자의 육체가 성인입니까. 그 육체는 고깃덩어리일 뿐이고 그 마음이 성인인 것입니다."

어찌 불성있는
생명 먹고도
일체중생
제도한다 하리까

"맞습니다. 육체가 성인이 될 수는 없지요."

누군가가 맞장구를 쳤다. 혜암은 그의 맞장구를 놓치지 않고 말했다.

"그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분이 예수입니까. 역시 육체는 고깃덩어리요, 그 마음이 예수가 아니겠습니까."

혜암이 던지는 질문에 아무도 대꾸를 못했다.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다만 대전역을 넘어서 한 신자가 혜암에게 싸온 도시락을 내밀었다. 반은 밥이었고, 반은 반찬이었다. 그러나 반찬은 먹을 것이 없었다. 계란과 멸치조림, 마늘이 들어간 김치뿐이었다. 반찬 없이 맨밥을 먹는 혜암에게 그 신자가 물었다.

"스님, 왜 반찬을 먹지 않습니까."

"계란과 멸치에도 불성이 있어 그렇습니다. 또한 마늘은 사람을 사납게 하고 마음을 탁하게 하는 기운이 있어 먹지 않습니다."

"불성이 무엇입니까."

"부처님 성품입니다. 수도인의 자세는 모름지기 도를 닦아 일체중생을 제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불성이 있는 생명을 먹고도 일체중생을 제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혜암은 도시락의 밥도 몇 젓가락 뜨고 말았다. 글자 그대로 마음에 점을 찍듯 점심을 하고 말았다. 도시락을 준 신자가 다시 말을 걸어왔다.

"스님, 어디까지 가십니까."

"오대산 상원사로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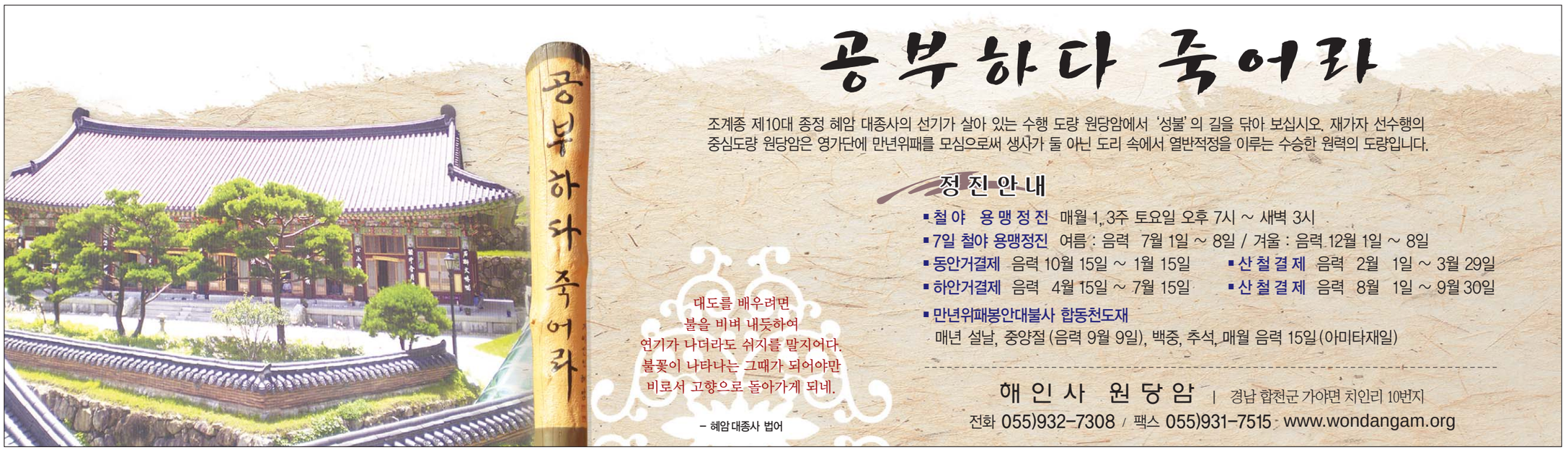
"상원사에는 누가 계십니까."

"한암 큰스님이 계십니다. 허나 그 스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나를 만나는 것이 불교입니다. 불교는 교주나 스승을 만나고자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혜암은 상원사로 하안거 방부를 들이려고 가는 길이었다. 서울까지는 열차로 가지만 상원사 초입인 진부까지는 완행버스를 탈 생각이었다. 화물차 칸은 이제 조용했다. 누구도 찬송가를 부르지 않았다. 혜암은 다시 반가부좌를 틀었다. 차창 밖 들녘은 이른 봄이었다. 꽃이 피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빈 논밭에는 푸른 기운이 돌고 있었다. 농부들이 농사일을 준비하고도 있었다.

혜암은 농사짓는 고향집 가족이 생각났다. 혼자만 출가해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그러나 언젠가 고향집 가족 모두를 출가시켜 그 미안함을 갚겠다고 원을 세웠다. 그런 도력을 가지려면 단 한 순간도 수행을 게을리 할 수는 없었다. 용맹정진하지 않고 나태해진다는 것은 불보살은 물론 가족에게 죄를 짓는 일이었다. 혜암은 다시 효봉 스님에게 탄 무자 화두를 들었다.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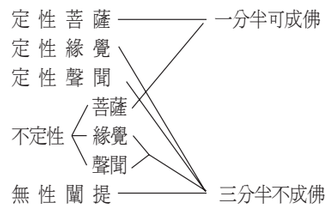


월운 스님에게 듣는 **경전이야기** <17>

훌륭한 제자들이 가르침 전승 주역

(724호 이어서) 이들 양교판(兩敎判) 공히 상위(上位)교상에는 부처와 중생의 차이가 없는데 하위교판에는 반드시 부처와 중생의 차이가 있다고 하였으니, 무슨 까닭인가. 본래 부처뿐이라는 말만 있으면 자고(自高)에 치우치고, 본래 중생뿐이라는 말만 있으면 자굴(自屈)에 치우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상종(相宗)인 유식계(唯識系)에서는 이른바 삼분반불성불(三分半不成佛), 즉 전체중생 오분(五分) 중에 삼분반(三分半)은 성불치 못하니, 성불하기를 바라거든 이 삼분반(三分半)에 머물러있지 말라는 것이다. 여기서는 중생을 크게 세 종류로 나누니 정성(定性)과 부정성(不定性)과 무성(無性)이다. 정성이라 함은 성품이 어느 한 자리에 고정되었다는 뜻이요, 부정성은 그 반대요, 무성은 애당초에 성품이 없다는 뜻이다. 이것을 도표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정성(定性)은 확정되어서 변동이 불가한 상황이니, 성문 연각 보살이 있다.

부정성(不定性)은 가변성이니, 여기에도 삼승(三乘)이 들어있다.

무성(無性)은 불성이 없는 근기니, 일천제(一闡提) 하나뿐이다.

정성보살과 부정성삼성중 보살은 정확히 말하면 삼분의 일이지만 반으로 처서 가성불(可成佛)에 넣었고.

무성천제 일분과 부정성중 연각과 성문은 정확히 말하면 삼분의 이가 되지만 반이라 했다.

대기설(2)

부처님 말씀 믿고 따르는 무리 전체가 '대기'

교단의 상황 변화 따라 '호교 호법논리' 등장

대기(對機)란, 부처님의 설법을 알아듣는 청중을 뜻한다고 제15화에서 말한 바 있거니와 넓은 의미에서는 출가한 이나 재가를 막론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자신이 믿고, 남에게도 선양할 수 있으면 모두가 불법의 주인이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불법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알아들을 가능성이 있으면 그들까지도 모두 미래에 성불할 대기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대기란 말은 그저 자리가 잡힌 불자라는 말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

부처님이 위대하신 이유는 스스로가 난행(難行) 고행(苦行)을 겪으신 끝에 위대한 진리를 깨달으신 그 자체가 거룩하시지만 그 깨달으신 진리가 당대는 물론, 입멸 후 오늘까지도 여법히 전해오게 한 유명무명의 제자님들이신 대기들이 계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에서는 늘 "미래세에 이 법을 끊이지 말고 오래오래 이어지게 하라"고 당부하시는 유촉품(遺囑品), 또는 촉루품(囑累品)이 있고, 혹은 "당래세(當來世)에 이 경을 믿고 받아 지니는 이는 무량한 복을 받으리라"고 권유의 말씀을 내리시기도 하셨다.

이 미래사(未來事)를 당부하시는 일을 유촉이라 하고, 이 유촉을 받들어 행하는 이를 법사(法師)라 하고, 이 법사의 인권(引勸)에 의해 불문에 들어온 우리들을 유교제자(遺敎弟子)라 하니, 우리들은 말세유법(末世遺法)을 잘 지키라는 부촉을 받은 유교대기(遺敎對機)라 할 수 있다.

봉선사 조실

마음에 새겨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성엄 선사의 법어 '마음의 노래' '지극한 도는…' 출간



성엄선사(법고산문예기금회사진 제공).

올 2월 23일 대만의 법고산에서 입적한 성엄(聖嚴) 선사는 1930년 중국 강소성 한 시골마을 출생했다. 13세에 스님이 된 그는 1949년 중국이 공산화 되는 혼란기에 국민당군에 입대해 대만으로 건너갔고 10여 년 간 통신장교로 복무하다가 1960년대 초에 제대하여 다시 불문으로 돌아왔다.

다시 승복을 입은 그는 6년간 대만의 남부 지역에서 폐관(閉關)수행을 하면서 참선과 교학을 닦았다. 우리나라로 치면 무문관 수행을 한 것이다. 그 후 일본 릿쇼(立正)대학에서 불교학을 공부해 석사와 박사가 됐는데 이 기간 일본의 여러 종파를 두루 연구하고 수행을 체험했다. 중국과 대만과 다르게 전해 온 불교를 접한 것이다. 이 기간의 경험이 이후 미국에서의 참선지도에 상당한 도움을 주게 된다.

그가 미국으로 간 것은 1976년이다. 뉴욕에 선 센터를 건립하고 설법 저술 불교단체 조직 등의 활동을 하면서 선칠(禪七)을 이끌었다. 선칠이란 일주일(7일) 단위로 참선수행을 하면서 법문도 병행하는 수행 방법.

이 과정에서 성엄 선사는 매일 소참법문 형식의 설법을 했는데 그 법문들의 내용이 금과옥조다. 미국에서 진행한 선칠법회의 법문이 두 권의 책으로 번역됐다.

<마음의 노래>는 중국 선종의 제4조 도신 선사의 제자 우두법융(牛頭法融 594~657) 선사의 <심명(心銘)>을 성엄 선사가 강설한 것이다. '마음의 성품은 일어나지 않음이나 지견이 무슨 소용 있으리오. 본래 한 법도 없거늘 어찌 가르침과 수련을 논하리오?(心性不生 何須知見 本無一法 誰論熏鍊)'로 시작되는 <심명>은 깨어 있음과 고요함을 동시에 닦아 가는 길을 강조하는 가르침이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는 법융 선사의 할아버지뻘인 3조 승찬(僧璨 ?~606) 선사의 <신심명>과 석두희천(石頭希遷 700~790) 선사의 <참동계>와 동산양개(洞山良价 807~869) 선사의 <보경삼매가>를 함께 실었다. <심심명>은 간화선 수행자들에게 익숙한 가르침이지만, <참동계>와 <보경삼매가>는 조동종의 수행자들이 주목한 선게(禪偈)다.

<마음의 노래>나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는 옛 선사들의 가르침이 성엄 선사를 통해 오늘날의 가르침으로 새 힘을 얻고 있다. 성엄 선사는 옛 선사들의 가르침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자신의 체험과 현대인들의 일상을 예시하며 법문의 자상함을 일관되게 이끌고 있다. 또 화두 참선을 설명하는데 묵조선이나 수식관 등 다양한 수행법들을 동원하고 있는 점도 이해에 큰 도움을 준다.

두 권의 책을 통해 한국의 불자들이 만날 수 있는 성엄 스님이의 법어는 선칠에서의 법문을 즉석에서 영어로 통역한 것을 다시 우리글로 옮긴 것이다. 번역되기까지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친 것 같지만, 두 권의 책은 독자들에게 성엄 스님의 사자후를 그대로 전하고 있다. 선리(禪理)를 떠나지 않고 성엄 스님의 각지(覺知)를 반듯하게 담았다. 이는 옮긴이의 역량과 직결된다. 옮긴이 대성 스님은 이미 허운 선사의 <참선요지>와 <방편개시> 그리고 감산 대사의 <감산자전>을 출간해 스테디셀러를 만들었던 베테랑이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대성 스님 옮김|탐구사 펴냄|각권 1만2000원

'육조단경'의 문 안에서 삶의 활기 찾다



문안의 수행 문밖의 수행

월호 스님 강의|불광출판사 펴냄|1만3900원

쌍계사 승가대학 교수이며 불교방송(BBS)의 '당신이 주인공입니다'를 진행하는 '라디오 스타' 월호 스님. 요즘 불교출판계에 가장 많은 베스트셀러를 내고 있는 스님이 또 한권의 의미 있는 책을 펴냈다. <육조단경> 강의록인 <문 안의 수행 문 밖의 수행>이다.

문이란 어떤 문을 말하는가? 스님은 책의 머리말에서 돈오문(頓悟門)의 안과 밖을 말한다. "여기서의 문은 바로 돈오문을 말합니다. 문 안의 수행은 돈오문 안으로 들어 온 이후의 수행 즉 단박 깨친 이후의 수행을 말하며, 문 밖의 수행은 아직 깨치기 이전의 수행을 말합니다."

<육조단경>의 편찬 경위에 대한 경해 차이가 있긴 하지만 육조 혜능 선사 선사상의 정수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월호 스님은 <육조단경>을 인간에 대한 절대긍정 희망의 메시지란 측면에서 해설하고 있다. 선 수행자들을 위한 지침이라기보다는 살아 있는 모든 생명들이 무한한 가치를 깨우치고 활발한 삶을 영위하도록 힘을 돋워주는 생기발랄한 법문으로 <육조단경>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관점이야말로 옛 조사의 가르침을 오늘의 생활인들이 받아들이는 유연한 통로다.

"사람에게는 남북이 있으나 불성에는 남북이 없다"고 했고 "부처는 자기 성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몸 밖에서 구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움직이는 것은 바람도 깃발도 아닌 그대의 마음"이라고 일갈했던 혜능 선사. 이러한 가르침이야말로 경제 위기에 움츠러들기 쉬운 오늘날의 생활인들에게 커다란 힘을 준다는 것이 월호 스님 강의 포인트다.

임연태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2	부처를 쏴라	현각	김영사
3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문학의 숲
4	세어본 소만 존재한다	월호	운주사
5	깊고 깊은 연꽃 가르침	혜국	사유수
6	광명진언기도법	일타,김현준	효림
7	지금 여기에서 감사하라	성전	개미
8	문 안의 수행 문 밖의 수행	월호	불광출판사
9	답답하면 물어라	법륜	정토
10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라	성전	개미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www.buddhabook.co.kr
인터넷 불교서점 붓 다 북 02)953-7181

말법시대와 나누는
화두이야기
옛부터 조사(祖師)들은 '삶이란 억만겁의 향상로를 가는 것'이며 향상의 여정에서 자기완성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 했다.
– 머리글 중에서 –
말법시대의 「지식」과 「과학」은
온통 중생의 탐진치와 전도망상으로 가득 차 있다.
말법의 온갖 허물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으로 진리로운 삶을 구현해 갈 것인가?
고 목 지음
도서출판 미르아이
신국판 464쪽
₩ 16,000
도서구입처 : 전국 주요서점
연락처 총판 | 운주사 02-3672-7181
저자 | 055-353-6142 010-2356-6142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거제도 총명사 아미타후불탱화

거제도 총명사 신중탱화

거제도 총명사 칠성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6-219-7180/ 011-743-5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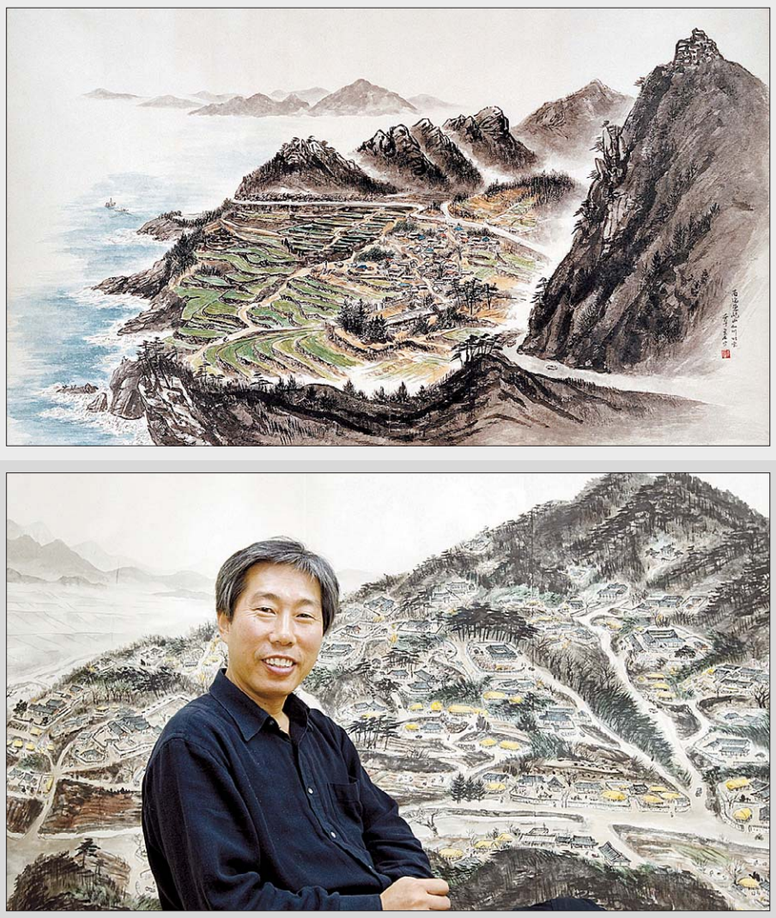
양지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 승무북, 모듬북 · 장고 · 징 · 꽹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삶의 근원과 정체성 찾는 '우리 마을 그림순례'

이호신 화백 4월 16~26일 조선일보미술관서



남해 설흘산 가천마을(한지에 수묵담채 · 사진 위)과 이호신 화백.

"자연과 인간이 만들어낸 유산이 동시에 조화를 이루는 곳, 그런 곳을 그리고 싶어 찾다보니 사찰이나 우리 옛 마을을 그리게 됐습니다."

30여 년간 국내뿐 아니라 인도, 중국, 파키스탄, 일본, 아프리카 탄자니아 등의 산하(山河)를 주유(周遊)하며 사찰과 문화유산 기행, 자연생태 탐사 등의 그림을 그려온 이호신(53) 화백. 그림기행을 통해 삶의 근원과 정체성을 찾는 작업을 계속해 온 이 화백이 2002년부터 이 땅의 50여 마을을 그려온 지 7년만에 '우리 마을 그림순례' 전을 갖는다.

4월 16일 오후 5시부터~26일까지 서울 조선일보미술관에서 열리는 그의 12번째 작품전에는 직접 발품을 팔며 전국의 크고 작은 산과 기암절벽(奇巖絶壁), 그 사이로 감아 도는 물, 그리고 거기에 내려앉은 전통가옥과 사찰을 그린 수묵채색화가 기다리고 있다.

서울 은평구 역촌동 화실에서 만난 이 화백은 "이 땅의 역사와 삶의 숨결이 오롯이 담긴 현장을 체험하고 싶었기에 우리 마을을 '답사'가 아닌 '순례'하는 마음으로 그렸다"며, 각 마을에서 며칠씩 주민들과 어울리며 만든 화첩들을 보여준다.

화첩에는 온몸으로 마을을 경험하고 이를 그때그때 붓으로 스케치한 산과 물, 나무와 건물, 사람 등이 가득 하다. 중요한 주제뿐 아니라 까치밥과 호박, 옥수수와 참깨, 삼신당의 산신상, 쳘불 등 갖가지 이미지가 화폭의 구석구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들을 토대로 화실에서 그림을 완성한 것이다.

이 화백은 마을을 방문할 때는 그곳 이장님이나 오랜 세월 뿌리박고 사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들었다. 잠도 이장 댁이나 마을회관에서 자고, 밥도 주민들의 밥상머리에 함께 앉아 먹었다. 말 그대로 '식구(食口)'가 되어 그들의 일상에 스며들어 그들의 정서를 자연스럽게 흡입했다. 그야말로 작품은 현장의 공기와 음식, 잠자리, 인정이 안료가 되어 그려진 셈이다. 특히 마을 답사는 꼬부랑, 아리랑 산길을 오르는가 하면, 반대편 언덕에 올라 마을 경관을 조망하기까지 부지런한 발걸음에 실려 이뤄졌다.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코로 맡고 귀로 들으며 마을을 총체적으로 이해한 작업이다.

때문에 그의 작품은 마을이 하나의 '장면 상'이 아니라 '전체 상'으로 들어온다. 마을의 실경(實景)이 아니라 진경(眞景)을 그린 것이다. 이에 대해 이주헌 미술평론가는 "이호신의 산과 골짜기, 내, 그리고 마을은 다시점(多視點: 하나의 대상을 여러 시점에서 그리는 것)에 기대 드러낼 것을 드러내고 감출 것을 감춘다"며, 산청 니구산 남사마을 전경을 예로 든다.

"개천이 감아 돌고 산이 옹기종기 들어선 이 구석저 구석에서 대상들이 서로 띄워주고 물러나면서 전체의 얼개와 조화가 또렷이 그리고 풍성히 드러난다. 사진으로 찍어서는 도저히 마을을 이렇게 명료히 포착할 수 없다. 택할 것은 택하고, 버릴 것은 버리며, 시선과 시점의 차이에 따른 대상들의 차이도 유기적으로 이어 본질의 조화를 드러냈기에 가능한 표현이다."

이 그림뿐 아니라 충주 달래강 단월마을에 달이 뜨고 그것이 강에 비치는 모습, 영양 광려산 두들마을이 산 아래 둥지처럼 들어앉아 앞으로 수풀을 드리운 모습, 곡성 지리산 가정마을이 섬진강 자락과 기찻길을 함께 드러내며 드라마틱한 운치를 자아내는 모습도 다시점의 미학만이 보여줄 수 있는 절묘한 대관의 표현이란 설명이다.

이 화백은 "우리 마을 그림순례가 삶의 진원지와 인간 본연의 모습을 돌아보며 국토의 소중함을 깨닫고 공생의 지평속에서 심각한 농촌 현실을 직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02)724-6328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유채화로 표현한 진공묘유의 禪 세계

비공스님 8~14일 갤러리 서호서 '뜰앞의 잣나무' 전



비공 스님의 신작 '뜰앞의 잣나무'. 고정관념과 형식을 초월한 표현행위에서 나오는 산과 해, 나무, 탑 등이 추상화된 그림은 생동하는 공(空)을 표현한다.

"있다고 해도 없다고 해도/ 상관 없는 놈이 본래 있으니/ 어떠한 놈인가/ 조주의 상투를 잡고/ 애걸복걸 하는 그 놈이다."(비공 스님의 시 '주인공2')

공(空) 사상을 재해석한 현대적 선화(禪畵)를 통해 구도행을 펼쳐온 비공(飛空) 스님이 11번째 개인전 '뜰앞의 잣나무'전을 연다. 4월 8~14일 서울 인사동 '갤러리 서호'에서 열리는 전시회에서 스님은 조주 선사의 대표 공안 '뜰앞의 잣나무'를 유채화를 통해 풀어낸다.

불국사 법주사 송광사 봉암사 등에서 10안거를 성만한 수좌 출신의 비공 스님은 '목우행자(牧牛行者)'란 법호처럼 소(불성)를 키우는 작업의 일환으로 그림을 그려왔다. 1981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각종 초대전과 단체전, 특히 환경 및 통일관련 퍼포먼스를 펼치면서 선(禪)의 대중화에 앞장서 왔다. 그동안 문인화를 시작으로 수묵과 아크릴 물감을 혼용하는 평면회화와 철 조각을 거쳐 최근의 유채화 작업에 이르는 다양한 작업은 일체의 격식과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구도자의 몸짓이라 할 수 있다.

예전 처럼, 형식을 초월해 단지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려진 스님의 이번 작품들은 '공(空)'의 표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작품은 삼원색 중심의 원색적인 유화물감을 두텁게 반복적으로 바르다가, 최종적으로는 뾰족한 도구를 이용해 형상을 그려넣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흥겨움이 이끌리는 캔버스 위의 표현행위는 정신집중에 의해 유도됨으로써 자유방임적인 상태를 허용하지는 않지만 자동기술적인 순수하면서도 화려한 이미지를 그려낸다.

비공 스님은 "스케치 형식의 간결한 선으로 그려진 풍경이나 집, 탑, 해, 새, 나무, 인물 따위의 그림은 공(空)을 표현한 것"이라면서 "참된 공은 텅 비거나 적막한 것이 아니라 (비록 허깨비와 같지만) 눈앞에 펼쳐지는 진공묘유(眞空妙有)의 세계"라고 말했다.

이번 작품에 대해 신항섭 미술평론가는 "비공 스님은 격렬한 표현행위 이후에 찾아오는 '비어있는 상태'에서 표현되는 맑은 심상의 세계를 보여준다"면서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은 스님의 작품들은 보이는 사실에 집착하는 현실의 눈을 마음속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다"고 설명했다.

8일 오후 4시 30분 전시회 개막식에서는 비공 스님의 그림작업 퍼포먼스도 펼쳐진다. (02)723-1864

김성우 기자

복장의식, 만인성불의 퍼포먼스로 재현

선진 스님 '원(願)'전 10~19일 불일미술관서



4월 10일 오전 오후 6시 30분. 서울 불일미술관에서는 이색 전시회가 열린다. '옴마니반메훔' 10만 장 서사원력을 성취하고 법철 스님의 복장(腹藏)의식을 전수받은 선진 스님(대구 보현암 주지 · 사진)의 다섯 번째 전시회인 '원(願)'전이 바로 그것.

선진 스님은 이날 오프닝 퍼포먼스를 통해 벽면에 만다라로 장엄한 전시장 전체를 부처님 몸으로 삼아 복장의식을 미술적으로 표현한다. 스님은 검정 아크릴판 상단에 다양한 복장물을 담은 후령통을 32개 설치하고, 관람객 중 무작위로 32인을 지정해 호롱 점화행사에 동참시킨다.

검정 아크릴이 무명(無明)의 중생을 상징한다면, 32란 숫자는 관세음보살의 32응신을 뜻한다. 터키안 블루로 때깔 있게 녹이 슨 후령통이 끈으로 둘둘 묶여있는 것은 중생이 소유한 '은복(隱腹: 내면에 잠재된)의 여래장(如來藏)'을 암시한다. 스님은 설치작품을 통해 일체중생의 내면에 지혜의 등불을 켜는 만인성불(萬人成佛)의 퍼포먼스를 시도하는 것이다.

또 전시장 한켠에는 실크스크린의 진언그림들이 눈에 띈다. 부처님 얼굴이 튀어나오는가 하면 보살들이 웃고 있는 진언그림들은 단아하면서도 탈속한 미소로 낱낱이 살아숨쉬는 듯 하다. 특히 성스러운 범자진언(梵字眞言) 위에 오색 물감을 탁한 터치로 처리한 것은 성속(聖俗)을 융회하고 깨달음과 무명의 세계를 자유로이 넘나드는 불이(不二)의 세계를 표현한다.

이번 전시에 대해 원광대 정순일 동양학대학원장은 "엄숙한 복장의식의 격식을 탈피해 '판을 깨는 전시회'로 기획한 것은 살불살조(殺佛殺祖)의 기상이 흐른다"면서 "진언행자인 스님의 불복장 작업은 자신의 내면으로 빛을 돌이켜 불성을 확인하고 그 부처와의 대화를 실현하는 작업"이라고 평했다. 전시는 19일까지 이어진다. (02)733-5322

김성우 기자

사패산 의정부 극락사
최소 비용으로 천도재를 봉행하여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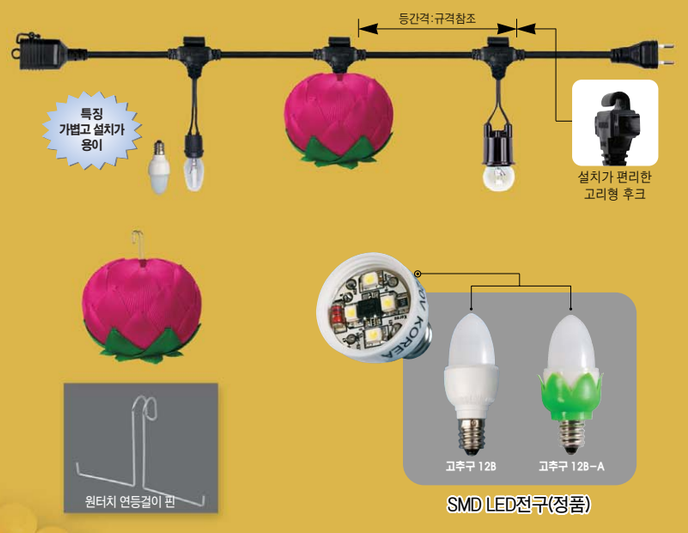


극락사는 중생의 고통을 자비로 섭수하시는 부처님의 교화도량입니다.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자 최소의 비용(관욕비)로 봉행하오니 사부대중은 두루 동참하시어 조상님의 극락왕생과 소원성취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 불교식 임종, 입관, 발인, 하관
- 49재, 백일재 기도, 영가 천도재, 기제사 외
- 수능기도, 생일기도, 안택기도 접수 봉행 중
- 중생들의 삶에 대한 고민상담 (매주 금. 토 오전 10시-3시까지)
- 4월 방생 안내 (간월암)
4월 25일 토요일 오전 8시 출발
많은 동참 바랍니다.

사패산 의정부 극락사
(의정부 예술의 전당 맞은편 동양빌딩 6,7층)
전화 : 031)836-0477 / 010-4111-7523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LED전구(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반도체로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종류: 3W, 5W, 10W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정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함영의 **밥맛 나는 세상**

22 밥은 행복

황학동에서 즐기는 봄날의 만찬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라는 계절과, '오후'라는 시간대가 주는 여유로움만으로도 괜스레 설레는 토요일 오후, 우리는 자유로를 달리고 있었다. 차창으로 비쳐오는 햇살이 짜증이 날 만큼 눈이 부셔 심술이 날 지경이다.

지구가 만들어진 46억년 전 이래 우리는 우울과 불안으로 진화해왔다는 '존재'의 심오한 역사와 가치를 귀가 따갑도록 외쳐대던 정신분석학 박사 윤 삼촌도 저놈의 봄 햇살에는 진작에 압도돼 단잠이 폭 들어버렸다.

"아유, 저 예쁜 애기들좀 봐봐. 그런데 저기를 다시 개발하면 어쩌자는 거야. 저 가여운 것들은 어디로 가라고."



해장에 좋은 매생이 국밥.

자유로 옆으로 펼쳐진 철새도래지에 이르렀을 때, 동물애호가보다 더한 애호가인 명숙언니가 걱정 어린 푸념을 한다.

"쟤네들은 알아서 다 잘사니까 쓸데없는 걱정 좀 하지 마."

명숙언니의 하릴없는 걱정에 낮잠에서 깨어난 삼촌이 토를 단다. 이런저런 수다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차는 목적지인 황학동에 도착했다. 여자는 봄을 타고 남자는 가을을 탄다는데, 윤삼촌은 확실히 특이한 남자다. 매주 주말과 휴일에 이곳 황학동에만 오면 봄이고 가을이고 센티한 감정이 일어날 새도 없을 테니 말이다. 500원짜리 커피 한잔을 팔기위해 옷자락을 끄잡아 당기는 할머니에게서, 또 낮술에 취해 "너희들이 인생을 알아?"라며 삿대질을 해대는 취객에게서 삶의 생동을 느낀다는 게 삼촌이 황학동에 '환장하는' 이유란다. 말하자면 황학동은 삼촌에게 그 어느 곳보다도 생생한 삶의 철학과 감동이 깃들어진 곳이요, 인간이면 46억년을 거슬러 올라 숙명으로 타고나는 우울과 불안을 치유하는 장소인 것이다.

금강경도 식후경이라, 황학동을 둘러보기 전에 삼촌의 단골집이라는 국밥집에 들러 매생이국밥을 먹기로 했다. 대로변에 위치한 국밥집은 삼촌의 말마따나 손님들로 붐볐다. 해장에는 매생이국만한 게 없다고 재차 강조하는 것을 보니 삼촌이 요사이 술을 과하게 마신 모양이다.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매생이와 굴을 함께 넣고 끓인 매생이굴국밥 세 그릇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궁금증을 참지 못해 옆 테이블을 넘실거려본다. 잠시 후 뚝배기에서 파래보다도 미세한 매생이가 굴과 두부와 함께 보글보글 끓고 있는 매생이국밥이 나왔다. 나는 이름만 두어 번 들어본 터인데, 연륜이 한참 앞선 삼촌과 명숙언니는 한 수저 한 수저를 뜰 때마다 매생이 특유의 시원한 맛과 향에 감동하며 고향음식을 대하듯 한다.

"국도 국이지만 부추 겉절이가 끝내주네."

"요즘 올라오는 어린 부추는 약이라니까 약. 매생이도 부추도 지금이 제철이잖아."

삼촌과 언니는 매생이 국밥에 곁들여 나온 부추 겉절이에 필이 꽂혀 세 접시를 금세 바닥내고도 모자라 옆 테이블의 손님들이 남기고 간 것까지 슬그머니 가져와 동을 내고야만다. 두 사람의 감동이 내게도 전이돼 그 맛도 제대로 모른 채 부지런히 따라 먹고나니, 배 속은 그 느낌을 아는 듯 이내 편안하고 시원하다.

뜨끈하게 불러온 배를 뿌듯해하며 드디어 시장구경에 나섰다. 낡은 시계에 옷가지며 신발, 가방, 그림이며 골동품이 돼버린 타자기에 전화기, 글자가 겨우 찍힐 법한 노트북까지 세상의 오만 물건들은 다나와 바닥에 널브러져있다. 황학동에서는 모든 것이 팔 거리 살거리가 되어, 심지어 어떤 아줌마는 낡은 목걸이 두어 개와 장식용 반지 한 개를 달랑 펼쳐놓고는 팔짱을 끼고 흥정을 기다린다.

수년째 황학동에 도장을 찍은 삼촌은 곳곳의 장사꾼들이 이웃사촌에 사돈에 팔촌지간이 돼 발길을 찍는 곳마다 인사를 나누느라 바쁘다. "이집도 내 단골인데, 여기서 후식이나 잠깐 하고 할까?"라며 호떡과 커피를 파는 노점 앞에서 멈춰 선다. 채 꺼지지도 않은 배가 달콤한 꿀호떡의 유혹을 참지 못해 결국은 호떡 한 개와 커피 한잔을 세 사람이 돌려먹기로 했다.

"주인언니야, 잘 있었나? 그새 몰라보게 예뻐졌네. 오늘은 일행들하고 같이 왔는데 소개할게. 여기는 내 마누라고 저쪽은 내 부인이야."

호떡집 주인언니에게 건네는 삼촌의 짓궂은 안부인사에 모두가 웃음보가 터지고, 호떡에서 삐져나온 뜨거운 설탕에 입이 데여 오두방정도 떨어본다. 따사롭게 쏟아지는 봄 햇살과 사람사는 냄새가 물씬 나는 황학동 한가운데서 우리의 봄날 오후는 그렇게 행복했다.

자유기고가, blog.naver.com/owisdom

행복한 삶을 위한, 선과 禪 심신건강 心身健康

28 사랑 감정

박지숙 박사 한·양방 의료센터 salm 마인드힐링연구소

사랑하는 사람은 왜 다시 만나고 싶은가?

연애를 하거나 사랑에 빠지게 되면 금방 만났다 헤어져도 바로 다시 그가 그녀가 생각나고,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하고, 눈에 맴돌면서 아른거려 다른 아무 일이 집중이 안되곤 한다.

또 한가지의 특징은 나이에 비해 십대처럼 들뜨게 되고 다들 소년 소녀가 돼 풍부한 감수성과 감정의 흔란도 겪게 되며, 육체적으로도 열정에 들떠 한층 업된 컨디션과 젊은 에너지가 생기게 된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서 사랑에 불을 붙게 만들며 젊은 에너지를 제공하게 되는가?

#사람의 뇌에는 세 개의 뇌가 있다.

가장 원시적이면서 동물적인 본능을 움직이며, 모든 척수동물이 가지고 있는 대뇌기저핵과 뇌간, 공포, 분노, 애정, 기쁨, 슬픔 등의 감정을 담당하는 대뇌변연계 그리고 의지, 조절, 이성, 사고 등을 담당하는 대뇌신피질이다.

애정이나 사랑하는 마음은 감정을 담당하는 대뇌변연계와 그 감정을 조절하는 대뇌신피질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랑하는 마음과 애정의 원동력은 대뇌변연계이지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은 그 중에서도 편도핵이라는 부분에서 '좋고 싫음'을 구별한다.

이렇게 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얻게 되는 유쾌한 기분이나 즐거움 등의 감정은 우리의 기억에 새겨지게 되는데, 일단 그 감정을 느끼고 알고 기억하게 되면 다시 그 감정을 맛보고 싶어져서 사람은 어떤 행동을 일으켜 그 감정을 계속적으로 맛보고자 한다.

이러한 것을 뇌과학에서는 '보상행동'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맛있는 음식을 먹은 식당이 있다고 하면 그곳이 다소 비싸고 거리가 멀더라도 후에 다시 돈과 시간을 지불하고 그곳에 찾아가서 그 맛을 느끼고자 하는 행동들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보상행동 때문에 '또 만나자'라는 데이트 약속을 청하게 되는 것이다. 애정이 넘치고 있는 상대를 다시 만나서 즐거운 기분과 떨리는 그 감정을 다시금 맛보고 싶고 느끼고 싶기 때문이다.

#사랑을 하면 왜 젊어지고 건강해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불타는 사랑, 다시 또 보고 싶은 마음, 넘치는 애정, 새로운 사랑에 대한 갈구 이 모든 것이 뇌에서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사랑하기에 두근거리고, 눈빛은 빛나게 되며 심장은 쿵쾅거리고 만나고 싶어서 애가 탄다. 격렬하거나 허락되지 않는 사랑이라면 그 정도는 더 심해지게 되어있다. 그것은 명백한 마음의 세계이다. 이 마음의 세계가 이리 활발하게 요동치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의 뇌도 그만큼 활성화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우리의 뇌가 활성화가 되면 당연히 육체적으로 유익한 호르몬의 분비와 작용이 폭발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연애를 하거나, 사랑을 하게 되면 호기심이나 의욕, 관심 등이 왕성하게 되고 이러한 자극들로 인해 뇌는 더욱 활성화가 되고 그 결과 심신이 건강해지고 젊어지게 된다.

즉 사랑은 뇌를 자극하고 뇌가 촉진되면 인간은 젊어지고 행복해진다.

(02)576 -7575



능인향당 이완로 처사의 침향 이야기 24

침향은 그 가치만큼이나 가짜침향 많아

침향의 진위를 가리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 주된 이유로는 침향의 아종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침향의 학명인 아퀼라리아종에는 약성과 향이 있는 진정한 침향인 AAR외에도 AML(Aquilaria Malaccensis Lamk)과 중국 남부의 침향인 백목향(아퀼라리아 시넨시스 Aquilaria sinensis) 등 12가지 이상의 아종이 있다. 이 아종들은 서로 다른 식생의 지역적인 차이로 인해 전혀 다른 특성들을 지니는 별개의 품질로 침향과는 상이하게 구분된다.



베트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침의 종류.

예를 들자면 AAR 중에서도 캄보디아 산이나 라오스산 침향은 침향으로의 약성은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일본에서 흔히 쓰는 '가라' 또는 '카라' 라고 부르는 침향 또한 진정한 의미의 침향과는 거리가 있다. 잣을 얻고자 하면 잣나무를 찾으면 되는 것인데 같은 구과라고 소나무에서 잣을 얻을 수는 없는 일이다. 또한 위록지마(謂鹿之馬)격으로 서로 침향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작금의 일은 소나무에서 잣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이야기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각자 고유 특성이 있고 그것은 각자 자기만의 가치를 지니으로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아종들을 뭉뚱그려 침향이라 이름 붙이는 것은 그 이면에 침향의 이름을 붙임으로써 얻어지는 부가가치가 워낙 높은 데서 오는 헛된 기대치의 산물이 아닐까.

그러나 많은 일반인들은 이러한 부분에 혼동과 함께 많은 착오를 겪게 되고, 또 이로 인해 생기는 불이익과 부작용 또한 상당한 편이다.

따라서 필자는 우선 우리가 베트남에 가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침향 제품 중 제일 많은 피해를 주는 가짜침향(가품)을 사진을 통해 단계별로 공개 하려고 한다.

필자의 회사인 능인향당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필자가 내놓는 150종류가 넘는 엄청난 양의 가품 많이 놀라는데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필자 본인도 이 가품들을 진정 원해서 구입한 것은 아니다. 그동안 진정한 침향을 찾아다니며 얻어진 비싼 수업료의 댓가라고 해야 할까? 간단하지만 이 부분만 알아도 독자들께서 거금을 들이고도 가품을 구입해 속상해하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 공들인 필자의 우매한 노고도 헛된 것만은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

(02)3663-6777



정성근 거사의 **천년초 이야기** 2

사상체질 따라 민간요법 이어져

민간의 요법과 체험으로 터득된 섭생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저 오랜 세월을 거쳐 내려온 민간의 이야기들이며, 오늘날 한국에서는 의료전문인 자격증제도에 의해 병에 대한 치료를 허락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요법을 체험해본 사람들이라면 이 또한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건강을 논하고자 한다면 우선 '사람이 어떻게 신체를 유지하는가?'에 대한 균형적인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러한 사건의 한 예로 어렸을 때 겪었던 사례를 들어본다.

필자는 태어나서 1년 만에 폐렴을 앓았고 이후 기관지염증과 감기가 오면 호흡기 전반이 감염됐다. 염증의 전이로 인한 폐렴을 막기 위해 단순한 감기에도 입원해 링거액에 항생제를 넣고 투여해야 겨우 잡아내는 일명 염증에 약한 염돌이였다. 감기에 편도선염은 기본이요, 이런 체질이다보니 초등학교 때 이미 맹장염으로 수술했고 이후 맹장의 면역관리 능력이 없어지니 수시로 찾아오는 장염과 A형 간염에 시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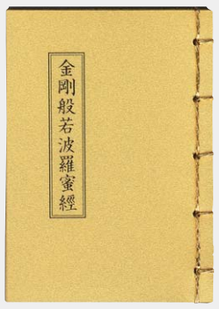
건강식품과 민간요법을 추구하는 연구자들은 이 현상을 체질의 문제로 보고 있다. 체질이란 무엇인가? 이제마 선생 이후 사상의학으로 많이 회자되는 사상체질 즉, 타고난 것인가? 4가지 체질 중에 하나의 체질을 타고 나서 어차피 그렇게 살아야한다 등의 이런 지식이 많이 알려졌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떠한 체질을 갖는다는 것은 하늘의 운이나 천기의 문제가 아닌 부모의 섭생과 생활환경이 거의 지배적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전적 형질과 어머니의 체질, 영양상태가 사실 대부분 영향을 준다. 우리 조상들은 아이를 잉태하는 여인을 밭으로 비유하기도 했다.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를 씨를 심는다는 표현으로 농사에 비유했고 대자연의 기초식품으로 만물이 의지하는 식물의 탄생에 잉태를 비유했다.

천년초를 태삼(太蔘)으로 명명한 조상들은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으며, 이름 속에 아이가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신체의 건강과 그렇지 못함을 담았다. 아이는 어머니의 태속에서 정신적, 신체적 성장의 초기 그리고 거의 대부분을 완성한다. 즉어머니가 먹는 음식이 곧 어머니와 아이의 몸이 되는 것이고 어머니가 듣고 보고 만지는 오감을 통한 정보가 어머니의 정신 · 감성적 특징이 되듯 아이에게도 그대로 전달된다.

(02)780-0098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소장용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 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작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앓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1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대한불교 대승선교 조계종
※위종단은 비구니(여승)종단 입니다
- 비구니 종단 등록
- 사찰 등록
- 비구니스님이 되고저 원하시는분

연락처 010-2606-5121

전통사찰 등록
문 화 재 등록
법 인 등록
"비법인 설립"
(서 류 대 행)
성 산 개 발
011-9476-9001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예수재전문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학개인지도
한문과 용신격국 몰라도 물상으로 철학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짧은 시일내에 실제감정위주로 신수와 영가탈 배워 천도재 지낼 수 있도록 강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입제·회향),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구병시식, 각종불공(바라, 승무춤)
010-2200-8176

화두방생의(1박2일기적)
2009년 4월 15일 부터 선착순 매일 접수
호텔합숙,선식,바루공양,축원비2만원
전철온양행 하차→도고온천시내버스 로얄호텔앞
농협 465-02-403194 (이중남),선납접수
온천-두뇌요가-방생천도재를 동참
단독 천도재는 토요일, 평일 천도재는 축원비 동참으로
041)541-0533 도고온천 맑은 샘

보 살 선 방
- 1인1실 : 방1, 주방, 거실, 욕실 / 방1, 주방, 욕실
- 부부실 : 방2, 주방, 거실, 욕실

절에서 수양하며 기도하고 불교공부하면서 노년을 보내실분
(일부시주금 내시고 종신재)
불광사 · 불광대학
053)656-6766

명 리 보 감
최고의 사주CD
- 정확한 용신
- 정확한 만세력

www.goodcycle.com
네이버에서 "명리보감"으로 검색.
(02) 3472-5933
명리보감 역학연구소

소원성취기도
대학입시, 사업성공, 스트레스 우울증,변비,각종 집안 우환,아들딸 액운소멸
※가정방문기도와 상담도 합니다※
봉사활동 및 포교활동 하실 분
노후생활 회향을 잘 하실 분
지장경 테이프를 드립니다. 상담환영
010-7797-4355/016-787-3977
꿈바위 불교교육원
010-6789-5008

출가(여女) 수행자 구함
일년 공부 후 사찰을 책임 운영 할 수 있는 성실한 여(女)출가를 원하는 수행자 구함
▷부산근교
010-2599-6020

전통 불교 범음범패 전수원
기초반,중급반,고급반,전문반 (전문의산소리,사물다루는법, 불교 전통무용, 각정 제의식)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실전위주로 여법하게 행사할수있도록 지도해 드립니다
051)555-0969
011-849-0961

빙의,49재,태중영가
알콜중독,우울증,자녀문제
묘터장애,사업부진,장기수양,기도
*SBS 등 TV 다수출현
부처골 지장선원
www.jijangsw.com
054)383-8553
011-9585-4908

대한불교도서관건립 불사
불법승 삼보님께 귀의하옵고, 불자님들의 가내에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佛書의 典當 대한불교도서관 건립에 뜻있는 불자님들의 선근인연을 기다립니다
헌책도 대 환영합니다
대한불교도서관추진위원회
010-2002-6332

우주大광명 천기(氣)도법
- 병원치료도 잘 안되고 몸이 아파 고생하시는분
- 가정불화, 질병, 우환 등 하는일이 잘 안되는분
- 조상천도가 잘 안되거나 천상으로 보내고 싶은분
- 빙의, 영적장애, 정신질환, 유전성질병, 불임여성
- 기도수행, 불법공부를 많이 하시는분

※참나를 찾아 잘살고 사후천상세계 갈수있음.
031)321-9555 일광사
011-586-6091

염불,불공해드립니다
영남 전통 범음범패 소리로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각종 사찰행사
016-238-6215
선 연 화

오십대 비구스님 (법납 25년차) 영통 및 사주역학 통달 각종 예불 및 천도재 가능 법문, 친견상담 및 사찰운영 맡기실 도량 연락바랍니다
010-3189-3420

부처님 진신사리 모신 절입니다
적은 시주로 남은 생 부처님께 의탁하여 사실분, 공부 하실분,스님 되실분
기도성취도량
010-9367-5982

30, 40, 50대 비구니스님 구합니다
▷문의내용은 전화상담 노비구니스님도 연락하십시오
010-9219-7695

서울 도심에 위치한 조계종 사찰입니다
참신한 40~50대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9591-0108
(사무장)

되는 이는 물에빠졌다 나와도 이 주머니에는 잉어가, 저주머니에는 붕어가.. 들어있는데 될때는 뭘해도 되고, 안될때는 뭘해도 안돼... 사주를 보아 원인과 때를 알고 적성을 찾으면 길이 보여...
영축산 토방에서 무불 합장
011-854-8107
(예약상담)

공양주 보살님 모 십 니 다
(60대 초반)
▷ 경남 진해시
055)545-7116
011-577-4705

기도 수행정진 하면서 귀농을 하고자 하는 수행자를 모집합니다. 종무소 근무 할 불심이 강한 여 직원(PC가능자) 구함
숙식 제공,출퇴근가능
▷경북 군위면
054)383-0407
010-2750-4394

공양주 보살님 모 십 니 다
(경주 보광사)
010-5353-4154
054)744-1008

공양주 보살님 모 십 니 다
(50 – 65대)
보시금 상담후 결정
010-3188-5103

비구니기도스님 모십니다
011-9350-3216

법당보살 모십니다
(경험자)
사무원 모십니다
▷대구 (개원사)
053)981-0995
016-400-0664

공양주 보살님 모 십 니 다
▷경북 경주 남산 백운암
054)748-3530
010-5872-3233

미국(L.A.)에서 수행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외국비자 있는 스님에 한함
010-4469-7227

조용한 암자에서 공양주 보살님과 처사님(1종면허소지자) 모십니다
055)863-4143
011-392-6885

동양구운 마늘환
- 강한 면역력 증가
- 수족 냉증에 탁원한 효과
- 스테미너,만성피로 해결

080-365-3654 (동양물산)
www.gk24.co.kr

한국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3월 동시모집
▶ 저렴한 학비, 실속 있는 불교대학! 조계종 인가 신도전문교육기관!
- 화요일 오전반, 목요일 오전반, 목요일 저녁반 / 주1회 공부
- 학력 · 연령 제한없이 누구든 입학가능!
- 會主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입학하시는 분들께 "기도의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불교대학"을 치세요.
※ 입학문의 ☎ 053)474-8228
행자 (예비스님) 모집 ☎ 010-2488-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건강을 위하여 참숯 · 메밀을 가입한
푸른대나무베개 | 대나무 베개
공기정화 / 공해방지 / 세균소독으로
시원하게 단잠을 주무시고 청정한 수행을 축원합니다
푸른 대나무 베개 단돈 1만원에 택배 해드립니다
문의 051)254-8812 부산시 서구 암남동 산 56번지
온라인 우체국 510073-02-033990 김기택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상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 종 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 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역 학 공 부
- 사주초급 : 토요반 모집 (정도형 선생)
- 사주 중급 : 월요반 3월 23일 18:30 개강 (이선종 선생)
- 전문가반 : 매주 금요일 18:30 (이선종 선생)

위 수강생은 관상, 주역 강의(화요일)를 무료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동영상 강의 : www. kbs.cc
- 사주 전 과정 45만원부터, 풍수 관상 육효 자미두수 수상 등

월 간 역 학 교 육 원 1688-1137

28숙기도 (대방등 대집경)
- 어떻한 소망도 28숙 기도로 다 이루어집니다
- 위치 : 백선사 절 (지하철 1호선 부천역 하차)

☎ 032)664-0048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
문의 051) 867-8438
진각 심리상담 아카데미
"鬱"막힐 울, 답답할 울, 성낼 울, 걱정할 울, 원망할 울.
우울이란 마음이며, 마음을 다스리는 행복한 마음을, 상담이나 최면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부산시청 뒤 거제리청과시장에서 양정쪽 150m 삼화탕 앞 송광정사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신청하세요. 여자에 한함
명리학(사주첩경) 이석영 통달. 수월정사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천도 기도 떡 복용 완치
황토사는 원인모를 통증 · 질병 · 변비 · 아토피 · 비만 등 치료중
경북 안동시 길안면 묵계 2리
문의전화 011-9585-0383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STT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통증 및 마비 종합 치료편 탄생!!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이외에 600여종으로 병원에 치료가 불가능하였던 종목 수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75,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백초귀장술 전수생모집
찾아 온 시간만으로 왜왔는지, 상대방 마음을 알 수 있는 래정비법 공개!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 절에 찾아오는 신도들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현재에 당면한 일, 매매가 될지 안 될지,
금전이 구해지겠는지, 어려운지,
소송에 이기겠는가 지겠는가,
시험에 붙겠는지 떨어지겠는가,
취업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사업이 잘 되겠는가 그만 둬야하는가

현재 일어날 상황의 길흉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명쾌한 해결점을 답변할 수 있어야 포교가 원활합니다.
그리고 매사가 꼬이고, 불행한 일이 왜 일어나는지, 어느 조상이 탈이 나서 방해하는 것인지, 어느 조상천도재를 지내줘야 하는지 등을 한눈에 짚어낼 수 있는 비법은 백초귀장술로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수강등록시 교재무료제공 | 저자 백초스님 직강

1:1 강의
지방에 계신분들을 위한
1일(8시간) 속성반 인기 교육중
(필히 예약가능)
백초율력학당 02)3667-4446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148-1 영등포역앞



사 군 자 떡
나눔과 자비의 정신으로 정진하겠습니다
불단용, 제사용, 법회용, 개인 행사용
모든 떡을 정성을 다해 만들겠습니다
모든 떡 일체 문의 : 사군자 떡
경기 의정부시 제일시장 다동 2호
031)843-3372 / 017-302-3372 일심행 합장

드디어 우리 활인천역자의 친견 임상 실기用 활용서 CD가 名品으로 최종 완결 되어 절찬리 판매 교환 中 입니다

"특히, 매일 매 시간별로 왜 왔는가? 어떤 정황인가? 어떤 수법이 필요한가? 일이 되는가, 안되는가? 장차 좋은가, 나쁜가?는 물론, 작사귀 · 병귀 · 부정빌미 · 산소탈침범여부와 그 해소 방법 및 각종 수법효과 유무 까지 미리알고 먼저 말할 수 있게 한 것은 육임학의 고등차원의 백미로서, 「적중도」와「효과성」을 동시에 보장시킨 이처럼의 상세한 전문가용 형이상법 책과 CD프로그램은 본「효사 것」밖에 없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 효사 활인천역집 Ⅰ·Ⅱ·Ⅲ 에 이어 탄생된 이 시대 최고의 우리 活人天役者 用 CD프로그램 "완결판" 입니다.

효사활인천역집 CD완결판
정가 450만원 · 교환 70만원
효사육임산책(09 신간) /육임1년신수비결(09 증보판)/효사육임사주감정법(활용편)/육임대계전서(09 휴대용개정판)/도사에게물어봐(09 보정판)/출산길일길시택일비법(09 개정판)/성명학/월영도/효사숙사주/부적보감/동의보감/육임풍수/육임길흉성부단정법/육임래정비법(09 개정판 좌정 · 휴대용) 등 14종이 종합 장착되어 있고, 위 각 분개(分個) CD프로그램으로도 판매하며, 위 각 활용서, 위 각 CD와, 학습총서「효사육임강론」上 · 下(09 7판본 완결판)을 권해드립니다.

–「육임래정비법」시리즈 (육임래정비법 1권 / 6권 –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12권 · 육임래정비법혁신판수정보완본 12권 · 육임대계전서 60권 · 효사육임복변집 60권)에 이은 "최종판" 입니다.

효 사 육 임 산 책
정가 250만원 · 교환 90만원 · 부록 · 부연CD · 1800쪽(분할)

맞춤 권수선택 : 60갑자 60일치 1권 • 60갑자 각 순별6권 • 60갑자 매일 60권 中
맞춤 크기선택 : A5휴대용 • A4 좌정용 • A3 노안용 中

『지난 2000년도 이래 꾸준히 진화시켜온 저 고복자 효사의 위 각 육임활용서 · 학습서 · CD프로그램 들을 2009년 1월 현재 모두 개정 · 개편 · 증보 · 합산 · 교열 · 교정하여「최종판」과「완결판」으로 재간행하였음을 전국 현인 · 기사 · 이인 제위께 알려 드립니다』

한 국 육 임 학 회 총재 고복자 효사
대표전화 051)908-8683 담당 진민경 www.taotemple.net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주)현대불교신문사
- TEL 02)732-1522(直) / FAX 02)737-0696
  ※팩스 위주로 접수 받습니다.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접수. 다음주 금요일 게재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 강릉지역
- 법당 : 25평(목조)
- 요사 : 60평
- 부지 : 270평
- 가액 : 4억

- 위치 : 부산
- 법당 : 20평
- 요사 : 30평
- 부지 : 120평
- 가액 : 4억

- 위치 : 부산
- 법당 : 50평
- 요사 : 100평
- 부지 : 135평
- 가액 : 12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대 가람터 (금광동굴 6개)
- 부지 총 평수 : 8만 6천평
- 가용면적 4만여평 평지 • 4만평 개발(약초재배)
- 위치 : 지리산 남쪽 끝자락 단성근처 집현산 금장사
- 금광 및 황철동굴 6개(옛 금맥광산)
- 산세 및 주변 풍광 최고, 계곡 및 저수지(3만평)
- 버스진입 도로 접. 20번 국도에서 3.5km
- 평당 1만원

부산 바다전망 좋은 절
- 총 대지 : 약 2,700평
- 법당 약 50평, 산신각
- 요사채 20평+10평+10평
- 바다전망 최고, 사찰 뒷편 산
- 텃밭 300평, 뉴타운 개발지역
- 양도가 9억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 시내 및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사찰안내

- 위치 : 부산
- 평수 : 150평
- 요사채 4동, 산신각 1평
  종각 1동, 노천, 관음
- 가액 : 6억 5천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기장
- 평수 : 30평
- 보증금 1000만원 / 월 20만원
  시설비 1300만원
- 방2, 삼존불, 소불50불 외
  모든시설완비

영주불사 010-9798-1091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영월
- 부지 : 1200평
- 건물 5동, 심야보일러
- 가액 : 1억7천만원

033)372-6494
010-4197-9195

사찰 및 암자터 안내

- 위치 : 경남 공주시 정안면
  차령산 줄기안에 상류
- 1700평
- 가액 : 평당 5만5천원

010-4130-0606
(주인직접)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성서 신도시
- 평수 : 중심지 시장옆 2층 6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80만원,
  시설비 협의 가능
  모든시설 완비 현재 운영중

018-506-4059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
- 대지 96평, 건물 200평
- 도심 현대식 4층 건물
- 가액 : 10억
  (은행 3억 융자 7억 인수 가능)

011-860-122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가야산
  해인사 부근
- 부지 : 754평
- 대웅전 20평 조립식 건물
  (삼존불과 약사불 칠성탱화
  신중탱화)
- 요사채 45평
  (나무 기름 겸용 보일러설치)
- 가액 : 1억 9천 5백만원

010-6835-7370

토 굴 안 내

- 위치 : 경기 양평
- 대지 : 205평, 건물 56평
  (1층 33평, 2층 23평)
- 찜질방 有, 종교시설
- 신축 황토 목조 기와지붕,
  비산계곡접, 단독토굴, 동남향
- 비구니스님수행 도량으로 적합
- 가액 : 4억 3천만원

031)775-2334

사 찰 안 내 (포 교 당)

- 위치 : 광명시
- 평수 : 35평(시설일체완비)
- 가액 : 2천만원에 월 50만원
※전국 사찰 부지등 양도 양수 하실분 전화 상담하여 드립니다

02)6674-3535
010-3154-3535
한국불사

부산대사찰급안내

20년된 벚꽃나무 50종있습니다
- 기와법당1동, 기와요사3동
  명부전1동,산신각1동,종각1
  화장실2동,창고 2동,석불,
  약사여래불 15층, 용왕당
- 지하수, 산수도 사용
  절내 주차시설 15대기능
  심야보일러 사용
- 대지 780평, 가액 11억5천만원

011-563-1545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북 영동 시내
- 대지 57평, 법당18평(독립채),
  요사20평(심야보일러)
- 시내 중심가 큰 길변
- 가액 : 2억(절충가. 1억4천5백)
- 스님 사정상(유학) 급 양도

010-7325-1259

토 굴 안 내

- 위치 : 밀양시 상남면 남산리
- 대지 : 49평
- 방2, 마루, 부엌, 목욕탕,
  걸망풀고 쉴 수 있는 곳
- 가액 : 2천 5백만원

010-2047-8376
010-9247-2488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여수 돌산
- 대지 : 250평
- 대웅전(목조)25평
- 산신각, 요사채 각1동
- 가액 : 2억5천만원

011-9765-5302

도심빌딩속포교원

- 위치 : 경남 창원
- 평수 : 72평
- 모든시설완벽
- 가액 : 1억 8천만원

010-7188-7723

태백산 산좋고 물좋은 대사찰터안내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내리
  계곡 유원지 앞
- 연꽃 속에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이며 남향 좌우백호가
  뚜렷하고 양쪽 계곡에 물이
  흐르고 전기, 수도, 전화, 도로,
  수백톤 자연돌과 조경이 잘 돼있음
- 관리지역 : 대지 200평, 건물 40평
- 전 4,410평, 총 4,610평
- 가액 : 7억5천(이민관계로 급안내)

018-223-2101 주인직접

신도시 부근 사찰

- 위치 : 경기 북부 시내중심가에서 도보로
  15분거리 노송 우거진 풍치수려한 절
- 평수 : 680평(반영구적 사용가능한
  실사용 평수 1000평 이상)
- 건물 : 대웅전 20평, 요사채 2동
  (약 100평, 30평) 창고 2동, 시설좋음
- 교통편 : 매우 양호. 절에서
  도보 30분거리 전철역 개통예정
  잠실과 강북에서 차로 30분거리
- 장점 : 시내중심가이면서도 깊은
  사찰같음. 인구유동성이 많아
  포교와 수행에 최적지
- 가액 : 인근 그린벨트 주택가 평당
  500만원선이나 상담후 절충, 양도하고자함

011-393-0013
011-710-7294

사 찰 안 내 도심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전시내
- 평수 : 89평(시설일체완비)
- 보증금 4천만원 월30만원
  시설시 상담후 결정

010-2284-0737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평택 시내
- 6층건물의 4, 6층
  (각 70평, 총 140평)
- 집기일체, 시설완벽
- 가액 : 보증금 3,000만원에
  월 150만원(시설비 절충가능)

010-7460-1250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마산 산호시장 농협 앞
- 2층. 30평. 법당1, 방2, 주방
- 보증금 10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1000만원
- 즉시법회가능

055)232-7151
055)243-3758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지하철역 2분거리)
- 한옥주택(총50평)
- 방2, 주방, 욕실, 삼존불
-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500만원 사글세 30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0-2717-8088

토굴및불자수련원지안내

- 위치 : 강원도 인제
- 토지 : 3000평, 건물주택 70평
  통나무집 10평, 차고 20평
  창고 10평
- 외형 : ①반월지(명당터로써
  참선수행의 최적입니다)
  ②교통편리하며 입구까지
  아스콘 포장완료 ③토지분할가능
- 가액 : 7억 3천만원

011-9466-2296

사 찰 암 자 안 내

- 전북 장수 장안산 덕산계곡
  상류 해발 800m 위치
- 사찰이나 암자 최적지
  (최고 명당터)
- 전체면적 523평
  목조 건물 24평 1동
  목조부속건물 20평 1동
- 가액 : 3억

011-644-2563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충북 청주 시내
- 1층 단독주택 33평
- 큰방1(법당) 외 큰방2, 거실
  주방, 화장실
- 삼존불, 각단탱화
  모든시설완벽, 현재 운영중
- 건강문제로 급 양도
  스님이나 법사,보살님께 최적
  동네가 조용하고 주차 편리함
- 전세 2200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010-4923-4927

토굴암자안내

- 위치 : 여주군 금사면 전북리
- 대지 298평
- 건물 50평. 1층, 2층(별장임법당)
- 산신각 옆 사계절 물 흐름
  토굴 앞 남한강 보임
  텃밭, 마당 잔디밭
- 가액 : 2억 9천만원
- 큰방 4, 대형거실, 욕실,
  화장실 2, 상수도 지하수 겸용

010-4736-3567

사 찰 안 내

- 위치 : 김천시내 10분거리
- 법당 1,2층 약 45평
  요사채 1,2층 약 50평(현대식)
  단청필 총 175평
- 가액 : 2억 2천만원
- 시설깨끗하고 좋음

010-6298-2588

사 찰 안 내

- 위치 : 천안시 목천 IC에서
  10분거리
- 면적 : 총500평(대지+부지)
- 목조건물,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 가액 : 5억

011-9505-9808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천안시 성정동 쌍용대로변
  4층 건물 중 3층 전체
- 평수 : 70평(법당 30평, 방 2)
-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 1천만원, 월 88만원
  시설비 2000만원(절충가능)

010-4767-40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해시
- 평수 : 300평
- 법당 25평, 요사 15평. 시설완비
- 방6개, 창고1동, 주차시설
  화장실 수세식3개,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1-9583-300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내
- 대지 : 33평, 건물 2동
- 도로인접, 주차교통편리
  집기 일체 양도
- 가액 : 7천만원

055)744-4879
010-8223-4879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경남김해시 삼방동
- 평수. 53평(2층) 위치 양호함
- 법당.삼존불 소불200불
  등삼백
- 보증금 500만 월 40만
  합 이천만원

010-9395-9397
055)337-9397

도심부근 개인암자안내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
  (강원도청 부근)
- 대지 : 85평, 법당 10평
  요사 20평(방2, 샤워실)
  법당 뒤 야산
- 아미타 삼존불,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800만원, 월25만원
  시설비 없음
- 관리 잘해 주실분,몸만오실분
  꼭하실분만연락바람

011-9116-5113

토굴(터)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
- 이전관계로 양도함. 등기 337평
  전 163평, 임야 175평
- 한옥토굴 27평 방 2개
  산신각 1동(단청)
  요사채 현대주방1칸+방2칸
  부엌1칸 창고10평
  실내화장실2칸+1칸
- 조경수 및 심야 대형온수기
  주차장+창고,마을상수도 사용함
- 답사 후 절충

010-8868-9407
054)673-6496

포교당안내

- 위치 : 경기도 부천시
  역전에서 도보로 10분
  시장 5분거리. 상가 3층 중 3층
- 약 30평, 방3개, 화장실겸욕실,
  옥상사용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0-3630-3579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2호선 낙성대입구
  (도보 3분)
- 3층 약 40평, 법당, 방 2개,
  주방, 다용도실
- 보증금 1천만원, 월85만원
  시설비 2천5백만원(절충가능)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02)887-2138
010-7104-4849

사찰암자터안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
  선남면 소재지에서 3분거리
  대구시 20분거리. 총 568평
- 대지 약 200평, 건물 1동
  나머지 답, 가건물 2동
- 관리지역, 계곡, 저수지접
  노송, 풍수 수려함
- 가액 : 1억 7천만원(주인직접)

017-804-1234
053)627-1234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 태평로
  (지하철1분거리)
- 평수 : 약 30평
- 모든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2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700만원(상담 후 절충)
- 스님 공부관계로 급 양도

010-5075-114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서해안 고속도로 발안IC부근
- 대지 : 220평
  건물 1층 요사채 47평
  2층 법당 23평. 산신각 4평
  그 이외 심야전기보일러, 차고 15평
- 가액 : 5억(절충가)

011-9114-9935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서울 강남 논현동 논현역 근처
- 4층건물 중 2층
- 평수 : 약 35평
  법당, 주방, 욕실, 방 1개
- 보증금 2천만원, 월15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 불사관계로 급 안내
- 강남 최고의 요지,
  인구유동성 많고 교통편리

011-662-7801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인천시 남구 <중심지역>
- 4층건물 4층 <옥상 사용>
- 법당<본존불,지장탱화,신중탱화>
- 주방, 방, 거실
- 가액: 보증금 300만원, 월24만원
  시설비는 답사 후 결정
- 사주보시는분이 적합함

032)433-3444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산 122-6
- 임야 2315㎡
  대지 : 등기건물평수(45평)
- 법당,요사채,접견실,승방,
- 화장실,신도숙소(등기건물
  외 건물 약 30평)
- 가액 : 2억 5천만원

019-379-9999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 IC에서 10분거리
  도로포장, 주차 10대 가능
- 특징 : 법당10평 요사채14평 총235평
  산신각 및 용왕당 약사불등 경치좋고 양지바른곳
- 가액 : 1억 8천만원

010-6782-2916 (주인직거래 원함)

포교당(급)안내

대중 소임 사는 관계로 포교당 운영하실분을 찾습니다
- 경남 김해시 어방동 인제대 부근 • 평수 : 50평
- 주변 : 대형아파트 다수. 경남일대. 포교 최적지 주변 유동인구 최다
- 법당, 방 2, 주방, 종무소, 내부화장실, 전체난방 에어컨설치
- 몸만 오셔도 법회 가능 / 모든 시설 일체(완비)
- 개인 종교법인 등록
- 보증금 2천만원 / 월 5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0-6739-6426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경기도 시흥시대야동 보건소길
  (부천방향으로) 대야 초등학교 근처
- 평수 : 13평 정도. 삼존불, 소불 50불(인등)
- 보증금 500만원, 월15만원, 시설비 1300만원
※혼자하실 여스님 환영(주택가 도로 끼고 있음)
- 역학 하실분도 관계없음. 아담하고 법당1, 방 1, 뒷마당 조금
- 저렴한 월세이기에 부담없습니다
- 저는 넓혀서 가기때문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꼭 하실 분 전화요망※

010-7322-8593

토 굴 안 내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 가액 : 6,500만원
- 평수 : 235평 그 외 60평 포함 총 295평
  임법당 13평(종교시설 허가 되있음)
- 방 2개, 주차장 넓음. 일체 집기류 인수함
- 언제든지 걸망만 풀면 법회 할 수 있는 곳

010-6357-5860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 평수 : 24평, 삼존불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1000만원(절충가능)

010-8504-6591

김포사찰(급)안내

- 대지 : 1,300평, 법당 약 80평(최고급) 팔각정+기타 건축물
- 주차시설 약 60대(대형버스 출입)
- **납골당(허가) 5,000기**
- 현시세 약 40억 추정(전체)
- 급양도가 : 18억원(사정상) 수려한 산자락

010-3875-8207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개정 2동
- 대지 : 63평, 건물 3층 96평
- 내부 최고시설, 옥외 약사여래불 조성
- 가액 : 7억 7천만원(절충가능)

011-850-2189

기도원 복지원

- 대 500평, 건 120.3동 • 가액 : 3억(융자1억)
- 동서울IC → 95Km, 대로에서 700m

011-712-9121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부지 : 150평
- 법당 : 35평
- 요사 : 20평
- 가액 : 5억5천급매

- 위치 : 강원도
- 대지 : 4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60평
- 가액 : 1억1천급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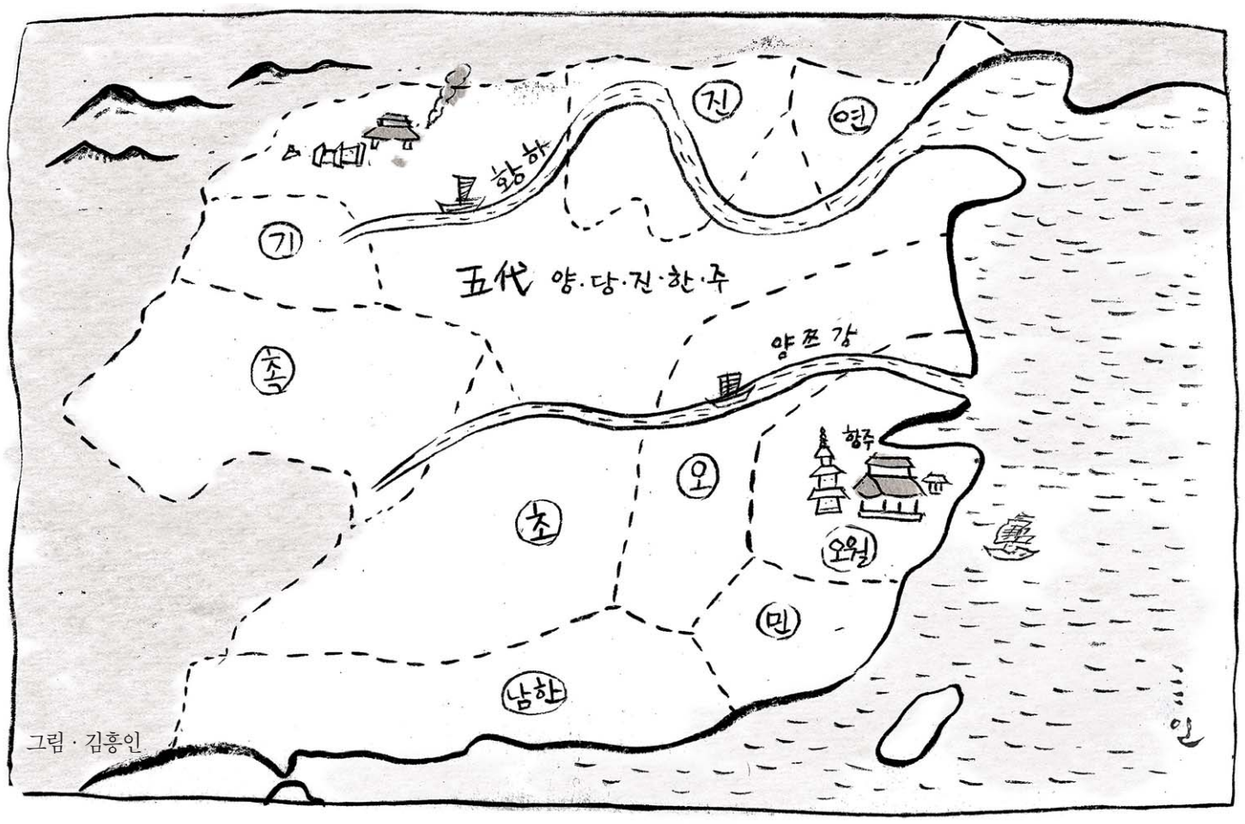
평생토굴분양

자격 참선수행에 득력한자로서 마음껏 공부하다 죽을 각오가 정리 되신분
- 분양가 : 3천만원(1인 1실 방 93개 선착순)
- 대상 : 비구, 비구니, 거사님, 보살님, 종단불문
- 위치 : 서울시 정릉 4동 북한산입구
  남향 명당혈 버스종점 5분거리
- 혜택 : 숙식, 난방, 수도, 공과금
  모두 지원해드림(공부만 하면됨)
- 자가용 소지자는 절대분양못함

02)914-4235

세종 폐불 북방 불교 쇠퇴… 중국불교 주도권 남방으로

<31> 오대·십국 군신들의 멸불(滅佛)과 봉불(奉佛)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문명을 구가했던 당조(唐朝)는 안사(安史)의 난을 시작으로 점차 기울다가 황소(黃巢)의 난(875~884)을 계기로 결국 절도사 주전충(朱全忠)에게 멸망했다(907). 당의 멸망으로부터 송(宋)이 다시 통일(977)되기까지 약 70년간 중국의 북방지역에서는 다섯 왕조가 교체됐고, 강남 일대에는 10개의 크고 작은 군벌이 난립했다. 역사에서는 이 시기를 오대(五代)·십국(十國)시대라고 부른다.

5대는 북방을 지배했던 왕조들로서 양(梁)·당(唐)·진(晉)·한(漢)·주(周)의 다섯 왕조를 말한다. 후대의 사가(史家)들은 이전에 존재했던 같은 이름의 왕조와 구별하기 위해서 앞에 '후(後)'자를 붙였다. 십국은 각 지방에서 일어난 지방정권을 말하는데, 오(吳)·남당(南唐)·오월(吳越)·민(閩)·형남(荊南)·초(楚)·남한(南漢)·전촉(前蜀)·후촉(後蜀)·북한(北漢) 등을 말한다. 이러한 오대십국의 정치상황은 불교에도 깊은 영향을 끼쳤다.

하극상으로 세워진 오대 철저하게 승단 관리

불교신봉하던 십국 군주들 덕분에 불교 융성

당을 멸망시킨 주전충은 본래 황소의 부하였으나 당에 귀순해 절도사가 된 후에 다시 반란을 일으켜 후량(後梁)을 세웠다. 이와 같이 북방의 오대는 모두 군벌의 쿠데타, 그것도 부하가 상사를 밀어내고 왕조를 세우는 하극상의 양상을 띠고 있다. 따라서 오대의 정치적 상황은 항상 불안했고, 전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많은 이들이 전란의 화를 면하기 위해 승가에 몸을 맡기는 일이 빈번한터라 오대의 정권에서는 철저하게 승단을 관리시켰다. 후량의 마지막 황제인 용덕원제(龍德元帝) 시기(921)에 사부(祠部) 원외랑(員外郞) 이구(李樞)는 "천하에 사도(私度)의 승니(僧尼)를 금하고, 망령되이 자의(紫衣)와 사호(師號)를 쓰지 못하게 하며, 출가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궐내로 와서 시험을 치르게 하고, 환속을 원하는 자는 바로 환속하게 하라"는 내용을 상주했다. 그에 따라 "양도(兩都; 長安과 洛陽)의 거리에 자의를 하사받은 승려들의 명단을 게시하며, 도행이 깊은 사람들을 추천받아 매 명절(明節)을 맞아 양도에 관단(官壇)을 설치해 7인을 득도하게 하고, 모든 지방에서도 출가를 원하는 자는 양도의 관단에 와서 사부(祠部)로부터 도첩을 받아야 한다"는 조칙을 내렸다.(<구오대사(舊五代史)> 권10, <양서(梁書)·말제기(末帝紀)>) 이러한 사도승의 금지와 승단의 관리는 오대 전체왕조의 정책이기도 했다.

오대 말년에 이르러 불교에 대한 정책은 가혹해졌다. 후한(後漢) 건우(乾祐) 2년(949) 이흠명(李欽明)은 <청태승인소(請汰僧人疏)>를 상주해 "이 무리들은 농사를 짓지도 않고, 누에를 키워 베를 짜는 것에서도 벗어나 있다. 교화에 도움도 되지 않으니, 실로 큰 우환이다. 승려가 많은 것은 병사가 많은 것과 같을 수 없고, 승려가 부유함은 백성이 부유함과 같을 수 없다. 옛날에 진시황이 육국을 병탄하고 천하를 통일한 것은 군병이 많고 백성이 부유한 까닭이니, 승려들을 어찌 남기겠는가"(<전당문> 권855)라고 했다.

같은 해, 번윤(樊倫)은 <금승니체도주(禁僧尼剃度奏)>에서 같은 내용을 상주했다. 후주(後周) 태조 광순(廣順) 3년(953)에 이르러 도성인 개봉(開封)에 "이름 없는 사찰 58개소를 없애라"고 조칙을 내렸다. 그 후 세종(世宗)은 현덕(显德) 2년(955), 폐불을 단행한다. 이것이 바로 '삼무일종(三武一宗)'의 폐불 가운데 마지막이면서 가장 심각한 폐해를 받게 한 법난이다. <구오대사> 권115 <주서(周書)·세종기(世宗紀)>에 따르면, 이로 인해 북방에서 폐사된 사찰이 3336개소, 남은 사찰은 2694개소, 합법적인 승려는 6만1200명이 남았을 뿐이라고 전한다. 이러한 오대의 불교정책과 세종의 폐불은 북방의 불교를 완전히 쇠퇴하게 했고, 중국불교의 주도권은 남방으로 이전되게 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오대의 군신들이 비록 정책적으로 불교를 억압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불법을 신앙하는 기록이 상당히 나타났다는 점이다. <구오대사> <불조통기> 등의 자료에는 후량을 세운 주전충으로부터 후당(後唐)의 장종(莊宗) 이존욱(李存勗)과 마지막 황제인 이종가(李從珂), 후진(後晉)의 고조(高祖) 석경당(石敬瑭) 등과 후당의 조신(朝臣)인 장전의(張全義) 등의 수많은 중신들이 독실한 불자로서 묘사되고 있음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군주와 중신들의 개인적인 불교에 대한 신앙은 오대 전체의 불교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북방의 오대에 비해 남방의 십국은 정치적으로 비교적 안정돼 있었다. 특히 오대와는 다르게 십국의 군주들은 대부분 불교를 신봉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오월(吳越)의 군왕들이 대표된다. 오월은 송(宋) 태종(太宗) 흥국(興國) 3년(978)에 북송(北宋)에 귀순하기까지 72년 동안 단 한 차례의 전란도 없었을 정도로 정치적으로 안정됐다. 이 시기에 오월은 정치적 안정을 틈타 항주(杭州)를 중심으로 경제적으로 큰 번영을 누렸고 또한 역대 제왕의 독실한 신앙으로 인해 불법이 크게 발전했다.

오월의 무숙왕(武肅王) 전류(錢鏐; 852~932)는 젊어서는 도교를 신봉하다가 만년에 깊게 불교를 신앙했다. 무숙왕은 건화(乾化) 원년(911) 홍초(鴻楚) 법사에게 조칙을 내려 항주 용흥사(龍興寺)에 계단(戒壇)을 열었고, 후량 태조 주전충에게 자의(紫衣)와 사호(師號)를 하사할 것을 청했다.(<송고승전> 권25 홍초전) 또한 <불조통기> 권42에 따르면, 무숙왕은 또한 자신의 어린 아들을 출가시키고자 사찰에 보냈으며, 후량의 태조가 '무상(無相) 대사'의 법호를 내렸다고 한다.

오월의 경제적 번영과 무숙왕의 친불교적 성향으로 항주를 중심으로 각지의 고승들이 몰려들었는데, 그에 따라 무숙왕은 수많은 사찰과 탑을 건립해 "오월의 무숙왕이 건립한 사찰과 탑은 다른 9국에서 건립한 것을 합한 것보다 배가 많았다"(<금석췌편(金石萃編)> 권112)라고 전한다.

무숙왕 전류를 계승한 문목왕(文穆王) 전원(錢元) 역시 독실하게 불교를 신앙했다. 무숙왕은 설봉의존(雪峯義存) 선사의 법을 이은 도부(道怤) 선사를 천룡사(天龍寺)에 주석하도록 청해 '순덕(順德) 대사'라는 법호를 올렸다. 문목왕은 또한 용책사(龍冊寺)를 창건해 도부 선사를 주석하도록 청했고, 오월의 선학(禪學)이 이로부터 흥성했다고 한다.(<송고승전> 권13 도부전)

오월의 제왕 가운데 봉불에 가장 열성을 다한 이는 바로 충의왕(忠懿王) 전숙(錢俶; 929~988)이다. 충의왕은 평생 대형 사찰 수백 개를 건립했다. 송에 귀순한 이후에는 아들을 출가시키기도 했다. 또한 당시 저명한 고승들, 예를 들어 천태덕소(天台德韶), 나계의적(螺溪義寂), 영명연수(永明延壽) 등과 깊은 인연이 있다. 덕소 선사는 법안종의 창립자인 청량문익의 법사로서 전숙이 태주(台州)자사를 역임하던 시기에 만나 도를 물었었다. 충의왕으로 즉위하자 바로 사자를 파견해 "제자의 예를 다해 국사(國師)"로서 항주로 청했다고 한다.(<석씨계고략(釋氏稽古略)> 권3) 의적 대사는 천태종의 저명한 스님으로서 전숙의 귀의를 받았다. 전숙은 의적 대사를 위해 특별히 천태산에 나계도량을 건립하고, 조칙을 내려 의적 대사를 청해 강좌를 개설해 천태학설을 물었다. 그때 전숙은 천태의 전적들이 완전하지 못함을 알게 되어 그를 개탄하고, 사신을 고려와 일본에 파견해 없어진 천태의 전적들을 모두 복원시켰다.(<불조통기> 권10) 연수 선사는 덕소 선사의 법사로서 전숙의 깊은 예우를 받았다. 북송 건륭(建隆) 원년(960), 전숙은 영은사(靈隱寺)를 중건하고 연수 선사를 주석하도록 청했고, 다음해 다시 영명사(永明寺)에 머물도록 청했다. 또한 전숙은 <송고승전>의 저자로 유명한 찬녕(贊寧)대사를 양절(兩浙)의 승통(僧統)으로 삼았다.

북방 오대에서의 불교에 대한 통제와 멸불, 남방 십국의 친불교적인 정책은 중국불교의 중심지가 북방으로부터 남방으로 옮겨지는 결정적인 작용을 하게 됐고, 또한 전체적인 중국불교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다양한 교의가 치열하게 개진돼 화려한 종파불교의 시대를 연 것이 당대(唐代) 불교의 특징이라면, 오대·십국 시기에서는 그러한 종파들이 점차로 선종(禪宗)으로 통합돼 가는 일종의 통불교적인 성향을 나타내 보였다. 여기에는 바로 남북방의 군왕들의 정치적 입장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이는 또한 중국 거사불교의 중요한 맥이었다.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불자정보 726호 |

TEL 02) 2004-8219(直)
732-1522
FAX 02) 737-0696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하남시 도로가 건물, 바로앞 버스정류장
- 평수 : 약 30평
- 법당 약 25평, 요사10평
- 교통 매우 편리,즉시법회가능
- 전세 4천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0-9411-5302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천안시 쌍용1동 대로변 전철역 5분거리
- 평수 : 40평
- 상가 : 4층건물중 2층전체
- 구조 : 방3개 법당 시설완비 즉시법회
-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010-2259-6787

포교당 안내
- 위치 : 양산시 북부동
- 평수 : 86평(법당 46평) 방 3칸, 공양간
- 삼존불 (아미타불,관세음,대세지보살)
- 전세3500만원 월세 50만원 시설비 및 비품대는
- 상의 후 결정

010-8011-7444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군포, 안양지역
- 평수 : 76평. 방4개 공양간, 샤워실, 회장실별도 (스님만 쓸 수 있는 곳)
-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2000만원 월130만원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1-685-6740

포교당 안내
- 위치 : 전남 광양시 광영동 명진사
- 특징 : 약 50평, 삼존불 외 모든 시설 갖춰져 있음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500만원,월 35만원 시설비 500만원
- 꼭 하실분 연락바람

010-3163-5014

팬션같은 암자 토굴안내
- 위치 : 문경시 문경읍 관음리
- 대지 250평, 건물 25평
- 황토벽돌,기와지붕,목욕탕 수세실화장실,심야전기보일러
- 가액 : 방문 답사 후 결정
- 매수자가 법당 지을시 법당터 무상보시(스님들 한해서)

010-3169-5364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광안 해수욕장 5분거리
- 3층 건물 중 2층 법당 60평 방2, 화장실2, 주방
- 삼존불,산신,후불,신중,칠성,소불 200불
- 전세 1억 3천만원(사글세 가능) 시설비 없음, 주인 직접
- 스님 서울 이동 관계로

010-3019-2236

포교원 안내
기도하기 좋고 그림, 글씨쓰기 좋은곳
- 정원 앞 폭포 계곡 사시사철 물 많음, 서출동류수
- 대지 200평, 건평 50평 온돌방
- 합 1천평
- 가액 : 상담 후 절충

010-3782-7083

임법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
- 평수 : 대지 300평
- 법당 25평, 방5, 욕실, 주방,
- 아미타삼존불,법당공양실물품일체
- 시설비 없음, 조용한 기도처
- 전세금 3천만원,즉시법회가능

010-2204-8375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5동 3층건물 중 2층
- 약 45평.삼존불, 욕실, 화장실, 주방, 종무실 겸 방2칸
- 보증금 1천만원 / 월60만원 모든시설 완비(시설A급) 시설비 2300만원

010-2208-4899
053)552-6487

부자가 되는 명당
- 땅 : 관리지역 약 1만평 토목공사 완료
- 건물 : 신축 원룸 60평식 2동 20평 토굴 1동
- 가액 : 15억 중 5억 대출가능
- 용도 : 팬션,기도원,연수원, 전원주택 불사 가능 투자 가치 100%

010-8992-6787

포교원 안내
- 위치 : 강남구 역삼동
- 실평수 : 16평
- 방1, 삼존불, 탱화, 기타
- 보증금 1,000만원 월75만원 시설비1500만원

010-8795-2832

포교당 안내
- 위치 : 청량리역 2분거리
- 5층건물중 5층 전체사용 80평중 마당 30평, 법당 30평 방2,거실1,욕실2개,부엌1,다락1
- 삼존불,지장단,1자원불 500여불
- 보증금 1천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5800만원(절충가능)
- 즉시법회가능

010-2069-0824

암자(토굴)안내
- 위치 : 전남 벌교읍
- 대지 120평
- 기와집, 수세식 화장실
- 시설완비
- 가액 : 2천5백만원

010-3541-2314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삼화사 ● 법명 : 각암
- 직위 : 종정대행
- 주소 : 경북 청도군 청도읍 부야2리 1290

- 사찰명 : 삼화사 ● 법명 : 월명
- 직위 : 비구니부장
- 주소 : 경북 청도군 청도읍 부야2리 1290

- 사찰명 : 자은사 ● 법명 : 자은
- 직위 : 감찰부장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신기동 569-4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일

대한불교 연합조계종 총무원장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총무원장대행 법하

백고좌 같은 종갓집 부도밭에서 시간을 잃다



⑩ 통도사(하),
과거도 미래도 초월한 공간



통도사 부도밭 전경.

각종 양식의 부도와 비 정연하게 숲 이뤄

잘 정비된 부도밭 절 역사 그대로 간직… '불지종가'의 새로운 면모

월하 스님이 1993년에 부도원 불사 마무리

지난 밤 일찍 잠을 청했습니다.

금강계단을 둘러보는 동안 날이 저물었으므로 통도사 부도밭에는 못 갔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부도밭을 둘러보는 맛도 색다를 것이므로 일찍 잠을 청하며 조금은 들뜬 마음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산문 앞에서 차를 내려 걷습니다. 개울물이 이른 아침을 먹고 등교하는 아이들처럼 돌돌돌 흐릅니다. 저 물줄기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나 자신의 온 곳과 가는 곳을 알 수 없듯 한 줄기 개울물의 오고가는 이치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알 수 없을 뿐입니다. 절로 향하는 호젓한 길을 걷고 있는 나 자신이 걸어온 길이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통도사 부도밭에 들어서면 누구나 '종갓집은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부도밭은 주차장에서 개울을 건너 새로 세운 일주문 옆에 있습니다. 큰 길에서 보면 먼저 공덕비와 탑비 등이 모아져 한 층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통도사의 역사를 짐작할만한데, 위쪽으로 올라가 보면 경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도를 한 곳에 모아둬 옛날을 살다간 고승들의 체취가 깊은 숲을 이루고 있음에 입을 다물 수 없습니다. 모두 60여기의 부도가 3단에 걸쳐 한 단에 20기씩 대와 오를 맞춰 모셔져 있습니다. 1993년 부도밭 정비를 완료했는데 조계종 제9대 종정을 지낸 월하 선사가 주도한 불사였습니다.

부도밭을 정비해 통도사의 역사와 고승들에 대한 남다른 정성을 보였던 월하 선사의 부도는 부도밭의 중심부에 탑비와 함께 서 있는데 팔각원당형의 전형을 따른 양식입니다. 대리석이 어찌나 곱게 마감돼 있는지 아침 여명 속에서 보니 밀가루 반죽으로 조성한 듯 한 느낌마저 듭니다. '노천당월하선사지비'라는 탑비 옆에 부도가 모셔져 있고 그 옆에는 '구하당대종사지비'와 부도가 또 그 옆에는 '총림석덕성해당대종사지비'가 서 있습니다. 그 옆에는 경봉 스님의 부도가 있고 이어 '경봉대종사탑비명'이 서 있습니다. 다시 그 옆에는 법인 스님의 부도가 있고 그 탑비인 '벽안당법인대종사지비'가 서 있습니다.



석구 스님 부도.

본격적으로 부도들이 모아져 밭을 이루는 두 번째 단 초입에 통도사의 오늘을 혁혁하게 일궈낸 근현대 고승들의 부도와 탑비가 집중돼 있는 것입니다.

그 아래 첫 번째 단에는 부도와 근접하지 않은 탑비들이 여럿 서 있는데, 초암당 문성대종사, 화엄종주운암당대종사, 화엄좌주홍경당대사를 비롯해 운하당 성파당 고경당 종해율사 운조당 혜각대불모 청하당 등의 부도가 서 있습니다. 청하 스님과 혜각 불모의 부도는 부도밭 세 번째 단에 아름다운 형상으로 서 있습니다.

비들이 숲을 이룬 첫 번째 단에서 두 번째 단으로 오르는 둔덕은 제법 높지만 두 번째 단과 세 번째 단의 높이는 그리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도밭 전체는 매우 웅장하고 널찍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부도들 사이를 거닐면서는 생전에 깐깐하시던 월하 스님의 성품을 한껏 느낄 수 있는데, 바로 배수로와 모든 부도 앞에 표지석을 일정한 규격으로 박아 둔 때문입니다. 대개의 부도밭은 따로 부도의 주인을 새긴 석물을 두지 않았는데 통도사만큼은 탑신의 글씨가 마멸돼도 주인을 알 수 있도록 앞에 별도의 표시석을 박아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부도 주인의 생애가 다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통도사 역시 길고 찬란한 역사에 비해 관련 고승들의 생애가 많이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부도밭을 조용히 거닐어 봅니다. 해가 올라오려는지 사방이 훤해지고 새들이 요란하게 우짖습니다. 솔숲에서 불어온 바람이 부도들을 어루만지고 금강계단이 있는 큰절을 향해 갑니다. 계단에 가서 부처님에게 고승들의 숨결을 전할 것 같습니다. 고운 잔디를 밟으며 하나하나 부도들을 만지며 천천히 걷습니다. 시간을 초월한 이 자리야말로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백고좌 법회의 법석일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100일 동안 100분의 고승을 모시고 펼치는 사자후의 법석. 그 웅장한 법석은 어지간한 신심이 아니고는 엄두도 못 낼 일입니다.

그러나 부도밭을 거니는 동안은 시간도 공간도 무의미하고 오직 옛 스승들의 고요한 가르침과 게송을 읊조리는 청아한 음성을 듣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 염원이 사무치고 사무치어 단 한 마디라도 선지식의 가르침이 뼈에 와 닿는다면 이미 이 자리는 백고좌의 대법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문득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이 생각납니다. 지난밤 저녁 공양자리에서 마주한 정우 스님은 통도사의 '오늘'을 일구느라 동분서주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지금 부도밭에서 정우 스님이 생각나는 것은 그 때문이 아니라, 서울 강남땅에 포교당을 세우고 오랜 시간 끊어졌던 백고좌 법회의 전통을 되살려 강남에 불교바람을 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정우 스님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부도밭은 과거의 공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 산 저 골에 흩어진 부도들을 한 곳에 모아 부도원을 가꾸고 보니 이곳이야말로 통도사의 과거가 현재로 승화된 곳임을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겁니다.

또 생각해 보면, 부도밭은 현재이기도 하거니와 미래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 셋째 단 뒤로 널찍하게 펼쳐진 빈 공간은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스님들이 하나의 부도로 설 자리인 것입니다. 지금 영축산문 안에서 정진하는 저 많은 스님들의 자리인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부도밭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닐지 모릅니다. 수행이 집착을 버리는 것이고 집착으로부터 기인하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승 인연의 흔적을 굳이 한 덩어리 돌로 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당대의 고명(高名)을 돌에 새기고 유골을 탑에 넣는 것에 도가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견해는 철저하게 집착을 털어버린 담백한 수행자의 이미지 그대로입니다.

어느새 부도밭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솔바람소리가 귀를 적십니다. 문득 셋째 단의 위쪽 그러니까, 아직 부도가 세워지지 않은 빈 공간에 마음이 쏠립니다. 질서정연하게 서 있는 부도들 사이를 다시 걸어 그 빈 공간에 가 앉아봅니다. 반가부좌를 틀고 앉으니 나도 하나의 부도가 된 것 같습니다. 불경스러운 행동이란 생각에 얼른 일어섭니다. 멀리서 누가 보면 '별 미친놈이 다 있네' 하고 욕할 것 같습니다.

몸은 아직 부도가 들어서지 않은 공간에 서 있지만, 어느 곳이 빈 곳이고 어느 곳이 찬 곳인지 도대체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아래쪽은 옛 스승들의 부도가 가득하니 찬 곳이고 위쪽은 후대의 스승들이 들어 찰 곳이기에 또한 빈 곳이 아닌 것입니다. 유위법의 부도밭과 무위법의 부도밭은 결국 둘이 아닌 것이어서 공간과 시간의 의미를 초월해 있는 것입니다.



각종 비석들.

통도사 부도밭에서는 다양한 양식의 부도들을 볼 수 있는 것이 또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옛부도들은 대개 석종이지만 근현대 고승들의 부도는 팔각원당형을 많이 따랐습니다. 전통양식을 벗어난 독특한 형상도 있습니다. 특히 세 번째 단 뒤쪽 줄에서는 '으르렁' 하는 돌사자의 등에 연꽃 받침을 올리고 그 위에 둥근 비신을 올린 성암당 스님의 부도가 오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성암당(性庵堂) 석구(錫九 1890~1950) 스님은 어떤 분이기에 이토록 웅장한 기상을 담은 부도를 모신 것일까 궁금증이 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림의 첫째 단 우측에서 다섯 번째 위치에 서 있는 비가 바로 석구 스님의 행장이 기록돼 있는 '성암당대선사지비'입니다. 월하 스님이 찬한 비문을 천천히 읽어 봅니다.

강원도 삼척에서 태어난 스님은 10세에 사서삼경에 능통한 신동으로 소문이 났었다고 합니다. 17세에 저수지 공사를 주도했는데 그 저수지가 홍수에 붕괴돼 농가와 전답이 유실되는 것을 보고 허망함을 느껴 유랑하다가 금강산 장안사로 출가했으며 수월 선사와 혜월 선사를 참문해 오도송을 읊었다고 전합니다. 월정사와 부석사의 주지를 맡아 가람외호에 조력했고 천성산 내원암선원에서는 손수 전답 수만평을 경작하고 광대한 육림원을 조성해 청정 살림의 모범을 보였답니다. 스님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해에 통도사 감로당에서 입적하셨습니다. 스님이 입적 직전에 보인 활구가 참으로 장쾌합니다. 비문 그대로 옮겨 봅니다.

'弟子가 懇切히 問道하자 性壽야 저 山水見하라 하시고 怡然入寂하시니….'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 기본참고자료
〈역대고승비문〉시리즈, 이지관, 가산불교문화연구원. 〈부도〉 정영호, 대원사. 〈신라와 고려시대 석조부도〉 엄기표, 학연문화사. 〈전통사찰총서〉 사찰문화연구원. 〈답사여행의 길잡이〉 한국문화유산답사회, 돌베개. 〈동사열전〉 김윤세 역, 광제원. 〈잊혀진 가람탐험〉 장지현, 여시아문. 등.

납골 묘원
투자자를 찾습니다
국내 최대,최고의 시설로
전무 · 후무한 추모공원을 기획,설계하고 있습니다.
◇ 초기투자 (금융대출 이전까지)
◇ 준공시까지 투자 (시설 완료시까지)
◇ 장소 : 수도권 (최고의 명당지,경기이남)
◇ 허가완료 : 기수 3만 3백기
◇ 종교와 무관 (불교관,기독교관,유교관 등)
◇ 협의후 절충가능
기존의 납골당과는 비교할수 없는 가치(명품)로 승부하겠습니다
010-9889-9442

미래를 열어가는 불(火)의 불멸조(不滅鳥)
지금 이 시대는 과거도 지나고 현재도 지나고 미래의 시대입니다. 자신이 느끼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못하고 몸으로 느껴야 믿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 불멸조(不滅鳥)는 가정, 사업장, 자동차 등 육해공(陸海空)을 움직이며 다니는 모든 곳에 두시면 갑자기 일어나는 사고와 재해(災害)를 예방하고 요즘 많이 떠다니는 영혼들의 액운(厄運),액살(縊殺),잡귀(雜鬼) 등의 조화 부림으로부터 해방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가정에는 행복(幸福)과 건강(健康)과 부부금슬(夫婦琴瑟)이 좋아지고 자녀(子女)들의 앞길에 걸림돌이 없어지며 사업장에는 사업번창(社業繁昌)이 자동차나 움직이는 곳에는 안전과 사고예방을 하는 힘(力)과 원력(原力)으로 지켜주는 미래(지금)의 꼭 필요한 불멸조(不滅鳥)입니다.

의장등록번호 제 2008-0052952호
크기 : 높이 22cm×폭 26cm
불멸조(不滅鳥)는 태양(太陽)속에 사는 삼족오(三足烏)의 원력(原力)과 삼신일체사상(三神一體思想)인 천(天),지(地),인(人)의 원력(原力)이 함께하여 위에는 세 방위의 날카로운 칼날(刀刃)이 액운액살(厄運 縊殺)을 일시로 소멸(消滅)함으로써 복(福)이 저절로 따라오는 기운(氣運)이 있으며 앞길을 뻥뻥 뚫어주고 열어줌으로써 아주 영험(靈驗)한 길조(吉鳥)입니다.
아래에는 순수함의 원력(原力)과 함께 최고의 행운(幸運)을 열어주는 길상(吉祥)으로 알려진 천연 백수정(石英,Quartz:신의 얼음)을 안착하였습니다.
순금으로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정성을 다해서 개금하였으며 순금의 생체활성파장(生體活成波長)으로 활력(活力)을 불어넣어 주는 최고의 호신불(護身佛)입니다.
기도 축원 불공을 마치고 계속해서 1년 동안 무료 인등 축원발원으로 밝은 앞날을 계획하시고 소원 성취 하십시오.(보시금 70만원)
※ 호신불이 가져오는 현상들
모시고 난 후 어지럽거나 구토증세, 피부이상, 기운저하, 혈압변동 등 여러가지 현상들은 액운과 액살이 빠져 나가고 있다는 증거이므로 인내로 믿으시면 일정 시일이 지난 후 정상으로 돌아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의전화 031)898-5666 / 010-8674-5351
우체국 100941-02-294031 (엄홍수)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 (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도솔암
전화번호 : (031)775-1285 지수 대진 합장



길을 묻는 이에게

제726호 현대불교
2009년 4월 8일(음력 3월 13일) 수요일 / 불기 2553년

구정물이 나올 듯하면 그 구정물을 새 물로 바꿔 쓰세요

광주 지역의 여러분과 같이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첫째 알아 둬야 할 것은 '불교라는 자체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불교는 어느 한군데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일체 만물만생 생명들의 근본 자체가 불(佛)입니다. 곤충에 이르기까지 풀 한 포기도 버리지 않는 생명의 근본, 불(佛)! 만물만생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오고 감이 없이 통할 수 있고, 말로 통하고 뜻으로 통하고 통신으로 통하고, 이렇게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알고 서로가 서로를 인연해서 모두가 같이 하나로 돌아가는 그 뜻을 교(敎)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들은 새들대로 말을 하고 서로 통하고, 곤충들은 곤충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서로 통하는 것이 교라고 하는 겁니다. 불교라는 언어도 붙지 않는 자체이기 때문에 불교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름 해서 진리인 것입니다. 머리 깎은 스님네들이나 불제자들만 공부하는 불교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그 뜻은 잘 아시겠지요?

우리가 왜 이 마음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말씀드리죠. 우리 몸 안의 자생중생들과 더불어 같이 한데 뭉쳐진 이 자체를 혹성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별성이 움죽거리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내 몸 하나가 우주라고 해도 되고 별성이라고 해도 됩니다. 위성이라고 해도 되죠. 모두가 이 몸 안에서 벗어나야 여러분 마음대로 움죽거릴 수 있는 자재권을 가질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몸속의 그 자생중생들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업 선업이 서로 뭉쳐진 것이고, 영혼의 뿌리와 더불어 남녀의 정자 난자를 빌려서 이 세상에 자기를 형성시켜서 자기가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끌고 다닌다는 그 자체를 아시고 모든 것은….

보십시오! 나무 싹은 말입니다, 나무 싹이 제 뿌리를 믿지 않는다면 그 나무 싹은 죽습니다. 뿌리가 없으면 싹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싹은 제 뿌리를 믿어야만이 그 뿌리에서 지분 수분 철분 모든 거를 귀합시켜서 올려보냅니다. 그래야 나무는 푸르게 살 수 있고 또 그 싹은 태양열과 공기를 흡수해서 내려보낸다 이겁니다. 이 올리고 내리고, 즉 이렇게 모든 것이 귀합이 돼서 정맥 동맥이 돌아가듯 해야 사람이 밝게 움죽거릴 수가 있고 자유권을 얻을 수가 있단 얘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또 안 하면 안 되겠군요. 사람이 모두 보는 거 듣는 거 아는 거, 즉 말하자면 이름해서 오신통이라고 합니다. 천이통은 듣는 거, 천안통은 보는 거, 신족통은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는 거, 타심통은 남의 속을 훤하게 알 수 있는 거, 숙명통은 어디서 왔는지 아는 거,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통 속에서는 여러분을 자유스럽게 굴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말입니다, 바깥으로 탁 나와야 내 몸을 자유스럽게 굴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마음대로 쓸 수도 없거니와 마음대로 마음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움죽거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몸에서 벗어나야 되겠고, 둘째는 물주머니에서 벗어나야 지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물 바깥에 나오면 고기들이 죽듯이, 그래서 물을 벗어나지 못하듯이 우리도 물주머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각자 여러분의 통신 안테나를 먼저 세워 놔야 통신을 받을 수도 있고 통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 너부터 알라. 너부터 깨쳐라. 너부터, 바로 과거 부(父)와 현재 자(子)가 서로 상봉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마음을 넓게 가지고 모든 진리를 파악해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 지금 시점의 어려운 과정을 타파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밥을 대신 먹어서 배불려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죽어줄 수도 없고요. 대신 아파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각자 여러분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그 뜻을, 그 오묘한 법을, 그 도리를 모른다면 불제자라고 할 수도 없겠지요. 불제자가 아니든 불제자든 전부 불제자지 불제자 아닌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 뜻을 잘 아셔야 합니다.

고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몸 안에 들어 있는 자생중생들이 작용을 해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지고 갑니다. 한 군데서만 파업이 일어나도 여러분 몸뚱이는 병이 들고 쓰러질 뿐만 아니라 송장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몸속에 있는 그 자생중생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집합소며 관리인이며 심부름꾼 즉, 불가에서는 시자라고 말을 합니다마는 심부름꾼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이 그런가 아닌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내가 일을 해서 벌었다, 내가 살고 있다, 내가 하고 있다, 내 거다, 만날 이렇게 하시고 극매시는데 (물컵을 들어 보이시며) 이 물 한 컵을 잡수실 때도 혼자 자시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혼자 먹었다고 하고 혼자 산다고 하고 혼자 일을 해서 벌었다고 하고 혼자 망했다고 하는데, 모든 일체를 다 내가 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 몸뚱이 속의 자생중생들이 헤아릴 수가 없는 모습과 그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 · 최주현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내기 이전의 마음을 선장으로 삼아서 잘못 내든 잘 내든 그 마음내는 모든 것을 잘 다스려서 내면세계에 놔라. 내면세계에 모든 것을 놓을 때에 바로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업 선업이 인연이 돼서 바로 여러분 몸뚱이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돼 가지고 현실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오는 구멍에다가 다시 입력을 한다면 앞서 입력된 거는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모두가, 부처가 따로 없고 중생이 따로 없다.' 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지금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십시오.

여러분 몸뚱이 속의 자생중생들이, 생명체들이 건강하게 움죽거려야 여러분 몸뚱이가 건강할 거고, 여러분 몸뚱이 속의 자생중생들이 물러가 터지고 천백억화신으로 화해서 나툴 줄 알아야 여러분이 깨쳐서 천백억화신으로서, 보살로서, 응신으로서 각계각층의 중생들에게 응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나부터 알아야 되겠기에 내 뿌리부터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싹이 자기 뿌리를 믿지 못하고 그 싹이 딴 나무의 싹을 믿거나 딴 나무의 형상을 믿거나 이름을 믿거나 스님들의 고깃덩어리를 믿거나 이런다면 공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자기 나무에 에너지가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일체 마음이 한꺼번에 들고 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은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묘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대무변하고 묘한 도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주도 낳고 은하도 낳고 별성도 낳고, 별이 아주 커지면 불덩어리 블랙홀이 되기도 합니다. 이 모두가 사람이 잉태해서 어린애를 생산하고 죽고 살고 하는 생사윤회와 결부해서 돌아가는 것이고,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하고 작용을 하는 대자연의 진리와 똑같습니다.

부처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있음으로써 바로 생활이 있고 생활이 있음으로써 상대가 있고 상대가 있음으로써 모든 세상이 벌어졌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 의해서 벌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탄생을 안 했더라면 모두 무효입니다. 각자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바로 내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도 있고 중생도 있고 세상도 있고 종교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모두 이런 것이지, 여러분이 없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부터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자기가 못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다 말았더니 앞서 한 건 잊어버려서 못하고, 허허허…, 앞으로는 생각 안 나서 못하고, 이렇게 되는군요. 어떻게 해야 생각이 바로 들어서 바로 말을 할까요? (대중 박수)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내는 거 말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낼 때에 잘 냈는지 못 냈는지 그런 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그것이 관습에 의해서 막히고, 윤회성이나 영계성이나 세균성이나 업보성이나 인과성 등, 모두에 얽히고 설켜서 답답한 마음이 올라오기도 하고 성내는 마음이 올라오기도 하고, 자녀들이 무지하게 괴롭히면 괴로워서 애를 쓰고, 부부지간에 애를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게 하등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고장이 난 것을 마음으로 고쳐야지

☞26면으로 계속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중생구제와 자비실천을 함께하실 스님, 포교사, 법사님을 모십니다

종 정 자운 청봉 대종사
총무원장 월산 혜봉

※ 준비서류 및 서류 발급

◆ 종단 입종신청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장
◆ 입종하시면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증 발급

※ 각 지역별 간부직 소임자를 우선 모십니다. 연락바랍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전화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혜봉스님 직통 011-545-5060

빙의령은 반야선에 태워보낸다!!

영가장애(빙의)는, 옛적부터 윤회(나고죽음의 반복)하던 동안에 악연으로 인한 업을 지어, 그것이 잠재의식(전생의식)속에 암장(기억)되었다가, 현생에서 영향을 받게 된다.

◇ 사람 몸 한번 받기 어려운데, 어차피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빙의로 의한 장애를 이 생에서 치유 못하면, 내 생의 고통은 더욱 심하다.

빙의작용

• 원인 모르게 악마의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다.
• 본인의 의지로써 감당할 수 없는 좌절, 실패
• 조상 영가에 의해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없다.
• 빙의 치유를 여러번 해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

천지만물이 반야선 아님이 아닌데 세상만사에 고해바다 건너는 이, 보기 어렵네

성공사례

• 울산의 36세 여교사는 상품광고 및 인터넷 쇼핑에 낭비벽이 심해 빚 더미에서 방황할때, 잠재의식 속의 업을 제거하는 의식으로 영가를 반야선에 태워 천상계로 보낸 후 정상적인 삶을 가졌다. 50대에 사망한 시 고모의 혼령이 빙의된 사실을 알았다.
• 부산에 살고 있는 한 여고생은 영가 258위에 빙의되어 잠재의식 속의 업을 제거 영가 마다 반야선을 태워 보낸 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지리산 써레봉 아래 1100고지 토굴에서 15년간 고행

서 진 암 선 운 합장

051)783-0858 / 010-6289-1233
부산 해운대구 반여3동 1596-11 103호 (반여초등학교 근처)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범음범패 학인모집

전통사찰 안정사 범음범패 영산재 보존회에서는 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해 뜻이 있는 출가 수행 승려와 재가불자님께 수강생을 모집 하고자 알립니다

◈ 자 격 :
1. 삭발염의한 출가승려
2. 불교와의 특별히 인연이 있는 분 (재가불자)
◈ 교육기간 : 1년과정 (초급반 : 6개월과정)
◈ 교육내용 : 불교 각단 예불 및 천도재의식

1. 각종 전문 재의식
2. 사물 다루는법
3. 천수바라
4. 사다라니바라
5. 오공양작법
6. 요잡

▫ 불교의식무용반 : 연화무, 해원무, 학춤
▫ 연구반 : 안정사범음범패

◈ 수 강 일 : 매주 화요일 개강
오전 10시 ~ 오후 17시까지
◈ 준 비 물 : 필기도구, 녹음기
◈ 수 강 료 : 월 10만원
◈ 교육장소 : 전통사찰 안정사 교육원(강원) 승헌스님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1888번지)
◈ 문의전화 : 055)649-6711, 010-8533-6775
팩스 055)649-6712

전통사찰 안정사 범음범패 영산재 보존회

buddhanews.com

잘못 내든 잘 내든 마음내는 모든 것 내면세계에 놔라

☞25면에서 계속

육신을 두들겨패고 말로 아무리 해도 그건 해결되질 않습니다. 녹아지지 않아요. 과거에 마음으로 지은 것인데, 그래서 입력이 돼서 현실로 나온 것인데 그걸 마음으로 고쳐야지, 그 구멍에서 마음으로 고쳐야지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발버둥쳐도 아니 됩니다. 그 구멍에서 나온 것은 그 구멍에서만이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내면을 봐도 한마음이요 외부를 봐도 한마음이요, 체가 없는 마음 그 자체가 바로 광대하고 묘하고, 말로는 형용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랬대요. 혹이 났는데 혹을 떼려고 가니까 생명이 위태하다고 하고, 점을 보니까 당신이 혹을 떼어 내면 재수가 없어서 다 망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로 듣고 고민 고민 하다가 병이 더 심해졌답니다. 언젠가 산으로 올라와서 나한테 물어요. 그래서 '혹이 달리게 한 것도 몸속에 있는 자생중생들의 한마음이 고장을 내서 그런 거니까 혹이 없어지게 하는 것도 너다.' 하고 안으로다가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왔는데 혹이 없어졌더군요.

이 마음이 심성과학이기도 하고 심성의학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대에 심성의학이나 심성과학이 아니라면 우리는 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부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뜻을 현재 사람이 살아나가면서 익힌 용어로다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그러지요. 구정물이 나올 듯하면 그 구정물을 새 물로 대치를 해서 쓰라고요. 이사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안 가고 관습에 의해서 점을 보고 무꾸리 해서 좋다는 날을 잡아서 가는데, 만약 그날 도와줄 사람이 생기지 않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때 내 마음대로 이사를 간다면 아주 편리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관습에 의해서 끄달리고 욕심에 의해서 끄달리고 모든 문제들이 얽히고설켜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부처님의 뜻을 따르고 진리에 순응하면서, 시대가 변천하는 대로 잘 판단을 해서 실천을 하면서 마음의 발전을 위해서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법을 빼놓고 부처님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의 법이고 우리들의 법이자 부처님 법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체가, 각자 여러분이 못났든 잘났든 돈이 없든 있든 그거를 막론해 놓고 지금 여러분은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남의 잘난 어머니라도 나의 못 배우고 못난 어머니하고 바꿀 수 없듯이 여러분 각자 못났든 잘났든 잘난 남하고 못난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이 바꿀 수 없는 자체가 그대로 능력을 갖추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들은 지수화풍이 바탕으로 되었기 때문에 바로 광력이나 전력이나 자력이나 통신력, 이 자체가 여러분한테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믿고 모두 '네놈 속에서, 너에게서 나온 거니까 네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하고 거기다가 진짜로 맡겨 놨을 때 비로소 그 마음내는 대로, 마음 쓰는 대로 바로 법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먹고 말한 게 한데 떨어지지 않고 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체를 우습게 여기면서 '나는 중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중생이라는 것도 이름이요, 부처라는 것도 이름입니다. 이름을 따라서 갈구하지 마시고 오직 진실한…, 말하자면 어린애가 물에 철썩 빠졌는데 말입니다, 부모가 옆에서 보다가 '이것이 껍데기다, 알맹이다' 이런 거 찾겠습니까? '이거를 해야 옳은가, 안 해야 옳은가.' 이런 마음이 생기기 이전입니다. 이 마음 생길 여유도 없이 물로 들어가서 건집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 갈 때, 아주 조그마한 어린애를 남기고 죽는다 하더라도 그 어린애마저도 놔 버리는 그 한 찰나, 생명이 끊어질 그 무렵, 다 놔 버릴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놔 버리란다고 살림을 몽땅 놔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걸어오실 때에 뒷발자취를 하나하나 짊어지고 오셨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걸어오는 사이 없이 걸어왔고 그대로 여기 와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이 없이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생 공심 공체 공식화 하고 돌아가고 있는 거지요. 음식을 잡숴도 나 혼자 먹은 게 없고 내가 먹은 사이가 없더라. 그래서 공했다는 겁니다. 공이 색이요 색이 공이라는 그 뜻을 볼 때, 물질과 정신은 둘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현시점에서, 과학이 발전이 돼서 물질과학으로써 만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신과학으로 발전을 해야 되겠지요?

지금 현시대에 돌아가는 거를 가만히 본다면 예전처럼 물질과학으로 발전이 안됐을 그때 그 시절에는 화두를 받아 가지고도 잘 공부를 해냈을 텐데, 지금은 아는 게 많아서 화두가 먹혀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세상에 생긴 자체가, 바로 움죽거리는 자체가 화두라고 믿고 공부하십시오. 지금 내가 아무리 말을 해 드려도 여러분이 하려고 노력을 안 하신다면 여러분이 자유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첫째 내 몸을 벗어나야 하고, 물주머니를 벗어나야 합니다. 바른 대로 얘기지만 우리는 어항 속에 갇힌 고기들과 같습니다.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거 잘 아시겠죠? 그렇다면 그 물주머니 안에서 어떻게 그것을 굴리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권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물주머니 바깥으로 벗어나야 그 물주머니를 굴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 물주머니를 벗어나야 지구를 벗어나고 지구를 벗어나야 모든 행성을 지배할 수 있는 태양계의 이치를 알고 태양 자체도 바로 내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이것이 "찰나찰나 어떤 것이 아니 되는 것이 없느니라." 하신 부처님의 말씀이죠.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어느 것도 내가 아니 되는 게 없고, 내 한생각에 칠성이 되고 산신이 되고 약사가 되고 지장이 되고, 법신 보신 화신, 하다못해 물속의 용신까지도, 지신까지도 모두가 한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로 어떻게 해 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몸속에 들어 있는 여러분의 그 자생중생들에게 통신이 되어 작용을 하게 됩니다. 바로 진짜로 믿고 '주인공, 뿌리인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 병이 나게 한 것도 너니까 병을 낫게 해서 끌고 다니는 것도 너다.' 하고 내면에 진실히 믿고 놨을 때에 통신이 되는 겁니다. 통신이 돼서 대뇌를 통해서 중뇌에서 결정을 지어서 사대로 통하는 겁니다. 사대로 통하게 되면 모든 자생중생들이 모자라는 데를 채워서 서로 작용을 해 나갑니다. 이게 기초적인 마음 법입니다.

지금 국내 각 지원이나 본원에서 많은 사람이 공부하고 있고, 외국 지원에서는 외국 사람도 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까지도 이 마음공부를 하는데, 마음공부 마음공부 하니까 여러분이 시들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마음공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고 이끌어가고 있는 바로 자신의 생활과 몸으로부터 실천하는 공부죠. 예를 들어서 얘깁니다. 내가 '나는 부족해서 이런 것을 못해.' 하면 그냥 못하게 되는 거고 '나는 이거를 꼭 해야겠어.' 한다면 꼭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자생중생들이 화해서 바로 보신으로서 능력을 갖춘다면, 그것을 지금 시쳇말로 한다면 입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천백억화신이 돼서 한생각에 나고 든다. 모든 거를 안으로 들여놔도 두드러지지 않고 모든 것을 토해 내도 줄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구가 있죠. '바다를 삼켰다가 바다를 토해서 여러 만 중생들에게 응신으로서 응해 주신다.' 이거 이해가 안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쳇말로 한다면 나 하나의 원소 자체에서, 원자 자체에서 입자가 돼서 소립자도 되고, 입자 자체가 바로 소립자가 돼서 원자가 되고, 이렇게 수만 개가 펴져서 아니 되는 게 없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돼지면 돼지 사람이면 사람 벌레면 벌레, 아니 드는 데가 없이 모습을 바꿔서 거기 그 속에 들어가면 그 모습이 되죠. 그렇게 해서 천차만별로 그 모습이 화해서 부처님께서는 바로 자기가 돼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니 되는 게 없고 나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내 삶 아님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뒤집어서 보여 드려야 여러분이 납득이 되실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한 부처님은 항상 살아 계십니다. 삼천 년 전도 없고 삼천 년 후도 없고 현실도 공해서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할 겁니다. 여러분이 그 도리만 안다면, 즉 말하자면 정신의학, 정신천체물리학, 정신천문학 정신철학 정신의학…, 이 진리의 모든 것들이 없는 게, 없는 자체를 한마음의 정신계로 투입할 수 있고, 정신계에 투입된다면 바로 물질계로 투입이 돼서 여러분은 한생각이 멀고 가까운 게 없이 들고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부처님께서는 보는 것, 듣는 것, 아는 것, 가고 오는 것, 어디서 온 거를 아는 거, 오신통을 다 한다 해도 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나. 왜 도가 아니라고 그랬나. 오신통을 쓰고 오신통을 아는데도 왜 도가 아니라고 그랬나 이런 겁니다. 보세요. 이 컵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말려서 어떻게 불에다 구웠고 또 어떻게 생겼고 높이가 몇이나 되고 넓이가 몇이고 폭이 몇이고, 이런 거를 아는 것이 도가 아니다 이 소립니다. 단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줄 줄 알고 내가 목마르면 먹을 줄 알아야만이 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물 자체뿐만 아니라 세계를 통하고 우주를 통해서 볼 때 여러분이 그 도리를 알아서 한 생각으로써 볼 수 있다면…, 볼 수 있다는 것은 이쪽 전자와 저쪽 전자의 양면을 합쳐 놓아서 전깃불이 들어오게끔 만드는 작업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컴컴하면 불을 켜고, 그 불을 켜서 밝게 하고 이렇게 움죽거리듯이, 컵이 있다면 이걸 들어서 갖다 먹고 또 편리한 데다 놓고 필요한 사람에게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 컵이 있는 것을 보기만 하고 컵이 여기 있다고 알기만 한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보는 것도 소용없고 듣는 것도 소용없고 가고 오는 것도 소용없고 아는 것도 소용없어요. 이거는 내가 집어먹기 위한 과정이지요.

모두가 여러분 몸이 있기 때문에 실천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몸이 없어도 보이지 않으니까 무효고, 마음 낼 줄을 몰라도 목석이니 무효고, 또 생명이 없으면 아예 그냥 생기지 않으니까 무효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생겼기 때문에 모두가 복합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도리를 진실로, 생활 속에서 막바로 펴 나가실 수 있다면 아무것도 걱정될 게 없습니다. 자녀들이 병이 들었다거나,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어떤 애고가 있다든가 인과성으로 그렇다든가 영계성으로 그렇다든가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한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하고 거기 그냥 맡겨 놓는 그 작업을 생활 속에서 자꾸 해 보십시오. 그러면 체험을 하게 되고 생활이 아주 편리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 싹이 자기 뿌리를 믿음으로써 바로 제 뿌리에서 에너지를 올려보내게 해서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제 나무에서 익으니 얼마나 맛이 좋겠습니까? 그러니 만 가지 맛이 나서 여러분이 만 가지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이 공부하는 과정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저는 책을 읽어 가지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책을 본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한 거는 자꾸 잊어버려져서, 또 이곳에 소리가 울려서 잊어버려지고 그래서 참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허허허….

(다음 호에 계속)

여러분이 마음을 넓게 가지고
모든 진리를 파악해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 지금 시점의 어려운 과정을 타파할 수 없습니다

※위 법문은 1994년 4월 24일 국내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기 2553년(2009년) 기축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 특집광고 접수 안내

귀의삼보 하옵니다.
불법홍포를 위해 정진하시는 대덕 큰스님 이하 사부대중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현대불교신문을 관심 있게 지켜보아 주시고, 물심양면 도움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머리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불기 2553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온 누리에 부처님의 법 향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봉축 특집 신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함께하는 축하광고 지면을 마련하였사오니 무루 동참해 주시어 부처님의 법음이 더욱 밝아지도록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정진의 자세로 더욱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 래

■ 제 목 : 2009년 봉축 특집 축하광고
■ 내 용 : 축하말씀, 단체 및 사찰명, 임원진, 사진, 주소, 연락처 등
■ 크 기 : 크기에 따라 선택 가능
■ 마감일 : 2009년 4월 22일(수요일)
■ 접수처 : 현대불교신문사 영업부 및 지사지국

본 사	02)732-1522
부산지사	051)632-0064
대구지사	053)768-8008
충청지사	043)732-5560
경남남부	055)746-9778
경남동부	055)353-1196
경남서부	055)355-7472
광주전남	062)384-3009
전 북	063)910-5199
영주지국	054)634-3429

※전화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고 크기별 샘플 보내드립니다.

현 대 불 교 신 문 사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오 세 룡	051)632-0064 / 011-847-1211
대구지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충청지사	혜철스님	043)732-5560 / 010-9422-8453
경남 동부지사	혜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영민스님	055)355-7472 / 011-9312-222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6-629-1508
전북지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주지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1-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불자 세상보기

황 진 수

한성대 교수

너희가 실업자의 고뇌를 아느냐

"만약 내가 몸이 아프다면 누구 책임일까. 국가와 사회의 책임일까 아니면 환자 개인의 책임일까?"

"나는 직장을 원하는데 직장이 없다. 그건 누구의 책임인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인가 아니면 개인의 책임인가?"

위 질문에 대하여 유럽인들은 모두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라고 답한다. 한국인은 몸이 아픈 것의 책임은 개인이지만 직장이 없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유럽의 복지모델은 엘리자베스 1세의 구빈법 이후 소득, 질병의 보장은 국가, 사회의 책무를 강조했지만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국가재정이 어려웠기 때문인지 복지체계를 미국식인 '선 개인책임, 후 국가책임' 체제로 만들어 놓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 비경제 활동인구가 사상 최대라는 보도가 있었다. 만 15세 이상 일할 능력은 있으나 일 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경제활동 포기인구가 비경제활동인구인데, 지난 2월 기준 1623만명(통계청)이라는 것이다.

최근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비경제활동인구가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다는게 정부당국의 판단이다. 우리나라 공식 실업률은 3.3%로 서구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러나 비경제 활동인구 중 사실상 실업자에 해당하는 취업준비자, 구직활동 중단자, 구직단념자는 모두 248만명이고 여기에 통계상의 실업자 92만명, 아르바이트, 임시휴직자까지 포함시키면 실제 실업자는 400만명이다. 그러니까 실제 실업율은 3.3%가 아니라 15%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비경제활동인구 1600여만명은 실업자 이외에 일주일에 1~2시간도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그만큼 된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최근 일자리 추경예산이라며 세수감수분 11조 2000억원을 포함한 29조 9000억원의 예산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번 추경안은 금융과 건설 위주의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 추경의 핵심이랄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예산은 2.8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 그 중 2조는 40만 가구에 대해 6개월간 공공근로를 하게하고 월 63만원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나머지 8000억원은 중소기업인턴, 학습보조인턴 등 15만개를 만든다는 것인데 계산해보면 1인당 월 평균 46만원짜리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부의 추경예산안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거의 한시적 공공근로만으로 채워졌다고 볼 수 있다.

실업자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최근 실업자 문제가 심상치 않다는데 우리는 큰 우려를 한다. 실업자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백가쟁명(百家爭鳴)으로 많겠지만 정부차원의 보다 적극적 일자리 만들기 사업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합리적인 경제성장, 굴뚝산업, 서비스산업에 활력을 넣어야 한다. 또 일자리 나누기사업, 실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맞춤 교육도 중요하다. 청년실업자의 경우 대기업, 공사, 공무원 등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눈높이를 맞추어야 한다. 또 해외에 눈을 돌리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하고 자신만의 특화된 기술과 지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실직자, 실업자의 고뇌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허허벌판에 혼자 남겨져 있는 심정을 누가 알겠는가. 캄캄한 밤중에 등불도 없이 황야를 헤매는 마음을 정책결정자들은 짐작할 수 있는가.

정부와 사회는 실업자를 위한 획기적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 정부와 사회에게 실업자를 대신하여 질문한다. "너희가 실업자의 고뇌를 아느냐."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연등축제 사전 준비 철저히

올해의 연등축제는 4월 26일 장충체육관과 동국대학교 대운동장 등에서 열린다. 물론 조계사 앞 축제는 예년과 다름없이 진행된다. 수년간 연등축제 장소로 사용해 왔던 동대문운동장이 철거됨에 따라 부득불 연등축제의 어울림마당은 장충체육관 실내에서 열리고 이어서 화합한마당은 동국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다.

화합한마당이 끝나는 대로 축제의 하이라이트 제등행렬이 시작되는데 동국대에서 장충체육관을 거쳐 동대문으로 이동하는 구간이 예년에 비해 늘어난 셈이다. 장엄등은 동대문 이전 정해진 지역에서 대기하다가 행렬과 합류한다.

장소의 이원화와 행렬구간의 변화 그리고 장엄등의 별도 합류 등 예년에 비해 연등축제의 진행 과정이 복잡해진 것이다. 서울시내에는 연등축제를 감당할 만한 장소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장충체육관이나 동국대 운동장에 입장하는 불자의 수를 제한해야 하는 일도 생겨났다.

이런 상황에서 축제를 준비하는 봉축위원회는 상당히 긴장해야 한다. 참여 사찰과 단체들에게 당일 일정과 행사지침을 충분하게 공지하여 진행상 혼선이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참가단체들이 장소와 행렬의 흐름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으면 우왕좌왕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축제도 망치고 사고 위험도 생긴다. 봉축위는 참가 사찰과 단체에 자세한 일정과 행사 개요를 충분히 설명하고 철저하게 주의 사항을 하달해야 할 것이다.

구호사업에 뛰어 든 종책모임

조계종 중앙종회의 종책모임이 국제구호 운동에 뛰어들었다. 종책모임 화엄회가 지구촌공생회와 미얀마 화엄초등학교 건립과 관련, 협정을 하고 지정 기탁금 2억 원을 기탁했다. 또 로터스월드와도 업무협정을 하고 로터스월드가 캄보디아 씨엔립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 교육시설 등에 3억 원을 전달했다.

중앙종회 종책모임이 같은 날 기존의 두 국제구호단체와 협약을 하고 적지 않은 기금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화엄회의 이날 행보는 종단의 중요 소임자인 중앙종회의원들이 국제구호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현하고 동참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박수 받을 만한 일이다.

그러나 모임의 성격이 종단 내부의 정치적 성향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해의 각도가 분분한 것도 사실이다. 하필이면 총무원장 선거가 치러지는 해에 협약을 했느냐는 시선도 있고 중앙종회의원으로서의 본분사인 의정활동 보다 구호사업에 더 공을 들이는 것 같다는 빈정 섞인 시선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선은 앞으로의 활동이 입증해 줄 것이다. 동기가 순수하면 순수하게 구호 사업에만 열중할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종단 입법기구에 속한 종회의원들이 국제구호사업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다. 일부 단체들의 국제구호 사업이 보다 지속적으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종단 차원의 검토와 지원 시스템도 필요하다. 이번 화엄회의 협약들이 그런 패러다임 구축의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

현불만평

박구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4월의 테마-감사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도록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존재의 참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 부처님께 감사한다.

어둠속에서 밝음을 볼 수 있고
침묵 속에서 시끄러움을 그리워하는 인간

그리움에서 애틋함을 느끼고
미움에서 그리움으로 전향할 수 있는 존재

그러한 존재의 가치를 더욱 가치롭게 만들 수 있는
나는 인간성을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창조할 수 있는 인간인 것에 감사하고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존재이기에
나 자신은
이 세상에 감사한다.

여명이 움트지 않은 새벽 3시 반, 도량석을 돌고 예불을 올린다. <반야심경> 봉독과 108배를 잇는 나의 하루는 참회와 감사로 시작된다. 하루의 마무리도 "부처님 감사합니다"를 되뇌이는 것으로 삼는다.

사람들은 행복을 누리고 싶어한다. 행복은 자기만족이다. 행복하려면 자신이 바라는 만큼 가득 채우거나 자신의 바램을 주어진 상황에 맞춰가는 방법뿐이다.

그러려면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최선이다. 중생은 탐 · 진 · 치 삼독(三毒)에 갇혀 산다. 무엇을 하려하는 의지가 다른 사람의 의지와 충돌하면서 갈등을 겪는다.

누군가 나를 비난했을 때, 우리는 그 비난을 받고 싶지 않다는 자신의 의지와 감정으로 받아들인다. 결코 원하지 않았던 비난에 대해 심리적으로 저항하기 마련인데, 그때 느끼는 감정이 불행이다.

이때 "아~ 그렇구나"하고 받아들인다면 어떨까? 다가온 상황에 아무 의지도 감정도 없다면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릴 까닭이 없다. 아무리 원치 않던 일이라 해도, 누가 나를 손가락질 해도 "이만하게 끝내줘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 순간이 행복이다.

행복은 자신의 삶을 소중히 하고 감사히 여기는 마음을 찾을 때 얻어진다.

5월 2일은 부처님오신날이다. 이 날은 부처님 탄생을 감사하는 날이다. 부처님 탄생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한 것을 뜻하지만, 중생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보인 날이기도 하다.

견성(見性)하면 누구나 성불한다. 그것이 내가 부처인 까닭이지만, 남도 부처가 되는 이유다. 때문에 나도 부처, 남도 부처이며, 부처인 나와 남은 하나다.

불기 2553년 부처님오신날에는 부처님 법을 만난 것에 감사하고, 동체대비(同體大悲)를 실현해 모두가 행복하기를 기원한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희철 스님

서울 부암사 주지
동국대 박사

命理學 수강생 모집

석충원(명양 명리학당)에서는 사주명리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주간반 · 야간반 · 주말반

■ 입 문 반
3개월과정 매주 월 · 목요일,주말 (주1회. 4시간)
수강료 월 10만원

■ 연 구 반
6개월과정 매주 화 · 금요일,주말 (주1회. 4시간)
수강료 월 10만원

■ 실 전 반
3개월과정 매주 수요일 주말 (주1회. 4시간)
수강료 월 20만원

■ 접수방법 : 전화 및 방문상담

■ 연락처 :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05-43
☎ 032)330-4684,503-4684

石充院 (명리학당) 明陽 이태영

패철 보는 법

하루 저녁이면 깨우치는
종수지리 이기론 핵심
나경사용법
전용 원지음
연습용 19층 갈라 나경 도해 삽입
이 책 구입한 분 www.kbs.cc에서 나경 사용법 강의 무료 시청
★나경을 쉽게 배운다
★양택론 음택론
★명당 잡는법
★수맥 측정과 수맥파 차단법
진산

패철은 나침반이다. 어려울 이유가 없다. 누구나 이 책 한권이면 패철보는법 뿐만 아니라 음택, 양택, 수맥,명당잡는법까지 하루밤에 확실히 배울 수 있다.
문학박사 전용원저. 표지본문 올칼라 46배판 영구보존 정장본. 정가 2만5천원 할인가 2만2천원. 무료배송 + 월간역학 1개월(8천8백원) 함께 증정. 한번에 2권 이상 구입시 권당 2천원 추가 할인. 우리은행 064-301374-13-001 한국역학협회 주문전화: 1688-1137
명당탐지기 관룡자 있음(할인가 66만원+각종 사은품)
저렴 신속 사주 관상 풍수 동영상 강의 www.kbs.cc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28",…"» `¶ ,Ø 2009.4.6 2:49 PM ˘ ` 1 §ǂ°‰"3



塔(탑)

국태민안 원력담아

쌓는 수행자들

대한불교 선각종 총본산 옴천사(唵泉寺)

전통사찰 옴천사(唵泉寺)는 전남 강진군 옴천면 개산리 목암산 줄기에 자리하고 있다. (사) 대한불교 선각종 총림이며 1966년 정암스님이 개산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옴천사가 자리한 목암산은 호남의 해금강이라 일컫는 영암 월출산의 한 지류를 이루고, 활성산에서 시작하여 동서 양 갈래로 산맥을 형성하며 옴천을 둥굴게 에워 싸고 있다.

인근엔 봉우리의 으뜸이라 할 수 있는 봉황산이 넉넉히 자리하고, 면의 지명인 "옴천"에서 볼수 있듯 옴천사의 '옴(唵)"은 범어의 '신성한 뜻을 품은 기도하는 말' 이다. 그런 연유에서 인지 정암스님은 유독 기도와 수행에 전념한다.

지난 2000년 새천년을 맞이하여 3천불과 3천탑 조성원력을 세웠다.

옴천사 스님들은 아침예불이 끝나면 짓궂은 날씨만 아니면 자연스레 탑쌓기 울력에 동참한다. 울력이라기 보다는 스님들에게 수행과 정진의 한 부분이다. 현장으로 향하기 전에 스님들은 각자의 발원을 담아 부처님 전에 발원 기도를 한다.

정암스님은 경내 골짜기 곳곳에 직접 탑을 쌓고 노천에 부처님을 정성들여 모신다.

지금까지 4천여평의 산자락에 1600불을 조성하고 1600기의 자연석탑을 쌓고 있다.

돌탑에 호국기원, 국태민안, 원력담아 자유자재한 탑 모습에 감화

이는 오직 불자들의 안위를 바라고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며 이웃을 생각하고 함께 했던 것이다. 크고 작은 탑들의 미묘한 아름다움은 정암스님의 지성어린 정열과 신심의 소산이다.

탑과 노천불로 천지를 이루고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 관세음과 지장보살의 기도처!

불자들의 기도와 수행정진을 근기에 맞도록 배려하고 있는 옴천사의 수행환경이 돋보인다.



탑을 쌓고있는 정암스님



중국 연수교육 산동 영암사



수용자 독경대회

대한불교 선각종

총무원 : 전남 강진군 옴천면 개산리 391 옴천사
TEL:(061)433-2233 / FAX:(061)433-2425
종무소 (061)433-3233

선각종의 포교활동

받는 종교보다 베푸는 종교가 돼야

■수용자 교화활동
- 수행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처한 장소가 수행처인 것이다. 장소를 구분하지 말고 마음을 밝히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참 나를 찾는 주인공이 되자.
- 심신을 더욱 청정히 하여 분별심을 벗어버리고 자비와 덕을 행하는 불자로 거듭날 것을 당부

■사회복지사업
- 한국어린이보호재단 심장병어린이 돕기
- 소년소녀 가장돕기 자매결연
- 청소년 선도, 장애우 돕기
- 무의탁 노인돕기

■순국 선열 및 호국영령 수용자 합동 천도재
- 교도소 수용자 합동 수계 법회
- 찬불가 및 독경 경연대회(연 2회)

■대한불교선각종 종립 국제불교대학(2년제) 운영
- 지도자 과정
- 범패의식 과정
- 기초교리 과정
- 외국어 과정

■중국 현지 연수 교육

■선각종 지장회 장례봉사단 운영

■장묘사업 현대화
- 가족공원, 생태공원화 사업, 수목장
- 현대적인 납골시설과 함께 휴양 휴게시설

선각종의 향후계획

"항상 자신을 되돌아보고 정진의 끈을 놓지말라"

■호국기원, 국태민안 3000탑 쌓기
■전국기원 각 시 · 도별 8도탑 쌓기
■선각종 경전연구회 경전 발간
■선각종 전국 불자신도회 사부대중 자질향상 교리강좌(하계 · 동계)
■수목장 적극장려, 조성계획
■어린이 불자 한문서당 운영
■탬플스테이 돌탑 체험 실습
■6월 호국영령 및 순국선열 영산대제
■선각종 종도 교육에 대한 워크샵
■선각종 법요집, 교리의식 하계, 동계 수련회
■전국 교구 종무원 종도 일동 대외 포교활동 및 정법향상을 위한 교육관, 수련관, 교육본부, 종도 기념관 건립

입 종 안 내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 포교에 전념하실 스님, 포교사, 법사님을 모십니다.

■준비서류

종단 입종 신청서, 사찰등록신청서(사찰 건물 내 · 외부 사진 각 1장), 건물등기부 사본 1부(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서약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이력서 1부, 사진(반명함) 6매

옴천사 봉축 연등 접수합니다.

MBC BBS 불교방송 YTN 광고방영중
보성삼베섬유(주)는 27년의 전통을 바탕으로 국내 최고의 제품만을 생산합니다
〈한국형사직물시험연구원 품질보증 지정업체〉
ISO 9001:2000 국제품질인증 획득
대한상조협회 장례이행보증 인증
HANATOUR 보성블루투어(주) 선문판매점
수호천사
기축년(운달)수의 구입고객께 확정금액 (후불제) 장례서비스 제공
기축년
윤년맞이 특별할인 판매
수호천사는 삼베 재배에서 제조, 장례서비스까지 새로운 개념의 장례토털서비스의 이름 입니다
27년간 장인정신으로 이어온 수호천사로 여러분의 효(孝)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보성삼베섬유(주) 전속모델 방송인 강 부 자
NAVER 보성삼베섬유
www.suho-1004.co.kr
인터넷 검색창에 "보성삼베섬유"로 검색하세요.
수호천사
※ 24긴급 장례 문의 1544-6607
※ 소비자 상담실 1544-6609
보성삼베섬유(주) BOSUNGSAMBE.Co., Ltd
보성삼베섬유(주) · 보성상조(주) · 보성블루투어(주) · 제주블루여행사 · 제주푸른밤펜션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66-1 / TEL: 02-477-8060 FAX: 02-477-8061
대한불교 선각종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보성그룹은 선각종과 함께 하겠습니다